

軍 史

2023. 3. 제126호
Military History

- 삼국시대 동맹의 성립과 영향
- 운용사례를 통해 본 고려 말 화통(火筒)과 화포(火砲)의 실상
-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 적극방어 교리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 미육군 FM 100-5 작전 교범 1976년판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 군의 정치개입(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비교
: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서 평]

- 7세기 중화적 천하질서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
- 동북아역사재단(임기환 지음),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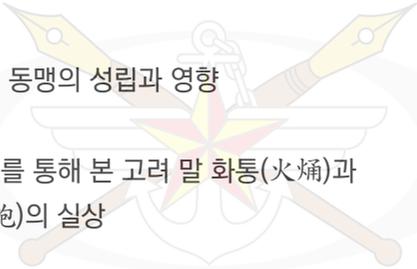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제126호 | 2023년 3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Contents | 2023. 3. 제126호

- 
- 1 ▶ 삼국시대 동맹의 성립과 영향 김덕원
- 41 ▶ 운용사례를 통해 본 고려 말 화통(火筒)과
화포(火砲)의 실상 오기승
- 81 ▶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이종화
윤현식
- 117 ▶ 적극방어 교리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박솔규
:미육군 FM 100-5 작전 교범 1976년판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 175 ▶ 군의 정치개입 이한형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비교
: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軍史



Contents | 2023. 3. 제126호

[서 평]

- 209 ▶ 7세기 중화적 천하질서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
- 동북아역사재단(임기환 지음),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

李玟洙

[부 록]

- 235 ▶ 연구소 동정
238 ▶ 신간 도서 소개
240 ▶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242 ▶ 『軍史』誌 投稿案内
245 ▶ 연구윤리 예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1-40
<https://doi.org/10.29212/mh.2023..12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삼국시대 동맹의 성립과 영향*

김덕원 | 명지대학교 사학과 강사

목 차

1. 머리말
2. 동맹의 성립 과정
3. 동맹의 영향
4. 맺음말

초 록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5세기대의 제라동맹, 6세기대의 여라동맹, 7세기대의 제려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동맹마다 각국의 목적과 성격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결과와 영향도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의 동맹의 특징은 삼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동맹은 한 번도 없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각각 다른 두 국가들이 상호 관계를 맺으며 성립하였다. 또한 어느 한 국가만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삼국이 각각 2회씩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와 당이 주도한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라

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에 삼국의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동맹은 신라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었고, 결국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한강유역, 제라동맹, 여라동맹, 제려동맹, 삼국통일

(원고투고일 : 2023. 1. 12, 심사수정일 : 2023. 2. 21, 게재확정일 : 2023. 3. 2.)



1. 머리말

동맹은 하나 이상의 국가 사이에 성립되는 외교적인 결과로써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인 결합 상태를 의미한다.¹⁾ 이러한 동맹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국력이 약화되면서 멸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동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큰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동맹은 대체로 정치·외교·군사 등의 분야에서 공개적이거나 또는 비공개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목적에 따라 그 성격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맹은 성립하기 이전의 배경, 시기, 목적, 내용, 과정 등과 성립한 이후에는 경과와 종료(또는 결렬), 결과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동맹이 종료(또는 결렬)된 이후에는 그 성격과 영향과 의의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한국사에서의 동맹은 대체로 고대사 특히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존재하였던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 삼국시대의 동맹은 신라·고구려·백제의 친선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1918)

1)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卷二, 大修館書店, 1984, 1904쪽.

2) 후삼국통일 이후 대내적으로는 고려와 조선으로 계승되면서 통일 왕조가 등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교류가 군사 활동보다는 대체로 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국시대만큼 동맹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과 대립의 과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비교적 일찍부터 여러 국가들이 교류하면서 상호 친선관계를 형성하였지만, 5세기대 이후에는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였다.³⁾ 그 과정에서 삼국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친선관계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상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삼국의 동맹이 성립하였다.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⁴⁾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리고 5세기대의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하 제라동맹이라 함), 6세기대의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이하 여라동맹이라⁵⁾ 함), 7세기대의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이하 제려동맹이라⁶⁾ 함)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동맹은 이후 삼국이 상호 친선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 동맹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동맹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느 하나에만 국한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동맹은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상호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체

3) 강중훈, 「5~6세기 삼국 간 국경의 변동에 관한 제설의 검토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16, 2014 ; 장창은, 「475~551년 한강 유역 영역변천사 연구동향」, 『역사와 교육』 20, 2015.

4)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81~119쪽.

5) 여라동맹은 대체로 '밀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6) 제려동맹은 대체로 '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호영, 「려-제연화설의 검토」, 『경희사학』 9:10, 1982 ; 『신라삼국통합과 려-제 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7) 제라동맹을 제외하고 여라동맹과 제려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동맹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국시대의 동맹을 검토할 때 동맹에 대한 용어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동맹’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맹이 성립하는 과정에서는 관련국들 사이에 상호 일정한 의식을 동반하고 있다.⁸⁾ 최근에 제라동맹과 관련하여 동맹이 성립할 때 ‘삽혈’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오류를 제기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⁹⁾ 그러나 가변적인 상황이 많은 국제관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삽혈’을 하지 못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¹⁰⁾ 그리고 ‘삽혈’은 반드시 국가 사이의 동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¹¹⁾ 따라서 ‘삽혈’ 의식의 거행 여부로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라동맹의 ‘동맹’을¹²⁾ 제외하면 여라동맹과 제려동맹은 ‘밀약’,¹³⁾ ‘연화’¹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8) 김병주, 「나제동맹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46, 1984 ; 공석구, 「‘나제동맹’을 다시 검토한다」, 『백제학보』 30, 2019 ; 이재석, 「고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와 <맹약> -<조공-맹약>체제의 가능성-」, 『한국사학보』 78, 2020 ; 이재석, 「고대 한일 사료에 보이는 <맹약>」, 『한일관계사연구』 67, 2020.

9) 공석구, 앞의 논문, 2019, 11~14쪽.

10)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될 때에도(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 30~32쪽)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에 ‘삽혈’ 의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삽혈’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당동맹 역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11) 실제로 642년에 김춘추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기 전에 김유신과 ‘삽혈’을 하고 맹세를 하였다(『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상) 참조).

12) 대체로 제라동맹만 일관되게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군사협력 단계’(정재윤, 「웅진시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나제동맹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호서고고학』 45, 2001, 72쪽 주 22) 참조), ‘군사협력 관계’(공석구, 앞의 논문, 2019, 17쪽), ‘군사협력체제’(위가야,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체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등의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동맹의 형식과 성격에 관련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동맹에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동맹의 명칭은 동맹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국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한다.¹⁵⁾ 그러나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명칭은 대체로 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동맹을 주도하였던 국가를 먼저 표현하여 ‘제라’동맹, ‘여라’동맹, ‘제려’동맹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용의 문제들을 유념하면서 제라동맹, 여라동맹, 제려동맹의 성립과 그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다루어진 분야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 13) 여라밀약은 ‘화호’(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2006, 50쪽), ‘협약’(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96쪽), ‘통호’(박윤선, 『6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아나사마도』, 『역사와 현실』 77, 2010, 215쪽), ‘담판’(이영재, 『여라밀약설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등의 용어가 제기되고 있다.
 - 14) 제려연화는 ‘악수’(이병도, 『한국사』 -고대편-, 을유문화사, 1959, 503쪽), ‘연합’(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1981, 99쪽) 등의 용어가 제기되었지만, 이미 ‘동맹’(노계현, 『신라의 통일외교정책연구』, 『국제법학논총』 9-1, 1964, 34~40쪽 ; 이만열, 『삼국의 항쟁』,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8, 485쪽 ;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1991, 160쪽)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 15) 노중국, 앞의 논문, 1981 ;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129쪽 ; 정재운, 앞의 논문, 2001, 69쪽 ;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 13, 2015, 59쪽 ; 선봉조, 『7세기 제려동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15쪽 주 35) 참조.

2. 동맹의 성립 과정

삼국시대 동맹의 성립 과정은 각각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강유역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반영되면서 제라동맹, 여라동맹, 제려동맹 등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동맹이 성립될 당시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 제라동맹의 성립 과정

4세기 후기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하여 남쪽으로 임진강유역까지 진출하였다. 특히 장수왕은 427년(장수왕 15)에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¹⁶⁾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가을 7월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¹⁷⁾

A-2. 가을 7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랐다.¹⁸⁾

A-3. 봄 2월에 사신을 신라에 파견하여 좋은 말 두 필을 보

16) 장창은, 「5~6세기 고구려의 남하와 한강 유역의 영역확장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 고지’의 실제(Ⅱ)-」, 『백산학보』 88, 2010 ;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111~155쪽.

17)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7년 가을 7월.

1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7년 가을 7월.

냈다.¹⁹⁾

A-4. 봄 2월에 백제왕이 좋은 말 두 필을 보냈다.²⁰⁾

A-5. 가을 9월에 (신라에) 또 흰 매를 보냈다.²¹⁾

A-6. 가을 9월에 (백제왕이) 또 흰 매를 보냈다.²²⁾

A-7. 겨울 10월에 왕이 황금과 야광주를 백제에 예물로 보내 보답하였다.²³⁾

A-8. 겨울 10월에 신라가 질 좋은 금과 명주로써 답례하였다.²⁴⁾

위의 기록은 백제와 신라의 화친에 대한 내용이다. 백제는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하고 남진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신라에 동맹을 제안하였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제라동맹의 성립 배경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동맹을 제안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백제가 우위의 위치에 있었던²⁵⁾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라동맹의 성립 시기는 433년(비유왕 7, 눌지마립간 17)과²⁶⁾ 455년(비유왕 29, 눌지마립간 39)으로²⁷⁾ 크게 구분되는데,²⁸⁾

19)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 2월.

2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8년 봄 2월.

21)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 가을 9월.

2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8년 가을 9월.

2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8년 겨울 10월.

24)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 겨울 10월.

25) 김창석, 「6세기 전반 신라의 대외관계와 백제관」, 『사학지』 57, 2018, 10~11쪽.

26) 김병주, 앞의 논문, 1984, 29~39쪽.

27) 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 1996, 91~104쪽.

28) 제라동맹의 성립 시기에 대한 연구성과는 위가야, 「‘나제동맹’의 공수 전략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51~52쪽 참조.

433년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²⁹⁾ 위의 사료 A와 같이 433년에 제라동맹이 성립된 이듬해에 백제와 신라는 3회에 걸쳐서 교류를 실시하였다. 양국이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한 시기 63년(탈해이사금 7년)³⁰⁾ 이후에 이렇게 빈번한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양국 사이에 특별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493년(동성왕 15)에 백제가 신라에 혼인을 요청하였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국왕이 혼인할 때보다 더 많은 교류를 하였다는 사실은 국왕의 혼인만큼 중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³¹⁾ 그리고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제라동맹을 검토할 때 주목되는 것은 제라동맹은 5세기와 6세기의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기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즉 제라동맹은 대체로 5세기 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시

29) 433년에 백제와 신라의 교류는 선린 우호관계의 수준(정운용, 앞의 논문, 1996, 101쪽), 일종의 '상호불가침' 협정(주보돈, 『웅진도읍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 2003, 190쪽; 유우창, 『5세기대 '나제동맹'의 성립과 가라국』, 『부대사학』 30, 2006, 195쪽) 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3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7년 겨울 10월;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다루왕 36년 겨울 10월.

31) 434년의 교류 이후 455년에 신라가 군사를 파견할 때까지 백제와 신라의 교류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455년 9월에 백제 비유왕이 죽고 곧바로 10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자 신라가 군사를 파견하여 구원하였다. 아마도 고구려는 백제 비유왕의 죽음 이후에 혼란한 틈을 타서 침입한 것이 아닐까 한다. 비유왕의 죽음은 일상적이지 않으며, 정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양기석, 『5~6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관계』,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15, 1994;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2013, 167~189쪽).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고구려의 침입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467년(개로왕 13)까지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라동맹이 성립되는 어렵지 않을 까 한다. 또한 455년에 신라가 군사를 파견한 것은 그 이전에 제라동맹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양국이 아무런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군사를 파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³²⁾ 제라동맹이 약 12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처음 성립되었을 때의 목적이나 내용 등이 일관되게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백제와 신라는 당시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그 관계가 변화하였고, 제라동맹 역시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6세기 초기에는 제라동맹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제라동맹은 제1차 제라동맹(433~497)과 제2차 제라동맹(539~554)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제라동맹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제라동맹이 성립된 이후의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라동맹기 삼국의 군사적 충돌 양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라동맹이 성립한 433년부터 종료된 554년까지 백제·신라와 고구려 사이에는 모두 35회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제라 양국은 모두 8회에 걸쳐서 공동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방어전이 7회, 공격전이 1회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35회의 군사적 충돌에서 약 22.8%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1차 제라동맹인 433년부터 497년까지 삼국 사이에는 모두 15회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백제가 단독으로 고구려를 침입한 1회를 제외하고, 백제와 신라는 14회에 걸쳐 고구려의 침입을 받았다. 백제는 고구려의 부용세력인 말갈의 침입 1회를 포함하여 4회, 신라는 말갈의 침입 1회를 포함하여

32) 박윤선, 앞의 논문, 2015, 56쪽 ; 김병남, 「5세기 말 백제와 신라의 협력 과정 재검토」, 『역사와 경계』 111, 2019, 32쪽 주 3) 참조.

33) 정운용은 나제동맹을 전기(455~500)와 후기(501~554)로 구분하였다(정운용, 앞의 논문, 1996 ; 「『삼국사기』 교빙 기사를 통해 본 나제동맹 시기의 재검토」, 『백제 연구』 44, 2006).

10회의 침입을 받았다. 특히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한 이후에는 신라를 집중적으로 침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제와 신라는 각각 3회씩 모두 6회에 걸쳐 상호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제라동맹 기간 동안에 백제 3회와 신라 4회, 모두 7회의 구원군 파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약 85.7%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14회 침략에 백제와 신라가 상호 구원군을 파견한 비율은 6회로, 절반에 가까운 약 42.8%이다. 이 중에서 백제는 10회의 침입을 받은 신라에 3회를 파견하여 30%, 신라는 4회의 침입을 받은 백제에 3회를 파견하여 75%의 비율로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신라는 백제보다 고구려의 침입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에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제1차 제라동맹의 목적은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침입에 상호 협조하여 방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제와 신라가 공동으로 방어만 하였던 이유는 당시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³⁴⁾ 따라서 제1차 제라동맹은 攻守同盟보다는³⁵⁾ 방어동맹으로써³⁶⁾ 共守同盟의³⁷⁾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백제는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제1차 제라동맹은 백제는 실패, 신라는 성공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34) 제라동맹기 고구려의 침입과 백제-신라의 대응에 대한 문제는 별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5) 이만열, 앞의 논문, 1978, 471쪽.

36) 김병주, 앞의 논문, 1984, 43쪽; 정운용, 「5세기 신라의 대백제관계와 상호 인식」, 『향토서술』 72, 2008, 88쪽.

37) 신형식, 「신라왕위계승고」, 『유홍렬박사화갑기념논총』, 1971, 74쪽;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앞의 책, 2012, 129~130쪽.

〈표 1〉 5세기대 고구려의 침입과 백제신라의 대응

| 순번 | 연대 | | 국명 | 형태 | 군사 요청 | | 군사 파견 | | 비 고 |
|----|------------------------------------|----|----|----|-------|-----|-------|----|-----------------------------|
| | 연 | 월 | | | 백제 | 신라 | 백제 | 신라 | |
| 1 | 450 | 7 | 신라 | 방어 | | X | X | | 제라동맹 후 최초의 침입 |
| 2 | 454 | 8 | 신라 | 방어 | | X | X | | 고본은 7월로 기록됨 |
| 3 | 455 | 10 | 백제 | 방어 | (O) | | | O | 제라동맹 후 최초의 구원군 파견. 신본에만 기록됨 |
| 4 | 468 | 봄 | 신라 | 방어 | | X | X | | 고본은 2월로 기록됨 |
| 5 | 469 | 8 | 백제 | 공격 | X | | | X | 백제의 단독 공격 |
| 6 | 475 | 9 | 백제 | 방어 | O | | | O | 신본은 474년으로 기록됨 |
| 7 | 480 | 11 | 신라 | 방어 | | X | X | | 말갈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임. 신본에만 기록됨 |
| 8 | 481 | 3 | 신라 | 방어 | | (O) | O | | 신본에만 기록됨 |
| 9 | 482 | 9 | 백제 | 방어 | X | | | X | 말갈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임. 백본에만 기록됨 |
| 10 | 484 | 7 | 신라 | 방어 | | (O) | O | | 신본에만 기록됨 |
| 11 | 489 | 9 | 신라 | 방어 | | X | X | | 9월과 연결된 전투로, 고본은 9월로 일괄 기록됨 |
| | | 10 | 신라 | 방어 | | X | X | | |
| 12 | 494 | 7 | 신라 | 방어 | | (O) | O | | |
| 13 | 495 | 8 | 백제 | 방어 | O | | | O | |
| 14 | 496 | 7 | 신라 | 방어 | | X | X | | |
| 15 | 497 | 8 | 신라 | 방어 | | X | X | | |
| 범례 | 신본·고본·백본=『삼국사기』 신라본·가·고구려본·가·백제본·기 | | | | | | | | |

()는 추정

6세기의 제2차 제라동맹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이전까지 고구려는 신라를 침입한 사실이 없는 대신에 백제를 집중적으로 침입하였다. 백제도 이전보다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하

면서 고구려에 대한 침입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와 신라의 교류 기록은 이전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었다.³⁸⁾ 또한 이 시기에 신라가 구원군을 파견한 것은 554년에 관산성 전투가 발생하기 이전에 9회의 침입을 받을 동안 단 1회인 약 11.1%에 불과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538년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성왕은 사비로 천도한 이듬해인 539년에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일시 중단된 제라동맹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신라에 재성립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는 법흥왕대에 대내외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제안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539년에 백제와 신라가 공통으로 기록이 누락되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제라동맹이 재성립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550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자, 곧이어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빼앗았다. 이때 신라는 양국이 피로한 틈을 이용하여 두 성을 모두 차지하였다.³⁹⁾ 신라가 동맹관계인 백제를 공격하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의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⁴⁰⁾

38) 이와 관련하여 백제와 신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김병주, 앞의 논문, 1984, 35~36쪽), 신라와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 도모(양기석, 앞의 논문, 1994 ; 앞의 책, 2013, 180~181쪽), 신라의 내적 발전의 치중(정운용, 「5~6세기 신라 대외관계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119~120쪽), 신라의 내부 정비에 치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정재운, 앞의 논문, 2001, 81쪽),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암중 모색하던 시기(김창석, 앞의 논문, 2018, 14쪽) 등의 견해가 있다.

3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1년 봄 정월 및 3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551년에 백제와 신라는 상호 연합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다. 이것은 제라동맹기에 백제와 신라가 최초로 고구려를 침입한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연합하였던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2차 제라동맹은 攻守同盟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이후 553년 신라는 백제가 차지하였던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면서 제라동맹은 실질적으로 와해되었다. 그리고 554년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는 신라를 침입하였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제라동맹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⁴²⁾ 따라서 제2차 제라동맹도 백제는 실패, 신라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6세기대 고구려의 침입과 백제신라의 대응

| 순번 | 연대 | | 국명 | 형태 | 군사 요청 | | 군사 파견 | | 비고 |
|----|-----|----|----|----|-------|----|-------|------------------------------|----|
| | 연 | 월 | | | 백제 | 신라 | 백제 | 신라 | |
| 1 | 501 | 10 | 백제 | 공격 | X | | X | 백제 단독 공격. 고본에는 503년 11월로 기록됨 | |
| 2 | 502 | 11 | 백제 | 공격 | X | | X | 백제의 단독 공격 | |
| 3 | 503 | 9 | 백제 | 방어 | X | | X | 말갈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임. 백제에만 기록됨 | |
| 4 | 506 | 7 | 백제 | 방어 | X | | X | ~ | |
| 5 | | 11 | 백제 | 방어 | X | | X | 고본에만 기록됨 | |

40) 이에 대한 연구는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 2021, 28~30쪽 참조.

41) 백제는 신라와 공동으로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침입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共攻’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방어 위주보다는 공격을 많이 하였다는 측면에서 ‘攻’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유우창은 6세기를 기점으로 ‘방어동맹’에서 ‘공격동맹’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2009, 136~146쪽).

42)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군사』 121, 2021.

| | | | | | | | | | |
|----|--|-----|--------|----|-----|-----|-----|-----|-------------------------------------|
| 6 | 507 | 10 | 백제 | 방어 | X | | | X | |
| 7 | 512 | 9 | 백제 | 방어 | X | | | X | |
| 8 | 523 | 8 | 백제 | 방어 | X | | | X | |
| 9 | 529 | 10 | 백제 | 방어 | X | | | X | |
| 10 | 540 | 9 | 백제 | 공격 | X | | | X | 백제의 단독 공격 |
| 11 | 548 | 정월 | 백제 | 방어 | 0 | | | 0 | 백제의 단독 공격 |
| 12 | | 정월 | 백제 | 공격 | X | | | X | 백제의 단독 공격 |
| 13 | | 3 | 백제 | 방어 | X | | | X | |
| 14 | 550 | (3) | 백제-고구려 | 공격 | | | | | 제라동맹 성립 이후 신라 최초의 제라 공격. 백본은 기록이 없음 |
| 15 | 551 | 9 | 고구려 | 공격 | (0) | (0) | (0) | (0) | 제라동맹 성립 이후 최초의 합동 공격. 백본은 기록이 없음 |
| 16 | 553 | 7 | 백제 | 공격 | | | | | 신라가 신주를 설치함 |
| 17 | 554 | 7 | 신라 | 공격 | | | | | 제라동맹 성립 이후 백제 최초의 신라 공격 |
| 18 | | 9 | 신라 | 방어 | | | | | 유사에만 기록됨 |
| 19 | | 10 | 백제 | 방어 | | | | | |
| 20 | | 12 | 신라 | 공격 | | | | | 백제 성왕 전사함. 서기에는 12월로 기록됨 |
| 범례 | 고본·백본=『삼국사기』 고구려본·백제본기, 유사=『삼국유사』, 서기=『일본서기』 | | | | | | | | |

()는 추정

나. 여라동맹의 성립 과정

고구려는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475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확보하며⁴³⁾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

다. 그러나 안원왕대 이후에는 대내적으로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귀족세력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돌궐 등과 대립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 ... 이때 해량법사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길가로 나왔다.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례로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옛날 유학할 때 법사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연히 서로 만나니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해량법사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에 거칠부와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그를 왕에게 뵈게 하니, 왕이 승통으로 삼았다. ... 44)

B-2. 이 해에 고구려에 대란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였다<『백제본기』에는 “12월 갑오에 고려국의 세군과 추군이 궁궐의 문에서 싸웠는데, 북을 치면서 전투를 벌였다. 세군이 패하였으나 사흘 동안 군사를 해산하지 않았다. 세군의 자손을 모두 사로잡아 죽였다. 무술에 박국의 향강상왕이 죽었다.”라고 하였다.>.45)

B-3. 이 해에 고구려에 대란이 있었다. 무릇 싸우다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였다<『백제본기』에는 “고구려에서 정월 병오에 중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이가 8살이었다. 박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43) 이호영,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문제」, 『사학지』 18, 1984 ; 앞의 책, 1997 :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 51, 2015.

44)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45)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6년 시세.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중부인이 세자를 낳았는데, 그의 외할아버지가 추군이였다. 소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외할아버지는 세군이였다. 박왕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세군과 추군이 각각 부인이 낳은 아들을 즉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군 측에서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였다.”라고 하였다.>.⁴⁶⁾

B-4. 가을 9월에 돌궐이 신성으로 와서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백암성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왕이 장군 고희를 보내 군사 1만 명으로 막아 싸워서 이기고,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⁴⁷⁾

위의 기록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하기 이전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고구려는 대내적으로 왕위계승 과정에서 추군과 세군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였고,⁴⁸⁾ 대외적으로는 돌궐 등의 침입으로⁴⁹⁾ 정국이 혼란하였다. 그리고 551년에는 제라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백제와 신라의 침입을 받고 한강유역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라동맹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삼국시대의 동맹 중에서 여라동맹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라와 동맹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여라동맹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이해하

4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7년 시세.

47)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7년 가을 9월.

48) 이흥직, 「일본서기 소재 고구려 관계 기사고(1)」, 『동방학지』 1, 1954 ;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157~162쪽 ; 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397~401쪽. 김진한, 「양원왕대 고구려의 정국동향과 대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 ;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49) 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401~429쪽.

는 경향이 강하다.⁵⁰⁾ 따라서 여라동맹의 성립 배경은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라동맹을 제안하고 주도한 것은 신라로 이해하거나 고구려로 이해하는 견해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⁵¹⁾ 당시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하고 10군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던 반면에 고구려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와의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고구려에게는 유리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흥왕은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²⁾ 따라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고구려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⁵³⁾

여라동맹의 성립 시기는 대체로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이후부터 관산성 전투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552년 5월 이전에는 성립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⁵⁴⁾ 따라서 여라동맹은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직후에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라동맹은 성립 시기에만 주목하고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고구려와 신라는 각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50) 최근에 여라동맹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새롭게 제기되었다(선석열, 앞의 논문, 2013 ; 강민식, 「552년 백제의 한강유역 포기(棄)와 신라고구려의 밀약설」, 『선사와 고대』 40, 2014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 임평섭, 「신라 진흥왕대 주의 폐치와 순수-진흥왕순수비를 통해 살펴본 순수 전략적 의미」, 『신라문화』 48, 2016).

51)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3쪽 주 37) 및 주 38) 참조.

52)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

53)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3쪽.

54)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1~112쪽 주 34) 참조.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⁵⁵⁾ 따라서 여라동맹은 단기간 동안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양국의 관계는 603년에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을 침입하기⁵⁶⁾ 이전까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라동맹의 목적은 고구려와 신라가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고구려는 서북방지역의 안정이, 신라는 한강유역의 장악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는 서북방지역의 복제와 돌궐과의 관계에 좀 더 치중하기 위해서였고, 신라는 백제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목적은 여라동맹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던 것 같다. 즉 고구려는 대외적으로 서북방지역의 안정에 집중하였지만, 그렇다고 남방지역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전의 잠재적인 위협세력에서 이제는 현실의 절대적인 위협세력으로 대두한 백제와 신라의 협력관계를 무력화하여 제라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548년부터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⁵⁸⁾ 한편 신라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아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야지역까지 진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그 결과 고구려와 신라는 각각

55) 이영재는 553년 10월의 백합야세 전투 이전에 고구려와 신라 간의 협상이 마무리되어 이전의 관계로 정리되었다고 하였다(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7쪽 주 57) 및 101~102쪽).

5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5년 가을 8월 ;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4년.

57)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49~50쪽 ;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104쪽 ; 양기석,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영향」, 『중원문화논총』 12, 2009, 24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9~90쪽. 어쩌면 이것이 고구려가 걸으려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원하였던 실질적인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58) 김진한, 앞의 논문, 2007 ; 앞의 책, 2020.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여라동맹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⁰⁾

이와 같이 여라동맹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면 그 성격은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한강유역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침동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는 동맹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구원하는 군사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553년에 백합야 전투와⁶¹⁾ 554년에 웅천성 전투⁶²⁾ 등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신라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제려동맹의 성립 과정

642년에 백제의 의자왕은 왕족과 대신 40여 명을 섬으로 귀양을 보내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후 신라 서쪽의 40여 성을 빼앗았고,⁶³⁾ 서쪽 변경지역의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⁶⁴⁾ 신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같은 해에 고구려에서는 연개

59)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7쪽. 한편 신라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었지만(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9~90쪽), 이러한 견해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신라가 빼앗은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고구려가 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둘째, 고구려가 인정해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셋째, 이전에도 삼국이 상대방의 영토를 빼앗아서 차지하면 상호 인정해 주고 인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영토를 상실한 쪽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협상의 주도권은 언제나 승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60)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6쪽.

61)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 겨울 10월.

62)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10년 겨울 ;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위덕왕 원년 겨울 10월.

6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가을 7월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년 가을 7월.

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⁶⁵⁾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C-1.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당과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 태종에게 위급함을 알렸다.⁶⁶⁾
- C-2. 가을 9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저희 나라를 여러 차례에 걸쳐 침범하여 수십 개의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군대를 연합하여 기필코 그것을 빼앗고자 장차 이번 9월에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⁶⁷⁾
- C-3. 가을 9월에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백제가 우리나라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다시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입조하는 길을 끊으려 합니다.”라 말하고, 군사를 보내 구원해 주기를 청하였다.⁶⁸⁾
- C-4. 겨울 11월에 왕이 고구려와 화친하고 신라의 당항성을 빼앗아 (당에) 조공하는 길을 막고자 하였다. 마침내 군사를 보내어 공격하니, 신라왕 덕만이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군사를 철수하였다.⁶⁹⁾

6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8월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년 8월 ; 『삼국사기』 권47, 열전7, 죽죽.

65)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5년 겨울 10월 ; 『삼국사기』 권49, 열전9, 개소문.

6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8월.

6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2년 가을 9월.

68)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2년 가을 9월.

69)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3년 겨울 11월.

위의 기록은 백제와 고구려가 화친하였다는 내용이다. 백제와 고구려의 화친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에 대한 내용이 『삼국사기』에 수록된 각국의 본기 등 국내 사서뿐만 아니라 『구당서』 등의 중국 사서에도 수록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려동맹은 삼국 모두와 관련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⁷⁰⁾

제려동맹이 성립한 배경은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공통적으로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던 것 같다. 즉 백제 의자왕은 642년에 신라를 침입하여 서쪽의 40여 성을 비롯하여 서쪽 변경지역의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 강경책을 실시하였다. 고구려 역시 같은 해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였다.⁷¹⁾ 이와 같이 제려동맹은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실시하였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실지양단’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⁷²⁾ 대체로 642년에서 643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⁷³⁾ 따라서 제려동맹은 이 무렵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70) 제려동맹에 대한 연구성과는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18~19쪽 참조. 한편 박윤선은 『문관사림』 「당태종여백제의자왕서」를 인용하면서 백제는 고구려와 연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연화 즉 동맹을 부정하였다(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2007, 23쪽 주 60) 참조).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와 연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역으로 신라가 양국이 연화하여 공격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백제가 해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연화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백제의 해명은 사실이고 신라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71) 김덕원,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2016, 140~144쪽.

72) ‘실지양단’에 대한 연구성과는 박윤선, 앞의 논문, 2015, 71쪽 주 80) 참조.

73) 박윤선, 앞의 논문, 2007, 14쪽 주 33) 참조.

보인다.⁷⁴⁾ 백제는 642년에 신라 서쪽의 변경지역에 대한 공격을 추진하면서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⁷⁵⁾ 사전에 신라에 누설되면서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643년에 이전의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고구려에 제안하였고, 고구려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제려동맹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⁷⁶⁾ 그러나 645년에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과 이후에도 당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고구려는 여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마도 제려동맹은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간 동안 운영되며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⁷⁾ 이후 양국의 관계는 655년에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지역을 침입하기 이전까지 상호 교류하였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제려동맹의 목적은 백제와 고구려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즉 백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74) 주보돈은 64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실제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81쪽 주 28) 참조, 박윤선은 655년 이후로(박윤선,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영관은 655년에 여제동맹을 실현했다고 하였다(김영관, 「국제정세의 변화」,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92~93쪽). 한편 백제와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화친하였던 시기가 없었다거나(박윤선, 앞의 논문, 2007, 22쪽) 한 번도 사신을 교환한 적이 없다는(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8쪽 주 21) 참조) 견해도 있다.

75)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는 기록이 642년에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백제는 의자왕이 즉위한 이후에 고구려에 동맹을 제안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는 대내적으로는 연개소문과의 갈등, 대외적으로는 당과의 문제가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백제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76)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19~20쪽. 한편 642~643년 무렵에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정변을 전후하여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였고, 당의 침략도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를 공격하거나 백제와의 연합은 어렵다고 이해하기도 한다(박윤선, 앞의 논문, 2007, 17~19쪽 ; 방용철, 「여제 연합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2016, 298쪽).

77)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24쪽.

신라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은 당이 신라를 도와서 삼국의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당이 개입한다면 양국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려동맹의 내용은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는데 고구려의 군사적인 협조가 필요하였고, 고구려는 남쪽 국경지역에서 백제가 신라를 군사적으로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였던 것 같다.⁷⁸⁾ 그 결과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함으로써 신라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고구려 역시 백제가 남쪽 국경지역에서 신라를 견제해 줌으로써 645년에 당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다.⁷⁹⁾ 따라서 양국은 각각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양국의 성과는 신라의 대응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양국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당외교를 전개하였고, 마침내 당이 삼국의 문제에 개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양국이 가장 우려하였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제려동맹은 양국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양국이 신라에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려동맹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면 그 성격은 백제와 고구려가 상호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는 共攻同盟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려동맹은 신라와 당 사이에 나당동맹이 성립할 수 있게 하였던 원인을 제공하였다.

78)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20쪽 및 24쪽.

79) 고구려는 이미 여려동맹을 통해서 서북방지역의 안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전략적인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3. 동맹의 영향

가. 제라동맹의 영향

계제라동맹의 성립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백제와 신라의 정국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었다. 제라동맹 성립 이후에 최초의 군사적 충돌은 고구려와 신라의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D-1. 가을 7월에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실직의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하슬라성 성주 삼직이 군사를 내어 불의에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고구려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은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 장수를 죽이니, 이는 어찌 의리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왕이 겸손한 말로 사과하자 물러갔다.⁸⁰⁾
- D-2. 신라 사람들이 습격해서 변경의 장수를 죽였다. 왕이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고 하였지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으므로 그만두었다.⁸¹⁾

위의 기록은 제라동맹 성립 이후 최초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8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4년 가을 7월.

81)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38년.

내용이다. 450년(눌지마립간 34)에 실직의 들에서 사냥하는 고구려의 변장을 하슬라 성주 삼직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신라의 서쪽 변경지역을 침입하였지만, 눌지마립간이 사과하자 고구려군이 철수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고구려가 실직을 포함하여 동해안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 변장이 사냥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군사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⁸²⁾ 고구려의 장수왕이 화를 냈던 이유는 신라가 고구려 변장을 죽인 것보다는 고구려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하면 장수왕은 군사훈련 중인 고구려의 변장을 살해한 것을 신라가 기습공격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이후 신라의 눌지왕이 신속하게 사과함으로써 더 이상의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제라동맹이 성립한 이후에 고구려와 최초의 군사적인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구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지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즉 거리상 실직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백제가 구원군을 파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리적인 문제는 이후에도 양국이 구원군을 파견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⁸³⁾ 제라동맹의 현실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450년 이후에 ‘고구려 간섭기’를 벗어나기 위한 신라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고구려도 강력하게 대

82) 고구려에서는 사냥이 군사훈련의 기능을 하였다(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27~34쪽 참조).

83) 정재운은 489년의 전투와 같이 백제의 구원이 힘든 곳은 고구려가 조장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였다(정재운, 앞의 논문, 2001, 77쪽).

응하면서 양국의 충돌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호명성 등 7성을 빼앗고, 또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 그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뒤쫓아 니하의 서쪽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1천여 명을 목 베었다.⁸⁴⁾

위의 기록은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입한 내용이다. 481년에 고구려는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입하여 미질부까지 진군하였다.⁸⁵⁾ 아마도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을 함락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⁶⁾ 왜냐하면 수도를 함락시키는 것은 상대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⁸⁷⁾ 신라는 고구려가 경북 내륙이 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미질부까지 침입하자 백제의 경우와 같이 수도를 함락시키려는 의도를 간파하였던 것 같다. 신라는 불과 6년 전인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킬 때 구원군을 파견하여 당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며 고구려의 위력을 실감하였다.⁸⁸⁾ 그리하여 비록 기록에는 없

8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 3월.

85) 당시 고구려가 신라의 영토 깊숙한 지역까지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광개토태왕대인 영락 10년 경자년(400)에 보병과 기병 5만 명으로 신라를 구원하였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86)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 2002, 145쪽 ; 유우창, 앞의 논문, 2006, 207쪽.

87) 고구려가 수도를 함락시키려고 한 것은 아마도 246년(동천왕 20)에 위의 유주사사 관구검과 342년(고국원왕 12)에 전연의 모용황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8) 김창석, 앞의 논문, 2018, 12~13쪽.

지만,⁸⁹⁾ 위급한 상황을 백제에게 알리고 구원군을 요청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481년 고구려의 신라 침입 이후에 삼국은 모두 제라동맹의 위력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와 신라는 제라동맹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고구려는 강력한 적대 세력이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한다.⁹⁰⁾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이 이후 삼국의 대외관계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라동맹은 삼국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정비를 실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으며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551년에 신라와 함께 한강유역을 회복하였지만, 553년에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다. 그리고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문자명왕대 이후에 귀족세력들의 분열과 중국 남북조와의 관계 등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체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나. 여라동맹의 영향

여라동맹의 성립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상황에서 삼국의 정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신라가 한강유역을

89) 삼근왕의 죽음은 비정상적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성왕의 즉위도 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740쪽 주 31) 참조). 동성왕이 즉위한 이후 초기 3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90) 김병주는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제라동맹을 강대한 세력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병주, 앞의 논문, 1984, 40~41쪽). 그러나 이것은 정기적인 사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라동맹에 대한 기록은 더욱 그러하여 이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다.⁹¹⁾ 따라서 여라동맹의 영향은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신라와 동맹을 제안하였던 고구려는 당시 서북방지역의 북제와 돌궐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세력에게 좀 더 치중할 수 있었고, 또한 현실의 위협 세력인 제라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대외적인 문제들이 다소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대내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동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신라는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은 후에 이곳에 신주를 설치하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낙동강유역의 가야지역까지 진출하였고, 562년에는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제 신라는 명실상부하게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백제는 애써 찾은 한강유역을 다시 신라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까지 전사하면서 다시 세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제라동맹이 결렬됨으로써 지금까지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던 신라와는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도 고구려와 신라의 견제를 받으면서 열세를 보이게 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신라가 취한 행동에 대한 문제이다. 즉 당시 신라는 백제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새롭게 고구려와도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라는 제라동맹 기간

91)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라동맹을 흔히 '밀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중에 여라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 일종의 외교적 모험을 선택한 것으로, 이른바 ‘줄타기 외교’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신라가 제라동맹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신라가 백제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백제의 뒤를 이어 동맹의 상대로 신라를 선택함으로써 당시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당시의 상황은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제라동맹을 바탕으로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직후에 고구려가 신라에 동맹을 제안함으로써 여라동맹이 성립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553년에 신라가 백제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았고, 이곳에 신주를 설치함으로써 제라동맹이 실질적으로 결렬되었다. 이것은 신라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독단적인 결정이었지만, 백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백제의 성왕이 곧바로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을 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라동맹은 실질적으로는 결렬되었지만,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554년의 관산성 전투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산성 전투를 통하여 제라동맹이 종료되었듯이 고구려와 신라도 각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여라동맹 역시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으로 이해된다. 관산성 전투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에 따른 영향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라동맹은 삼국 사이에 형성된 정세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여라동맹을 제안하였던 고구려는 제라동맹을 와해시킴으로써 서북방 지역에 좀 더 집중하며 중국을 재통일한 수와 대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맹의 한 축인 신라는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을 장악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면서 다시 세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여라동맹은 삼국 사이에 형성된 세력 균형의 추를 신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다. 제려동맹의 영향

제려동맹의 성립은 신라가 백제의 침입을 받는 상황에서 삼국의 정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642년에 백제는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실시하여 서쪽 변경지역의 요충지인 대야성을 비롯하여 40여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제려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침입함으로써 당과 통하는 조공로를 끊으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자 백제는 군사를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643년에 당항성 전투 이후에도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더욱이 645년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가 지원하는 틈을 이용하여 신라 서쪽의 7성을 빼앗았다.⁹²⁾ 이것은 백제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려동맹과 관련되어 백제가 고구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라를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⁹³⁾ 이후에도 백제의 침입은 65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백제는 645년부터 당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고, 648년에는 아예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⁹⁴⁾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백제가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목

9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여름 5월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5년.

93)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23~24쪽.

94) 김수태, 앞의 논문, 1991, 167~168쪽.

되는 것은 우연인지는 몰라도 백제가 당과의 외교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때 공교롭게도 김춘추가 대당외교를 실시하면서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⁹⁵⁾ 따라서 백제는 일시적으로 신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둔 성과는 미비하였다. 그리고 당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오히려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제의 제려동맹은 실패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려동맹의 또 다른 당사자인 고구려는 643년 당항성 전투 이후에도 연개소문의 대신라 강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하여 644년에 신라를 다시 침입하였고, 당의 상리현장이 신라를 침입하지 말라는 중재도 거부하였다.⁹⁶⁾ 이러한 연개소문의 정책은 당이 삼국의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제려동맹의 공통적인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즉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당으로 통하는 조공로를 막는다고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당 태종이 삼국의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645년에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로 이어졌지만,⁹⁷⁾ 백제가 남쪽 국경지역에서 신라를 군사적으로 견제해 줌으로써 당의 침입에 전념하며 이를 물리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제려동맹은 일단 성공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5)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30~32쪽. 김수태는 백제의 외교정책이 전환되면서 신라가 집중적으로 외교를 벌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백제와 당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648년이 삼국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김수태, 앞의 논문, 1991, 168쪽). 그러나 김춘추의 대당외교를 통한 나당동맹의 성립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신라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96)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97) 이기동은 이른바 賁進의 차단은 당의 책봉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당이 고구려에 대해 강압책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이기동, 「수당의 제국주의와 신라 외교의 묘체 -고구려는 왜 멸망했는가?-」, 『신라문화』 24, 2004, 17쪽).

그러나 고구려의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비록 당 태종의 침입을 물리쳤지만, 고구려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647년부터 당 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침입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모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신라보다 당과의 관계에 더욱 전념하게 되면서 제려동맹도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백제가 멸망하였고, 고구려 역시 연개소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면서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하였다. 제려동맹의 당사자인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전개하였지만, 오히려 나당연합군에게 모두 멸망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려동맹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써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는 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대당외교에 전념하였다. 이것은 결국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하는 결과로 나타났고,⁹⁸⁾ 그 결과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삼국시대 동맹의 내용

| 순번 | 항목 | 명 칭 | | | | | | 비 고 |
|----|----|-------------------|---|---------------------|---|----------------|--|-----|
| | | 제라동맹 | | 여라동맹 | | 제려동맹 | | |
| 1 | 백 |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위기 맞음 | 고 | 서북방 지역의 불안과 한강유역 상실 | 백 |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 | | |
| | 신 | 고구려의 간섭을 받음 | 신 | 한강 상류지역 장악 | 고 |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 | | |

9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이상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신라의 삼국통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 주보돈,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2017 ;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 | | | | | | | | |
|---|----|-------|------------------------|--------|------------------------|--------|-----------------|-----------------------------------|
| 2 | 제안 | 백제→신라 | | 고구려→신라 | | 백제→고구려 | | |
| 3 | 성립 | 1차 | 433 | 551 | | 643 | | 제라동맹은 1차와 2차로 구분 |
| | | 2차 | 539 | | | | | |
| 4 | 목적 | 1차 | 고구려의 침입을 공동 방어 | 고 | 서북방 지역의 안정과 제라동맹 와해 | 백 |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 제라동맹은 당이 개입 못하게 하는 것이 공통 목적 |
| | | 2차 | 고구려에 대한 공동 공격 | 신 | 한강유역 장악과 가야지역 진출 | 고 | 당의 침입에 대비 | |
| 5 | 종료 | 1차 | 497 | 554 | | 645 | | |
| | | 2차 | 554 | | | | | |
| 6 | 성격 | 1차 | 共守동맹 | 불가침동맹 | | 共攻동맹 | | |
| | | 2차 | 共攻동맹 | | | | | |
| 7 | 결과 | 1차 | 백 | 고 | 성공 | 백 | 실패 | 제라동맹은 제라의 멸망으로 결과 적으로 실패 |
| | | | 신 | | | | | |
| | | 2차 | 백 | 신 | 성공 | 고 | 성공 | |
| | | | 신 | | | | | |
| 8 | 영향 | 백 | 한성의 함락과 성왕의 죽음으로 세력 약화 | 고 | 수와 대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백 | 나당연합군에게 멸망 | |
| | | 신 |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발전의 기반 마련 | 신 | 한강유역을 장악하여 삼국통일의 기반 마련 | 고 | 나당연합군에게 멸망 | |
| | | 고 | 대내외적인 문제로 정체 | 백 |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전사 | 신 | 나당동맹으로 삼국통일을 이룸 | |

4. 맺음말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성립하였다. 그리고 5세기대의 제라동맹, 6세기대의 여라동맹, 7세기대의 제려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삼국시대에 각국은 동맹마다 상호 목적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르게 규정된다. 또한 동맹의 과정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등의 결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그 영향도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결과적으로 삼국의 정세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삼국시대의 동맹의 특징은 삼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동맹은 한번도 없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각각 다른 두 국가들이 상호 친선관계를 맺으며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한 국가만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삼국이 각각 2회씩 참여하고 있다. 즉 백제는 제안 2회, 고구려는 제안 1회와 수용 1회, 신라는 수용 2회 등이다. 따라서 2회의 제안을 하였던 백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맹을 주도하였고, 신라는 2회의 수용을 하였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동맹 상대로서의 중요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삼국의 정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백제는 동맹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모두 실패하였고, 동맹을 주도하고 수용하였던 고구려는 모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을 수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모두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와 당이 주도한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라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에 삼국이 상호 친선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신라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면서 결국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저서

-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서울: 지식산업사, 2012
<http://uci.or.kr//G901:A-0006420490@N2M>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서울: 사계절, 1999
<http://uci.or.kr//G701:B-00060576971@N2M>
- 양기석, 『백제의 국제관계』, 서울: 서경문화사, 2013
<http://uci.or.kr//G701:B-00115263041@N2M>
-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려-제 패망원인연구』, 서울: 서경문화사, 1997
- 주보돈,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서울: 지식산업사, 2018
<http://uci.or.kr//G703:RA101-01500601@N2M>

2. 논문

- 강민식, “5세기~6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관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http://uci.or.kr//G701:B-00102386215@N2M>
- 강종훈, “나제동맹의 결성 배경과 고구려의 대외관계”, 『대구사학』 105(2011):1-38
<http://uci.or.kr//G701:C-00056514602@N2M>
- 공석구, “‘나제동맹’을 다시 검토한다”, 『백제학보』 30(2019):5-27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0678490@N2M>
-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2021):7-46
<http://doi.org/10.22827/seoul.2021..109.001>
-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군사』 121(2021)

:101-142

<http://uci.or.kr//G901:A-0010570790@N2M>

김병남, “5세기 말 백제와 신라의 협력 과정 재검토”, 『역사와 경계』
111(2019):29-61

<http://uci.or.kr//I410-ECN-0101-2019-911-000863906@N2M>

김병주, “나제동맹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46(1984):25-47

<http://uci.or.kr//I410-ECN-0100-2009-911-018287731@N2M>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1991):149-176

<http://uci.or.kr//G901:A-0000884042@N2M>

김창석, “6세기 전반 신라의 대외관계와 백제관”, 『사학지』 57(2018): 10-11
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1981):45-107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2006):7-64

<http://uci.or.kr//I410-ECN-0101-2014-910-002361468@N2M>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1976):9-57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8386411@N2>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2007):3-41

<http://uci.or.kr//G704-000940.2007..27.004@N2M>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
13(2015):47-91

<http://uci.or.kr//G704-SER000003883.2015..13.002@N2M>

방용철, “여-제 연합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2016):277-314
선봉조, “7세기 체려동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7)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2013):81-119

<http://uci.or.kr//G701:A-00106608438@N2M>

- 양기석, “5~6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관계”,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5(1994)75-98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9227039@N2M>
- 위가야, “‘나제동맹’의 공수 전략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4(2020):
49-86
<http://uci.or.kr//G701:D-00117909427@N2M>
- 유우창, “5세기대 ‘나제동맹’의 성립과 가라국”, 『부대사학』 30(2006):
187-212
<http://uci.or.kr//G704+INS000006830-ART001335574@N2M>
- 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2009):115-153
<http://uci.or.kr//G704-001396.2009..72.008@N2M>
- 이영재, “여라밀약설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0(2015):81-116
- 이호영, “려·제연화설의 검토”, 『경희사학』 9·10(1982):17-34
- 정재윤, “웅진시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나제동맹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호서고고학』 4·5(2001):67-86
<http://uci.or.kr//G704-001853.2001..4집.001@N2M>
- 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1996): 87-138
<http://uci.or.kr//G901:A-0002959528@N2M>
- 정운용, “『삼국사기』 교빙 기사를 통해 본 나제동맹 시기의 재검토”,
『백제연구』 44(2006):189-210
<http://uci.or.kr//G704-000844.2006..44.005@N2M>
- 주보돈, “웅진도읍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2003):181-238
- 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2006):65-115
<http://uci.or.kr//I410-ECN-0101-2014-910-002361473@N2M>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Alliance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its impacts

Kim, Deok-won

The allianc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were closely related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each country in the process of dominating the territory of Han River basin after the 5th century. They include the Alliance of Baekje and Silla dynasty in the 5th century, the Goguryeo and Silla Alliance in the 6th century, and the Baekje and Goguryeo Alliance in the 7th century. In addition, not only did each alliance have different purposes and natures, but the consequences and impacts were also differ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s of the Three Kingdoms era were that there was never an alliance in which the all three countries participated jointly, and two different nations formed relationship against a particular country. And the alliances were not just only one country participated unilaterally but the each three kingdom participated twice during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And Baekje and Goguryeo were collapsed by the allied forces led by Silla and Tang dynasty. Silla actually achieved the greatest profit in the process of alliance during that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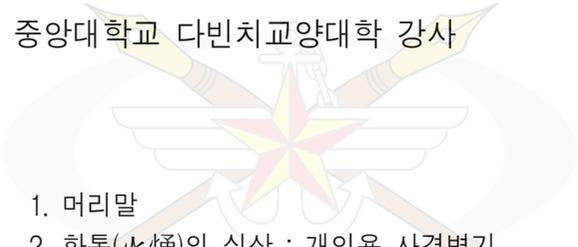
The allianc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fluenced many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of the Three Kingdoms after the 5th century. It also gave Silla a meaningful results and eventually Silla was able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Keywords : Han River basin, Baekje and Silla Alliance, Goguryeo and Silla Alliance, Baekje and Goguryeo Allianc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41-79
<https://doi.org/10.29212/mh.2023..126.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운용사례를 통해 본 고려 말 화통(火筒)과 화포(火砲)의 실상

오기승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강사

- 
- 목 차
1. 머리말
 2. 화통(火筒)의 실상 : 개인용 사격병기
 3. 고려 말 화포(火砲)의 실상 : 선박공격용 화염병기
 4. 결론

초 록 14세기 말, 고려는 최무선의 연구를 통해 화약제조 및 화약병기 전반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왜구와의 전투에 활용하였다. 당시 해전에서의 화약병기는 주로 화염에 의한 소각을 통해 적선을 파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려 말의 화약병기 체계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연구가 미진하여, 그 '소각'의 주체가 된 화약병기의 실체가 다소 모호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국내 사료를 기반으로 중국 측 기록이나 병서 등을 참조하여 그 실상과 운용 형태를 추적하였으며,

특히 최무선이 개발한 것으로 줄기에 언급된 화통(火筒)과 화포(火砲)에 주목하였다.

먼저 화통에 대해서는 이를 사격용 발사기구로 보는 견해와 투척병기로 보고 이것이 적선 소각의 주체였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러 사료를 검토하여 이것이 금속제 발사기구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무선 줄기에 기록된 ‘화포’가 적선 소각의 주체였을 것이라 보고, 중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이것이 화염방사식 화약병기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는 거철-구철을 활용한 전술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적선을 소각할 수 있었으며, 진포와 관음포 등의 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왜구 제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화염방사식 화약병기는 높은 화약 소모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태된 것으로 보이며, 세종대 이후의 조선은 금속제 유통식 화기 위주로 화약병기 체제를 재편해 나갔다. 본 연구는 사료 분석 및 재검토를 통해 고려 말 화통과 화포의 실체를 새로이 규명해 보고 고려 말 화약병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화약, 화약병기, 화통, 화포, 최무선, 고려, 왜구

(원고투고일 : 2022. 7. 10, 심사수정일 : 2023. 2. 24, 게재확정일 : 2023. 3. 2.)

1. 머리말

화약병기는 고려 시대에 몽골제국을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전래되었다. 이후 고려 말 공민왕(恭愍王)은 재위 전기와 말기 두 번에 걸쳐 본격적인 화기 도입을 시도하였다. 재위 전기에는 서북면을 비롯한 북방에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재위 말기에는 왜구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홍국 명(明)을 통해 화약병기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말기에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교류를 통해 화약병기를 도입하려던 시도는 명 홍무제(洪武帝)가 사실상 거절의 통지를 보내고, 그 직후 공민왕이 암살당하면서 미완의 시도로 끝났다.¹⁾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고려는 자국산 화약병기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잡을 수 있었다.²⁾

-
- 1) 공민왕 23년(1374) 6월 도착한 명나라 증서성의 자문(咨文) 및 홍무제 조서의 내용을 오해하여 명이 고려의 요청을 받아들여 염초와 유향 등을 보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시 명 증서성의 답신은 분명히 화약 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이었으며, 홍무제의 발언 역시 고려가 역으로 대량의 염초와 유향을 명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오기승, 「여말선초 화약 및 관련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체계적 재구성」, 『역사와현실』123, 한국역사연구회, 2022, 72-73쪽)
 - 2) 여말선초 화약과 화약병기에 대한 해방 이후 국내의 연구로는 허선도의 연구를 선구적인 것으로 놓아볼 수 있다.(허선도, 1964a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역사학보』24, 역사학회 : 1964b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中)」 『역사학보』25, 역사학회 : 1965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下)」 『역사학보』26, 역사학회) 이후의 연구 및 저작들 중 화약병기에 주목한 것들로는 시계열 순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어볼 수 있다. 채연석, 『韓國初期火器研究』, 일지사, 1981 ; 정하명, 「한국의 화기 발달 과정」, 『군사』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6 ; 국방군사연구소 편, 『韓國武器發達史』, 국방군사연구소, 1994 ; 허선도,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강성문, 「여말선초 기술변화와 외교정책」, 『한국전통과학

이는 널리 알려진 대로, 최무선(崔茂宣)의 성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는 ‘왜구를 제어함에는 화약(火藥) 만한 것이 없다’³⁾라는 목적의식 아래 독자연구를 지속하였으며, 입원(入元) 활동 및 관련 기술자 회유 등을 통해 화약 및 화약병기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당시 그가 습득한 기술은 화약병기라는 무기체계 전반에 걸치는 것으로서, 화약 제조의 핵심 기법인 염초 추출법 및 화약 그 자체의 제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화약병기의 제작 및 운용법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었다.⁴⁾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火桶都監)이 설치되어 자국산 화약병기가 생산 및 배치되면서 고려 수군의 전투역량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진포(鎭浦)와 관음포(觀音浦)등지에서 승전을 거두면서 왜구를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방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의 화약기술은 최무선의 아들인 최해산(崔海山) 등을 통해 조선으로 계승되었고, 세종 때에는 그간의 발전을 집대성하고 개량을 더하여 완전히 새로운 화약병기 체계를 재편해 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대 편찬된 『銃筒膽錄』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책은 현전하지 않는다. 대신 성종대에 완성된 『國朝五禮儀』등에 관련 도면과 제원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으며, 『朝鮮王朝實錄』등의 사료에서도 실제 운용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 당대 화약병기의 실상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술학회지, 2-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5; 채연석, 「火藥兵器的 위력」, 『한국사 시민강좌』 16, 일조각, 1995; 이강칠, 『한국의 화포』, 동재, 2004; 민병단, 『한국의 화약역사』, 아이위크북, 2009.

3) 『太祖實錄』 4年(1395) 4月 壬午, “制倭寇莫若火藥”

4) 오기승, 앞의 논문, 2022, 81-87쪽.

이와 같이, 조선 전기의 화약병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자료들을 통해 그 실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으나, 고려 말의 화약병기와 관련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훨씬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일단 최무선 시기의 화약병기 중 개량이나 계승을 통해 세종대 및 그 이후까지 이어진 것들은 조선시대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실상을 추적해볼 수 있으나, 도태되어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더욱 부족하여 추적이 한층 더 곤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또한 세종대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완성하면서 기존 체계의 총통을 녹여 신규 체계의 총통으로 재구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실물 유물이 사실상 거의 남지 않게 된 것 역시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 당시의 화약병기 운용과 관련된 기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허선도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전에서 화살이나 탄환 등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주로 화염에 의한 소각을 통해서 적선을 격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⁵⁾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과연 그 ‘소각’의 주체가 된 화약병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남아있는 국내 사료를 기반으로 하되 중국 측의 기록이나 병서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그 실상과 운용 형태를 분석하려 하며, 그 중 특히 『太祖實錄』 최무선 졸기(卒記)에 언급된 화통(火筒)⁶⁾과 화포(火砲)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먼저 화통(火筒)의 경우 최무선의 화약병기에 대한 20세기의

5) 허선도, 앞의 책, 1994, 21-22쪽.

6) 각종 사료에서 ‘화통’에 대해서는 火筒, 火筒, 火桶, 火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한문 표기가 존재한다. 이들 표기는 때로 같은 것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것을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한 관계로 본고에서는 내용 상 지칭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지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한문 표기를 부기하도록 한다.

연구에서는 이것을 발사기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며,⁷⁾ 여전히 이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반면 21세기에 들어서 화통을 발사기구, 즉 사격용 화기가 아니라 함대함의 수상 근접전용 투척병기로 보는 견해가 나타난 바 있다.⁸⁾ 이러한 견해는 『紀效新書』중 특정 판본의 내용에 그 주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효신서』에 조선에서 독자적 내용을 추가하여 조선 현종 5년(1664)에 간행한 증간본(이하 『기효신서』조선본)⁹⁾의 주사편(舟師編)에는 적선에 투척하는 목적의 대형 화약병기로 화통(火桶)이 등장한다.¹⁰⁾ 해당 견해에서는 『기효신서』조선본에 기록된 이 화통을 곧 최무선이 개발한 화통(火桶)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여말선초 당시의 화통 역시 투척하여 적선을 불태워 파괴하는 병기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¹¹⁾

7) 채연석, 앞의 책, 1981, 81-82쪽; 허선도, 앞의 책, 1994, 21쪽

8)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거나 지지하는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이러한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한 임용한,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군사』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와 더불어 신성재, 「고려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13,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제장명, 「조선 초기 거북선의 출현 배경과 주요 형태 및 기능」, 『이순신연구논총』3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1. 등이 있다.

9) 『紀效新書』에는 다수의 판본이 존재하는데 중국의 『四庫全書』에 수록된 판본과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증간하여 간행했던 소위 ‘朝鮮本’은 별개의 판본이다. 『四庫全書』에 수록된 18권 판본은 嘉靖 39년(1560)에 14권 체제로 간행되었던 초간본을 대폭 수정 보강하여 1565년에 간행한 것으로 ‘嘉靖 45년본’으로 칭하며, 王世貞이 가지고 있던 필사본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왕세정본’이라고도 불린다. 한편 현전하는 조선본 기효신서는 萬曆 16년(1588) 14권으로 간행된 ‘李承勳本’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독자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別集 4권을 더해 18권으로 구성하여 조선 현종 5년(1664)에 새로 간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고전서 수록본(이하 『기효신서』 사고전서본)과 조선본의 권수는 18권으로 같아 얼핏 혼동하기 쉬우나, 실제로 그 구성 및 내용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국방군사연구소 영인, 『紀效新書』上, 국방군사연구소, 1998, 1-5쪽; 노영구, 『朝鮮 增刊本 《紀效新書》의 체제와 내용」, 『군사』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107-108쪽; 123-125쪽)

10) 『紀效新書』朝鮮本 卷12 舟師編 火桶製(국방군사연구소 영인, 『紀效新書』下, 국방군사연구소, 1998, 139-140쪽).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기효신서』 조선본 원본의 내용은 모두 국방군사연구소 영인본(1998)의 것을 따른다.

그러나 『기효신서』의 사고전서본과 같은 다른 판본이나 『조선왕조실록』등의 사료¹²⁾로 미루어 보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여말선초 시기 운용된 화통(火筒)의 실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사료를 바탕으로 최무선이 개발한 화통이 목제 투척병기가 아니라 사격을 위한 금속제 발사기구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 역시 최무선 즐기에 언급된 ‘화포(火砲)’에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인 정체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사료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³⁾ 이에 3장에서는 사료에서 나타나는 고려말 해전에서의 화기 운용 상황을 살피고 여기에 중국에서의 화약병기 발전 흐름에 대한 고찰을 더하여, 최무선 즐기의 화약병기 목록에서 언급된 ‘화포’가 실제로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부족하나마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고찰 과정을 통해 고려 말 화약병기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 임용한, 앞의 글, 294-296쪽, 2005.

12) 앞서 인용한 노영구의 연구에서는 왕세정본을 곧 사고전서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왕세정의 서문이 달린 18권본은 이후에도 여러 번 중간본이 나왔고, 일부 14권본의 중간본에도 왕세정의 서문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 어느 판본이 왕세정이 서문을 붙였던 것인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박귀순, 「중국(명)한국(조선) 일본 『기효신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17, 한국체육사학회, 2006, 63쪽). 또한 임진왜란 시기 이래로 조선에는 본서의 18권본과 14권본이 전부 도입된 바 있는데, 그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해볼 수 있다. 최복규, 「조선에 도입된 『기효신서』의 판본」, 『한국체육사학회지』50-5, 한국체육학회, 2011;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의 『기효신서』 도입과 수용」, 『한국사학보』76, 고려사학회, 2019.

13) 이에 대해서는 발사기구로 분류하되 火砲, 銃筒, 火筒을 구별되지 않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채연석, 앞의 책, 1981, 81-82쪽), 한편 허선도는 기록 상 火砲와 火筒이 다른 것과 동시에 병렬되어 나오고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지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화포나 화통 각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허선도, 앞의 책, 1994, 21쪽)

2. 화통(火筒)의 실상 : 개인용 사격병기

화통(火筒)을 포함하여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통해 처음으로 개발했던 화약병기 및 관련 장비의 종류를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 나열하고 있는 사료는 『太祖實錄』에 인용되어 있는 최무선의 줄기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그 기구로는 대장군포(大將軍砲)·이장군포(二將軍砲)·삼장군포(三將軍砲)·육화석포(六花石砲)·화포(火砲)·신포(信砲)·화통(火筒)·화전(火箭)·철翎전(鐵翎箭)·피翎전(皮翎箭)·질려포(蒺藜砲)·철탄자(鐵彈子)·천산오룡전(穿山五龍箭)·유화(流火)·주화(走火)·촉천화(觸天火) 등의 이름이 있었다.¹⁴⁾

이름이 명기된 것은 총 16종인데, 종류가 상당히 많을뿐더러 이후 시대에는 사용이나 계승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기구도 적지 않다. 이는 이것이 당시 고려 내에서 처음으로 화약병기를 자체 생산했던 사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체로 무기체계를 새로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여러 가지의 장비를 시험적으로 제작해 본 연후에, 실사용 실험이나 현장 운용을 거치면서 도태시킬 것과 계속 사용할 것을 구분하고 개량을 가하는 수순을 거치는 것은 전근대와 근현대를 막론하고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고려의 화약병

14) 『太祖實錄』 4年(1395) 4月 壬午, “其具有 大將軍 二將軍 三將軍 六花石砲 火砲 信砲 火筒 火箭 鐵翎箭 皮翎箭 蒺藜砲 鐵彈子 穿山五龍箭 流火 走火 觸天火等名”

기 도입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것이 사실상 처음으로 직접 생산하면서 체계를 수립해야 했던 무기체계인 이상 여러 종류의 시험적 생산품이 제작되고 그에 비례한 도태장비가 발생했을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위 사료에서는 병기와 장비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묶어 나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위의 병기들은 대략 사격을 위한 발사기구와 자체적인 추진능력이 없는 발사체 및 투척병기, 그리고 자체 추진능력을 갖춘 로켓병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이를 각각 종류별로 구분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¹⁵⁾

〈표 1〉 화통도감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던 화약병기 및 발사체

| 종 류 | 명 칭 |
|-------|------------------------------------|
| 발사기구 |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육화석포, 화포, 신포, 화통 |
| 발사체 | 화전, 철령전, 피령전, 철탄자 |
| 투척병기 | 질러포 |
| 로켓 병기 | 천산오룡전, 유화, 주화, 축천화 |

이상의 화약병기 및 발사체들 중 발사기구에 속하는 것들은 기술의 전래 계통 상 기본적으로 그 중 대부분이 원나라 때 처

15) 이와 같이 최무선의 개발한 화약병기를 군사적 용도에 따라 발사기구, 발사체, 투척병기, 로켓병기의 4개 종류로 나누어 보는 분류는 채연석의 『韓國初期火器研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용도에 따른 적절한 분류로서 타당성이 있으며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를 거의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관계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상기 서적에서는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병기를 ‘발사기, 발사물, 폭탄, 로케트형 화기 등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천산오룡전을 천산과 오룡전이라는 별개의 화약병기로 구분한 점을 제외하면 여타 분류는 본문의 <표 1>과 일치한다.(채연석, 앞의 책, 1981, 81쪽)

음 개발된 금속제 관형(管形) 화기, 즉 금속제 유통식(有筒式) 화기의 형태를 띤 것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¹⁶⁾

이들 중 먼저 언급되는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는 크기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기별로 각각 규격이 지정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전기에 『총통등록』의 간행과 함께 완성되는 세종대의 화기 개편을 거치면서,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거치용 화기 장군화통(將軍火筒)과 일총통(一銃筒) 및 뒤쪽에 자루를 꽂아 사람이 들고 운용할 수 있는 이총통(二銃筒), 삼총통(三銃筒) 이하 각종 총통으로 재규격화되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육화석포는 대개 입구에 넓은 완(碗)을 부착하여 큰 돌과 같은 대형 탄체를 발사하는 발사기구로 추정되는데, 『국조오례의』 체계에서는 총통완구(銃筒碗口)가 이를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신포는 말 그대로 신호를 위해 운용되는 장비로서, 『국조오례의』의 철신포(鐵信砲)와 사실상 동일한 역할의 화기로 추정된다. 수직으로 세워 별도의 발사체 없이 발사하며, 발사 시의 폭음을 이용하여 소리로 신호를 전달하는 장비이다.

이들 외에 남은 두 가지가 곧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화포와 화통(火燭)이다. 이 중 화포에 대한 고찰은 고려 말 최무선이 참전했던 해전의 전개양상에 대한 추론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이므로,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다음 부분인 3장에서 자세히 다루려 한다.

그러므로 일단은 먼저 화통(火燭)의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6) 국내에 처음으로 화약병기가 도입된 것은 원 제국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기승, 앞의 논문, 2022, 65-68쪽.), 최무선 역시 원 제국 출신의 기술자로부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세종대의 전면적 체제개편 이전까지, 여말선초의 국내 자체 제작 화약병기는 형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원 제국 측 기술체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통을 투척병기로 보는 견해에서는 『기효신서』 조선본 주사편에 기재된 화통(火桶)을 최무선 졸기의 화통(火桶)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고려 말 수군이 사용한 화통 역시 투척병기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조선 초기, 즉 대략 성종대까지의 기록에서 ‘화통’의 표기나 화약병기를 운용하는 ‘화통군’ 등의 표기에 ‘火桶’과 ‘火桶’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각 기록의 문맥 상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두 표기가 동일한 화약병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조선 후기에 간행된 서적인 『기효신서』 조선본에 기재된 ‘화통’과 여말선초 최무선 시기의 ‘화통’이 과연 완전히 같은 병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여말선초의 ‘火桶’(=火桶)이 어떠한 성격의 병기로 서술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련 기록들을 면밀하게 살핀 결과에 따르면, 『기효신서』 조선본에 기재된 대형 투척병기로서의 화통(火桶)과 여말선초에 운용된 화통(火桶)을 자연스럽게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견해에는 다소간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추가로 조선 전기 성종대까지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火箭, 火筒 등도 맥락상 동일한 화약병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성종대까지의 기록에서 사격용 개인 화기로서의 화통을 나타내는 표기는 火桶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火桶의 경우 ‘화통군(火桶軍)’을 火桶軍으로 표기한 사례가 태종실록에 1회(태종13년 3월 11일) 나타난다. 이외에 ‘火桶’ 표기가 소수 나타나는데, 기존에 화통군 별군(火桶軍別軍)이 있었음을 감안하면서 별군(別軍)이 화통(火桶)을 소지한다는 서술(세종3년 5월 14일)을 아울러 보면 문맥 상 조선 전기 기록에서의 火桶은 火桶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적게 나타나는 사례인 火箭 역시 화통군이 소속된 군기감의 별군이 운용했으며 화약을 쟁여 화살을 쏘는 무기였다는 기록(세종19년 8월 9일)으로 보아 같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火筒의 경우, 筒이 火箭의 箭과 통자라는 점, 그리고 『국조오례의』에 열거되는 총통(銃筒)들이 전부 火桶과 같은 계열의 금속제 유통식 화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조선 전기의 기록에서는 문맥 상 같은 무기로 판단된다.

일단 『기효신서』 조선본 12권 주사편(舟師編)의 화통제(火桶製) 항목을 살펴보면, 화통(火桶)은 1개당 화약 5근을 사용하며, 그 외피는 1말들이 나무통이고 사용 직전에 조립할 때 그 안에 넣는 완(碗)은 질그릇을 쓰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운용 방법에 대한 해설에서는 던지다[擲] 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이것이 투척무기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¹⁸⁾ 한편 같은 책의 수기해(授器解) 항목에 따르면, 그 숫자를 헤아릴 때 조립 전의 목제 외피와 완에 척(隻) 혹은 개(個)를 사용하고 있어 이것을 독립된 날개 단위로 세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반면, 최무선의 개발품에서 이어지는 조선 초기의 화통(火桶)과 관련해서는 일단 아래의 기록들을 참고해볼 수 있다.

B-1. 없어진 절들의 종을 거두어다가 화통(火桶)을 주조[鑄]하도록 명하였다.²⁰⁾

B-2. 병조에서 계문하기를, “전지에 의거하여 당소화통(唐小火桶) 1백 25자루[柄]는 이미 주조[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국에서 주조한 것을 당 소화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편하오니, 이번에 주조한 화통은 당이란 글자를 빼고 소화통이라 부르고, 전에 주조한 소화통은 중소화통(中小火桶)이라 부르게 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²¹⁾

18) 『紀效新書』朝鮮本 卷12 舟師編 火桶製(국방군사연구소 영인, 『紀效新書』下, 국방군사연구소, 1998, 139-140쪽)

19) 『紀效新書』朝鮮本 卷12 舟師編 授器解(국방군사연구소 영인, 『紀效新書』下, 국방군사연구소, 1998, 87쪽, 92쪽), 여기서 화통은 8척 단위의 편제 중 1호선과 2호선에만 적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 『太宗實錄』15年(1415) 3月 癸丑, “命收亡寺鍾 鑄火桶”

21) 『世宗實錄』5年(1423) 1月 辛卯, “兵曹啓 依傳旨 唐小火桶一百二十五柄已鑄成 然本國所鑄 稱唐小火桶未便 今鑄火桶 除唐字稱小火桶 前鑄小火桶稱中小火桶 從之”

B-3. 옛날에 정승 하륜(河崙)이 힘써 불씨(佛氏)를 배척하였는데, 당시에 구리 불상을 부수어 화통(火筒)을 주조[鑄]한 자가 있었다.²²⁾

B-4. 최군(崔君=崔海山)이 감(監=軍器監)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을 즈음에는 화약의 양이 겨우 6근 4냥이었고 각궁(角弓)이 200장 정도였으며 중소화통(中小火筒)²³⁾은 각궁 숫자만큼 있을 따름이었는데, (최해산이) 근무한 이래로 이윽고 화약이 6,980근 9냥에 달하고 각궁이 1,420장에 달하였으며, 중소화통이 13,500 자루[柄]이고 다른 병기도 이 정도이다.²⁴⁾

위 사료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 초기의 화통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주조한다[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금속으로 부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는 단위도 자루[柄]이다. 또한 화통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기록한 기사에서는 ‘放火筒’ 등의 표현이 사용되어 화약무기를 발사한다는 의미의 방(放)이 동사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를 종합해 보면

22) 『世宗實錄』 30年(1448) 7月 壬寅, “昔政丞何崙力闢佛氏 其時有壞銅佛鑄火筒者”

23) 사료 B-2의 내용을 참조하면 이 ‘中小火筒’은 중형 화통과 소형 화통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종 1년 이전에 제작되어 세종 5년 1월 이후 ‘중소화통’이라 개칭된 장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京都 下 軍器寺 「火藥庫記」, “崔君仕監之初 火藥之數纔六觔四兩 角弓二百許張 中小火筒如角弓之數耳 既仕以來 火藥至六千九百八十觔九兩 角弓至一千四百二十張 中小火筒加一萬三千五百柄 他物稱是”, 이 기록의 바로 앞 단락에서 정유년(丁酉年)에 화약감조청(火藥監造廳)을 준공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를 ‘금년’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이로 보아 화약무기 비축량에 대한 위 기록은 태종 17년(1417) 정유년 시점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5) 『太宗實錄』 및 『世宗實錄』에 나타나는 화통 사격 관련 주요 기사는 다음과 같다. 『太宗實錄』 6年(1406) 5月 癸巳, “試放火筒于露渡”; 『太宗實錄』 15年(1415) 3月 癸亥, “幸東郊觀放火筒”; 『太宗實錄』 15年(1415) 4月 戊辰, “且令火筒軍放火以觀能者賞之”; 『太宗實錄』 16年(1416) 3月 庚申, “觀放鷹于東郊 因放火筒以觀之”; 『太宗實錄』 16年(1416) 5月 己亥, “命軍器監放火筒 闢風氣也”; 『世宗實錄』 2年

조선 초의 화통은 금속을 재료로 하여 이를 주조하여 만드는 화약병기로서,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무언가를 발사[放]하는 유통식 화약병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의 기록에서 화약병기를 지칭하는 화통(火桶, 火桶, 火箭, 火筒)은 사격병기, 조선 후기의 기록물인 『기효신서』 조선본의 화통(火桶)은 투척병기로서 명백히 각각 다른 병기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격병기로서의 화통이 조선 초의 부대 편제 내에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운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C-1. 모든 진의 각 면에는 대오(隊伍)를 지어 잇달아 늘어 서고, (곧 지금의 방패(防牌)이다) 다음은 창(槍)·장검(長劍), 그 다음은 화통(火桶)·궁노(弓弩), 그 다음은 창기병(騎槍), 그 다음은 궁기병(騎射)이 진(陣) 안에 포열(布列)되고, 안과 밖이 모두 그렇게 합니다.²⁶⁾

C-2. 무릇 군사가 험한 땅이나 좁은 길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물고기를 떼어놓은 것처럼 나아가는데(=한 줄로 나아가는데), 한 대열을 50인씩으로 하되, 먼저 방패 든 군사가 한 사람, 다음에 창이나 장검을 든 한 사람, 다음에 화통이나 궁수 중의 한 사람으로 차례를 정하여 보졸 30인이 앞서고, 창기병과 궁기병 20인이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²⁷⁾

(1410) 閏1月 壬申, “上王命於箭串牧場外擇地 爲習放火桶處”;

26) 『世宗實錄』3年(1421) 7月 己巳, “凡陣各面住隊連排(卽今防牌) 次槍長劍 次火桶 弓弩 次騎槍 次騎射 陣內布列 內外皆然”

27) 『世宗實錄』15年(1433) 7月 乙卯, “凡軍入險地狹經 魚貫而行 則每隊五十人 先防牌一人 次槍長劍中一人 次火桶弓手中一人 以此爲次 步卒三十人先行 騎槍騎射二十人次之”

C-3. 군기감 별군(別軍)은 다른 군인에 비할 것이 아니며 오로지 화통(火箭)을 맡기기 위하여 창설한 것인데, 지금 모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 상시로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통에 약을 쟁이는 것과 화살[箭]을 넣고 내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못 많으니 실로 염려됩니다.²⁸⁾

사료 C-1과 C-2를 통해 화통수는 궁수와 같은 대열에 배치되어 원거리 공격을 담당하며, 궁수 1인에 화통수 1인이 대비되고 있어 화통 역시 1인 단위로 휴대(携行)하며 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료 B-4에서 나타나다시피 태종 17년(1417) 기준으로 13,500 자루라는 화통의 높은 재고수치 역시 이것이 개인 단위로 보급된 장비였음을 방증한다 할 수 있다.²⁹⁾ 또한 C-3을 통해 화통의 발사체로는 화살[箭]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화약을 쟁여 그 폭발력으로 탄체를 발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⁰⁾

즉 여말선초 시기의 화통은 곧 화약의 힘으로 화살 등의 발사체를 날려보내는 금속제 유통식 화기였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다량으로 생산되어 개인 단위로 휴대하며 운용하

28) 『世宗實錄』 15年(1433) 8月 己丑, “軍器監別軍 非他軍人之比 專委火箭而設 今皆役於他處 而不得常時肄習 故不知火箭粧藥及接箭放射者頗多 實爲可慮”

29)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기효신서』 조선본에 기재된 투척용 화통(火桶)에는 1개당 화약 5근이 사용되는데, 만약 이러한 것을 13,500개 비추게 두었다고 한다면 필요한 화약의 분량은 총 67,500근이 된다. 태종 즉위 초에 화약의 재고가 거의 없었고(6근 4냥), 세종 재위 전반기에도 염초 생산량이 1년에 대략 1,000근 내외였던 상황에서(『世宗實錄』 13年(1431) 12月 乙卯), 사료 B-4의 태종 17년(1417) 시점에 화통을 위해서만 이 정도의 화약이 생산 및 비축될 수 있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 역시 당시의 화통이 대형 투척병기가 아니라 개인용 사격병기였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0) 다만 성종 재위기는 이미 화약병기의 표준 발사체를 화살 종류로 통일한 세종의 재위기 이후이므로, 세종 이전의 화통은 화살 외에도 철탄자 등의 다른 발사체를 함께 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는 일종의 개인화기 부류에 속하는 화약병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¹⁾

그러므로, 고려 말 일련의 해전에서 왜선을 ‘소각’한 주체가 되는 병기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화통을 제외하고 다른 방향에서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3. 고려 말 화포(火砲)의 실상 : 선박공격용 화염병기

최무선이 개발한 무기체계가 왜구 격파에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려 우왕 6년(1380) 8월의 진포(鎭浦)해전과 동왕 9년(1383) 5월의 관음포(觀音浦)해전이 지목된다. 그리고 신빙성은 다소 의심되지만, 『세종실록』 내 박안신(朴安臣)의 상서에서 지목되는 임술년의 소규모 해전을 추가로 꼽을 수 있다.³²⁾ 이들 전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각각의 전투에서 모두 적선을 불태우는 데 화약병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진포해전에서의 화약병기 사용과 연관된 기록은 『高麗史』 나세(羅世) 열전과 변안열(邊安烈) 열전 및 『태조실록』의 최무선 졸기에 각각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31) 최무선이 제작한 화통이 어떠한 형태였는지는 명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희고소총통(慶熙古小銃筒)이 현존하는 유물 중 고려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최고(最古)의 금속제 발사기구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 형태가 원대의 소형 총통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원의 화약기술을 습득하면서 영향을 받아 유사한 형태를 차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박안신의 상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투의 규모 등으로 보아 관음포 해전과는 구별되는 해전으로 진포 해전과 관음포 해전의 사이인 1382년경에 일어난 해전으로 볼 수 있다.

D-1. 또 심덕부(沈德符), 최무선 등과 함께 전함 100척으로 왜적을 추격하였는데, 이때 적선 500척이 진포 입구로 들어와 정박하고 군사를 나누어 배들을 지키게 하고는 해안으로 올라와 주군(州郡)으로 흩어져 들어갔다...(중략)...나세 등이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이용하여[用] 그들의 배를 불살랐는데 연기와 불길이 하늘을 뒤덮었으며 배를 지키는 적이 거의 다 타죽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자 또한 많았다.³³⁾ (나세 열전)

D-2. 왜선 5백 척이 진포 어귀로 들어와 굽은 동아줄로 서로 묶어놓고 군사를 나누어 배들을 지키게 하고는 마침내 해안에 상륙해 각 고을로 흩어져 들어가 분탕질하고 노략질하였다.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 이르러 화포를 이용해[用] 적선을 불태우니 배를 지키던 적병이 거의 다 불에 타 죽거나 익사하였다.³⁴⁾ (변안열 열전)

D-3. 경신년(1380) 가을에 왜선 3백여 척이 전라도 진포에 이르니,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최공(=최무선)의 화약을 지금 가히 시험할 수 있겠다 하였다. 이에 부원수(副元帥)에 임명되어 도원수(都元帥) 심덕부, 상원수(上元帥) 나세와 함께 배를 타고 화약병기[火具]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렀다. 왜구가 화약이 있는 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배를 서로 묶어 힘을 다하여

33) 『高麗史』 卷114, 列傳27 羅世, “又與德符崔茂宣等領戰艦百艘 追捕倭賊 時賊五百艘 入鎮浦口維舶 分兵守之 登岸散入州郡...(中略)...世等至鎮浦 用茂宣所製火炮 焚其船 烟焰漲天 賊守船者 燒死殆盡 赴海死者亦眾”, 『高麗史節要』의 관련 기록도 최무선의 화포를 처음으로(始) 사용했다는 묘사를 제외하면 이와 거의 같다.

34) 『高麗史』 卷126, 列傳39 邊安烈, “倭賊五百艘 入鎮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遂登岸 散入州郡焚掠 羅世沈德符等 至鎮浦 用火炮 焚其船 賊守船者 燒溺殆盡”

대항해 싸우려 하니, 무선이 화약병기를 발사하여
[發] 그 배를 다 태워버렸다.³⁵⁾ (최무선 줄기)

다음으로 관음포해전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사』 정지(鄭地) 열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정지가 전함 47척을 거느리고 나주(羅州)와 목포(木浦)에서 머물렀는데, 왜적의 큰 배가 120척이나 오니 경상도(慶尙道) 연해의 주군(州郡)들이 크게 동요하였다...(중략)...섬진(蟾津)에 도착하여 합포(合浦)의 사졸들을 징집하였는데, 적이 이미 남해(南海)의 관음포(觀音浦)에 이르러 아군을 살펴보고 아군이 나약하다고 여겼다...(중략)...바다 가운데에서 돛을 올리니 배들이 날아가듯이 질주하여 박두양(朴頭洋)에 이르렀다. 적이 큰 배 20척으로 선봉을 삼고 배마다 날랜 군사 140명씩을 배치하였다. 정지가 나아가 공격하여 앞장서서 그들을 패배시키니 떠다니는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 또 남은 적을 활로 쏘니 시위가 울릴 때마다 번번이(적이) 쓰러졌으며, 마침내 적을 크게 패배시키고 화포를 쏘아[發] 적선 17척을 불태웠다.³⁶⁾

임술년 해전의 전개에 대한 『세종실록』 내 박안신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35) 『太祖實錄』 4年(1395) 4月 壬午, “倭寇三百餘艘至全羅道 鎮浦 朝議崔公火藥今可試矣 乃命爲副元帥 與都元帥沈德符上元帥羅世 乘船齎火具直至鎮浦 寇不意有火藥聚船相維 欲盡力拒戰 茂宣發火具盡燒其船”

36) 『高麗史』 卷113, 列傳26 鄭地, “地師戰艦四十七艘 次羅州木浦 賊以大船百二十艘來 慶尙道沿海州郡大震...(中略)...到蟾津, 徵集合浦士卒 賊已至南海之觀音浦 使覘之 以爲我軍樹懦...(중략)...中流舉帆, 船疾如飛 至朴頭洋 賊以大船二十艘爲先鋒 艘置勁卒百四十人 地進攻 先敗之 浮屍蔽海 又射餘賊 應弦輒倒 遂大敗之 發火炮 焚賊船十七艘”

F. 임술년에 적이 진포에서의 패배를 분하게 여겨 수전으로 이기고자 하여 이에 배들을 대거 몰고 와서 곤남(昆南)에 이르렀는데, 변장(邊將) 정지, 최무선, 나서(羅瑞) 등이 병선 10여 척을 거느리고 이를 막으니, 적이 중과부적이라 여기고 흥겨워하며 도전하므로, 병선이 분격(奮擊)하여 화포(火砲)를 던져[投] 적선을 분멸하니, 적이 이에 도망하므로 쫓아가서 큰 배 아홉 척을 빼앗았습니다.³⁷⁾

화약병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진포해전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화포를 이용하여 그 배를 불태웠다’[用火砲 焚其船], 혹은 ‘화약병기를 발사하여 그 배를 모두 불태웠다’[發火具 盡燒其船]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관음포해전에서는 ‘화포를 발사하여 적선 17척을 불태웠다’[發火炮 焚賊船十七艘]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박안신의 진술은 그 시기가 최무선의 실제 활동 시기와 다소 간격이 있고, 『고려사』에 해당 전투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에 다소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³⁸⁾ 다만 이를 신뢰한다고 할 경우 ‘화포를 던져서 적선을 분멸하였다’[投以火炮焚滅賊船] 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당시 ‘화포(火砲, 火炮)’라는 단어의 용법 중에는 화약병기[火具]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서의 용법이 존재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발사[發]하는 무기라는 이야기가 된다. 다만 만약 박안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면 투척하는 것[投] 역

37) 『世宗實錄』 12年(1430) 4月 癸未, “歲壬戌 賊寇鎮浦之敗 欲以水戰決勝 乃大舉船艘 來泊昆南 邊將鄭池崔茂宣羅瑞 率兵船十餘艘以禦之 賊以眾寡不敵乘興挑戰 兵船奮擊 投以火炮焚滅賊船 賊乃遁避 追奪大船九隻”, 나서(羅瑞)는 나세(羅世)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8) 진포해전 이후의 전투이면서 그 지휘관으로 정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정지의 관음포 해전(1383)을 지목하면서 해전의 시기나 전투 방식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혼동하여 언급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시 포괄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타격에 의한 파괴보다는 적선을 불질러 태우는 것[焚, 燒]이 주요 공격방법이었는데, 실제로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 중국에서 수전(水戰)에 화포를 사용한 기록에서도 화약병기로 적선을 불태우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원나라에서는 13세기에 이미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유통식 화기에서 고정 탄체(solid projectiles)를 발사하는 형태의 화기가 등장하였던 바 있지만, 수전에서는 14세기 중엽 이후까지도 화약의 연소성능에 의존하는 화약병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위력의 한계로 인해 인마살상 이외에 구조물의 파괴에는 유통식 화기를 활용하기 어려웠거나,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수상전에서는 안정적인 포격이 어려웠던 것 등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이후 16세기 후반에 출간된 『기효신서』의 사고전서본에서도 인화물질과 함께 화약의 연소 화염을 방사하여 적선을 공격하는 비천분통(飛天噴筒)을 함대함 전투에서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극히 효과적인[莫救比 極妙極妙] 무기로 극찬하며 언급하고 있는 기록이나⁴⁰⁾, 『宣祖實錄』의 1600년도 기록에서 통제사(統制使)가

39) 『明太祖實錄』 卷12, 癸卯年(1363) 7月 戊子 기사에서 유통해(俞通海)가 화포를 발사하여 적선 20여 척을 불태웠다는 기록(俞通海復乘風發火砲焚寇舟二十餘艘), 『元季伏莽志』 卷4 陳友諒에서 주원장(朱元璋)의 군대가 화약을 실은 화공선인 몰나하(沒奈何)를 활용하여 적선을 불질렀다는 기록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明史紀事本末』 卷3 太祖平夏에서는 요영충(廖永忠) 부대의 수상전 활동과 관련하여 ‘發火砲火箭夾攻大破之鄒興中火箭死遂焚其三橋’ 라는 기록이 있어 불태우는 것[焚]과 구별되는 파괴[破]에 화포나 화통이 사용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40) 『紀效新書』 四庫全書本 卷18, 戰船器用說, “遠則只用飛天噴筒 近則只用埋火藥桶”; 同 飛天噴筒, “莫救比 極妙極妙 萬方效策”, 朝鮮本에서는 같은 장비를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중간한 부분에서 분통(噴筒)이라는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분통이 존재하던 명과 달리 조선에서는 『기효신서』를 통해 비천분통 하나만이 소개되었기에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 있어서도 그 효용을 극찬하는 사고전서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예단하기는

중국에서 도입된 분화통(噴火筒)을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내용⁴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감안해 보면 중국에서는 연소형 화약병기가 대략 16세기 말에 이르기까지도 수상전에서 여전히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무선 활동 당시 진포해전이나 관음포해전 등에서 주력으로 사용되었을 연소용 화약병기로는 무엇을 거론할 수 있을까. 일단 앞서 언급한 대로 최무선 즐기의 화통(火桶)과 『기효신서』 조선본의 화통(火桶)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대형 투척병기로서의 화통(火桶)을 거론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최무선이 개발하여 이를 계승한 조선 초의 화통(火桶)은 직접 폭발시키는 대형 목제 투척병기가 아니라 고품 탄체를 날려보내는 금속제 개인사격용 화약병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증한 바 있다.

이외에 앞서 살펴본 진포해전이나 관음포해전에서의 묘사와 같이 다소의 거리를 두고 발사[發]하여 상대의 선박을 불사르는 [焚, 燒]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연소용 화약병기로는, 조선시대 신기전(神機箭)의 전신이 되는 주화⁴²⁾나 유화⁴³⁾와 같은 로켓형 화약병기를 먼저 거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⁴⁴⁾ 다만 로켓형 화약

어려우나 함상 포격무기가 발달하여 타격력만으로도 충분히 적선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16세기 이후 조선수군의 상황이 반영되었던 영향이 아닌가 한다.

41) 『宣祖實錄』 33年(1600) 6月 癸巳. 당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는 이시언(李時言)이었다.

42) 소주화(小走火)는 인마살상용으로만 활용되었으나 중형 및 대형 주화는 필요한 경우 발화통(發火筒)을 따로 장착하여 목표물에 화재를 일으키는 데도 사용할 수 있었다.(채연석, 앞의 책, 1981, 43-47쪽)

43) 정확한 형태는 알기 어려우나 최무선 즐기 내에서의 배치를 감안했을 때 자체추진 병기의 일종으로 보인다는 점 및 유화(流火)라는 명칭으로 보건대 수상(水上)에서 화약의 연소에 의한 자체추진으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화공병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44) 화약을 사용하는 병기라는 측면에서 넓게 본다면 화살에 불붙인 화약을 매달아 활로 쏘는 고려 말의 화전 역시 그 범주에 넣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아무래

병기는 상대적으로 탄도가 불안정하여 원거리에서는 충분한 명중을 담보하기 어려운 반면, 화약 소모량은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함길도 도절 제사에게 전달했던 세종의 발언 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다.

G. 주화의 이익은 크다...(중략)...그러나 화살 나가는 것이 총통과 같이 곧지 못하고, 약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총통이 약을 쓰는 것만 같지 못하고, 거두어 갈무리할 때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 총통의 수시로 장약하는 편리한 것만 같지 못하다. 이것으로 본다면 총통의 이익이 더욱 크다.⁴⁵⁾

이는 육전에서 로켓병기 운용과 관련된 발언인 만큼, 물결에 의한 요동이 심한 수상전에서는 원거리에서의 그 효율성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당시의 수상전 상황에서 상대의 선박을 소각할 수 있을 만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하여 전투를 벌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아 상호간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울 경우에는 역으로 로켓이 충분한 가속을 획득하기 위한 비행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는 만큼 역시 이러한 병기들이 적선 소각의 주력을 담당했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다 하겠다.

도 화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한편 전상운, 김기웅은 화포로 불화살을 사격하여 화공을 가하는 방식을 추정하였으나(전상운, 『韓國科學技術史』, 정음사, 1975; 김기웅, 『무기와 화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이것이 과연 유용한 운용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원거리에서는 역시 명중률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5) 『世宗實錄』 29年(1447), 11月 辛亥, “走火之利大矣...(中略)...然失行不如銃筒之直也; 藥費大多, 不若銃筒之少用藥也; 收藏不可不謹, 不若銃筒隨時藏藥之便也。以此觀之, 銃筒之利尤大”

이외에 최무선 줄기에 언급된 화약병기들 중 근거리에서 투척 [投]하는 방식의 연소용 화약병기로는 질려포를 추가로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래 질려(蒺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화약과 함께 내부에 수납된 파편의 비산 등을 통한 인마살상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무기인 만큼⁴⁶⁾, 근거리 함대함 전투에서 적선 소각을 질려포가 전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⁴⁷⁾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자면, 『태조실록』 최무선 줄기에 언급된 병기들 중 당시 사용된 연소용 화약병기로는 ‘화포(火炮)’를 따로 유력한 후보로 지목해볼 수 있다.

이 ‘화포’의 정체를 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내 사료에서 화포(火炮)라는 표현은 화포(火炮)와 더불어 화약을 이용하는 발사기구 혹은 화약병기 전체를 통칭하는 명칭으로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한 최무선의 줄기에서는 해당 단어가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각각의 세부 병기 목록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다른 발사용 화약병기들의 명칭과 병렬하여 ‘화포(火炮)’라는 단어가 개별적으로 따로 명기되어 있다.

즉 최무선 줄기의 병기 목록에서 언급된 ‘화포’는 화약병기 전체의 통칭이 아니라 다른 발사기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화약병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인용

46) 투척식 화약병기로 이전부터 중국에서 사용되던 진천뢰(震天雷) 역시 인마살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병기였다. 이를 몽골제국이 입수하여 일본 원정 당시 사용했던 데츠하우(てつほう, 鐵砲)의 실물 유물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47) 금나라 말기의 문인 원호문(元好問)이 편찬한 소설인 『續夷堅志』에는 여우 사냥꾼이 화약이 든 단지(火罐)를 허리에 차고 있다가 여기에 불을 붙여 던져서 그 폭발로 여우를 놀라게 하는 일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화약의 폭발음(猛作大聲)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료가 관련된 수식어 없이 단순히 ‘罐’이라고만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의 용례로 미루어 보면 그 재질은 아마도 질그릇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續夷堅志』 卷2, 狐鋸樹)

한 「화약고기」에서도 최해산의 발언이나 정이오의 기록에서 ‘화통’과 ‘화포’를 나란히 병렬하는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화약병기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통과 구별되는 개별 병기로서의 ‘화포’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그 실상에 대해서는 직접적 자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전과 이후 시대의 화약병기 개발 계통 및 운용 현황을 분석하여 그 정체를 추론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는 확언할 수 없으나, 송대에서 명대에 이르는 화약병기 발전의 계통적 흐름 및 중국 측 서적을 참조하여 추론하자면 이 ‘화포’의 실체는 대략 둘 중 한 가지의 형태로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 번째의 추정 형태는 화포(火砲)가 말 그대로 불[火]을 뿜어내는 병기로서, 중국에서 유래한 분통(噴筒) 계열의 화약병기와 마찬가지로 화염과 인화물질을 분사하여 화재를 유발하는 형태의 화약병기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화염방사식 화약병기가 발전해온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장병기에 종이나 대나무로 만든 분화통을 장착하여 짧은 화염만을 분사하는 화창(火槍) 계열의 화약병기가 송(宋)이나 금(金)에서 사용되었다.⁴⁸⁾ 이후 13세기 중엽에는 남송(南宋)에서 돌화창(突火槍)이 등장하는데 이는 금속제 유통식 화기의 선조격이 된다.⁴⁹⁾ 돌화창은 화염방사식 화약병기와 사격용 화약병기가 분화되는 흐름의 과도기격에 있는

48) 화창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운용된 기록은 송(宋)의 陳規가 德安府를 금의 침공에서 방어했던 시기의 사료에서 나타난다(『宋史』卷377, 列傳136, 陳規). 진규 본인 이 저술한 『守城錄』에 따르면 이는 紹興 2年(1132)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守城錄』卷4, 德安守禦錄下). 한편 금(金)에서도 13세기 초 금 천흥(天興) 원년(1232) 몽골군이 금의 변경(汴京)을 공격하였을 때 투척식 화약병기인 진천뢰(震天雷)와 더불어 화염방사식 화약병기인 비화창(飛火槍)을 방위에 사용한 기록이 나타난다. (『金史』卷113, 列傳 51, 赤盞合喜傳).

49) 王兆春, 『中國火器通史』, 武汉大学出版社, 2015, pp.43-44.

화약병기라 할 수 있는데, 대나무 통에 화약과 함께 탄체 역할을 하는 자과(子窠)를 채워 발사하면 화염과 탄체가 동시에 발사되는 무기이다. 돌화창은 연소가스의 밀폐가 잘 되지 않아 탄체의 사거리가 짧다는 문제가 있었는데⁵⁰⁾, 이것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몽골제국에서 금속제 유통식 화기가 등장하면서 발사용 화약병기의 발달은 크게 두 방향으로 분기된다.

하나는 발사기를 금속으로 주조하여 밀폐성과 내구성을 높임으로써, 연소가스의 누출을 줄이고 화약의 폭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사체의 추진력으로 돌릴 수 있게 한 총통(銃筒) 계열의 사격용 화약병기이다.⁵¹⁾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로 대나무 등으로 몸체를 제작하고 화염 분사 기능을 끌어올려 이전보다 훨씬 긴 화염을 방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분통 계열의 화염방사식 화약병기이다.

이러한 계통의 화약병기들은 개량을 거쳐 내부에 화약과 인화물질을 함께 장전하여 운용하기도 하였다.⁵²⁾ 이는 단순히 화약 자체의 연소화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화약 연소의 가스압을 발사 방향으로 편향 방출시켜 인화물질을 더 멀리 비산시키는 한편으로 연소화염으로 이를 인화시켜 목표물에 화재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였다.⁵³⁾

50) 이는 발사관이 금속제가 아닌 연약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 내구도의 문제로 인하여 견딜 수 있는 압력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부류의 병기들은 발사기를 강력하게 밀폐하여 화약의 폭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웠다.(Peter A. Lorge, 『The Asian Military Revolution: from Gunpowder to the Bomb』,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37.)

51) 진천뢰(震天雷)나 서과포(西瓜砲) 등 금속 외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화약병기는 원대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이들은 발사체가기 때문에 발사기구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52) 일례로 『紀效新書』에서 대표적인 선박공격용 병기로 언급되는 비천분통의 경우, 화약과 함께 연소성이 높은 장뇌(樟腦)와 지속적인 화재를 유발하는 송지(松脂)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하였다.(『紀效新書』四庫全書本 卷18, 飛天噴筒)

일례로 앞에서 언급한 비천분통의 경우 높이로는 십수 장(丈), 거리로는 30-40보(步), 즉 멀게는 40m를 넘어서는 거리까지 인화물질과 화염을 분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⁵⁴⁾ 또한 명대의 『武備志』에는 송대의 화창에서부터 분기되어 명대에까지 이어진 다수의 분통을 기재하고 있어 이러한 계열의 화약병기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⁵⁵⁾

최무선 역시 중국 측 기술을 참조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화약병기를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언급한 대로 함대함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왜구 제압을 위해 화약을 연구했던 최무선으로서는 이러한 화염방사식 화약병기의 개발 역시 시도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고려 수군의 전술 변화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 말 수군의 대 왜구 전술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료에 주목하였던 바 있다.

H. 신이 들건대 전조(前朝=고려) 말기에 왜적(倭賊)이 침략하였으나 그때 병기(兵器)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솟대 대적하지를 못했고, 또 우리나라의 병선은 크고 느린데 왜선은 작고 가벼워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우리 배의 밑으로 들어와서 배 밑바닥을 도끼로 구멍을

53) 현대의 화염방사기 중에도 휴대하여 운용하는 소형 장비 중에서는 분통과 유사한 원리로 화약 카트리지의 폭발을 통해 인화물질을 점화시키고 그 연소가스로 화염을 멀리 비산시키는 형태의 장비들이 운용되었던 바 있다. 별도의 점화장치나 비산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량화되어서 운용인원 개인이 휴대하기가 간편해지기 때문이다.

54) 『紀效新書』四庫全書本 卷18, 飛天噴筒

55) 『武備志』卷128, 軍資乘 火10 火器圖說7 에서는 火槍 계열의 분사식 화약병기들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다음 권인 卷129, 軍資乘 火11 火器圖8 에서는 噴筒 계열의 병기들을 기재하고 있다.

뚫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군사의 실패가 많았는데, 선군(船軍) 김잉길(金仍吉)이란 자가 모책을 바쳐서 거철(拒鐵)과 구철(拘鐵)을 만들어, 왜선으로 하여금 들어 왔다가 물러가지 못하게 하고, 또 철질려(鐵蒺藜)를 만들어 배 안에 던지니, 이로부터 그런 걱정은 드디어 없어졌다고 합니다.⁵⁶⁾

이는 조선 성종의 물음에 대한 조석문(曹錫文)의 대답인데, 여기서 거철은 적선이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함부로 접현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기구이고, 구철은 적선을 걸어서 붙드는 갈고리이다. 이러한 기구가 고려 말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새로이 개발된 화약병기와 조합되면서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⁵⁷⁾

거철과 구철을 이용하여 고려 수군에 유리한 교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화약병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때 적선을 소각하기 위해 사용된 화약병기가 바로 분통과 같은 부류의 화염방사용 화약병기였으며 이것이 곧 최무선 줄기에서 독립된 화약병기로 기재된 화포(火砲)의 정체가 아닌가 한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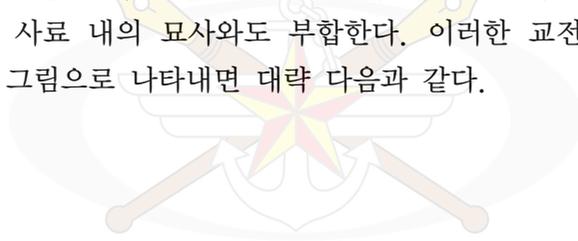
56) 『成宗實錄』 5年(1474) 3月 癸亥

57) 임용한, 앞의 글, 2005, 297쪽; 신성재, 앞의 글, 26-29쪽. 다만 상기 연구들에서는 이 때 사용된 선박 소각용 화약병기의 주류를 투척용으로 보고, 같은 맥락에서 최무선 시기의 화통(火筒)을 투척병기로 간주하였다.

58) 이 경우 중국의 유사한 무기와는 이름을 다르게 쓴 셈이 되는데, 여말선초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몇 가지 더 관측된다. 같은 화약병기인 화전(火箭)의 사례를 볼 때, 중국의 화전은 화약을 추진제로 쓰는 로켓병기로서의 화살을 지칭하며 한반도의 화전은 화약을 화살에 묶어 방화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와 추진은 활을 사용하는 화살이다(국방군사연구소 편, 앞의 책, 1994, 400-401쪽). 반면 한반도에서는 로켓추진식 화살을 자체적인 이름인 주화(走火)로 칭하다가 후일 신기전(神機箭)으로 고쳐 불렀다. 또한 최무선 당시 대장군포(大將軍砲), 이장군포(二將軍砲), 삼장군포(三將軍砲)와 같은 명칭은 중국과는 별개의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보면 국내에서

거철과 구철을 통해 확보되는 유리한 교전거리란 곧 근거리이긴 하되 적이 곧바로 등선육박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거리인 동시에 아군 측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갈고리를 내뺀어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즉 대략 수 미터에서 최대 10미터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의 교전거리라면 분통 부류의 병기를 통한 화염방사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⁵⁹⁾

이 경우 일반적인 운용은 거철과 구철을 통해 왜구의 선박을 원하는 교전거리에 주도적으로 묶어 두고 근거리에서 적선의 돛이나 선체에 화염을 방사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⁶⁰⁾, 이는 ‘(화약병기를) 발사하여 (적선을) 불질렀다’라는 사료 내의 묘사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교전양상을 단순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략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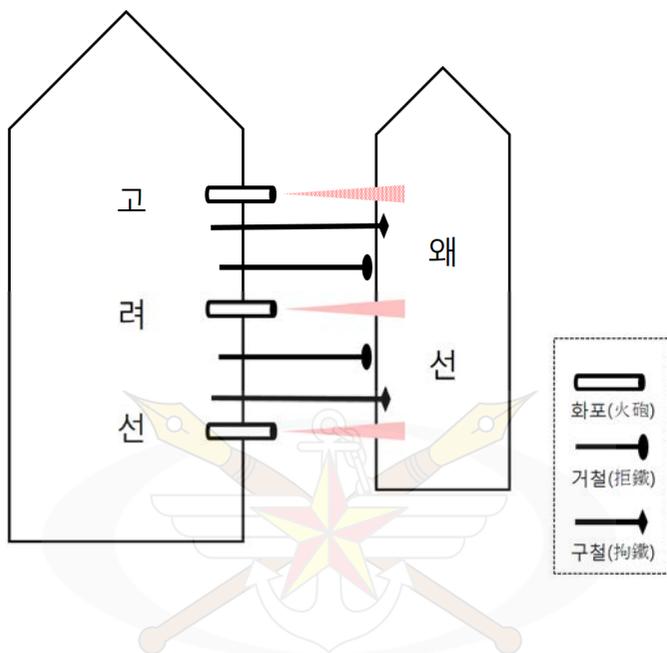


자체적인 화약병기 체제를 처음으로 확립하던 시기에는 유사한 무기라도 중국과는 다른 명칭으로 부르거나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병기가 한중 양국에서 사실상 각각 다른 병기를 지칭하는 것인 사례가 실제로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9) 분통 이전의 돌화창도 수 미터 정도의 효과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기효신서』 사 고전서본에 따르면 명대의 비천분통은 최대 십여 장(丈) 정도까지 화염방사가 가능하였다.

60) 다만 앞서 언급한 『紀效新書』의 내용을 감안하면 대체로 선체 그 자체보다는 불이 붙기 더 쉬운 돛 등을 우선적으로 노려 선박 전체에 화재가 번지도록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紀效新書』 四庫全書本 卷18, 飛天噴筒)

〈그림 1〉 화포(火砲)와 거철-구철 결합 전술의 교전양상 모식도



이러한 전술은 진포해전에 대한 사료 D-3의 기록과 같이 적선이 서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효과가 상승했을 것이다. 또한 관음포해전(사료 E)에서는 적선을 먼저 제압하고 화염으로 적선을 불지른 것으로 묘사되는데⁶¹⁾ 이러한 소탕전에서도 화염방사식 화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병기는 화약의 연소를 바탕으로 화염을 만들어낸다는 특성 상 화약의 소모량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화염병기로서의 화포(火砲)가 빠르게 도태된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일단 조선 건국을 전후한 전환기에는 도감 체제 혁파라는

61) 임용한, 앞의 글, 298쪽.

정치적 흐름 속에서 화통도감 또한 혁파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무선이 은퇴하면서 이후 최해산이 등용될 때까지 조선의 화약 생산 및 관련 기술 발전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⁶²⁾ 앞서 인용된 사료 B-4에서 최해산이 갓 등용되었을 당시에는 군기시의 화약 재고가 겨우 6근 4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화약고기」의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태종과 세종의 재위기간을 거치면서 화약 생산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에도, 조선은 상대적으로 적은 화약 소모량으로 화살 등의 발사체를 날려보낼 수 있는 금속제 총통 위주로 화약병기를 재편성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⁶³⁾ 이 과정에서 연소통에서 직접 화약을 연소시키는 방식의 화약병기는 높은 화약 소모량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차차 도태되었던 것이다.⁶⁴⁾

이로 보아 화염방사식 화약병기는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관할 하던 초기에 제작되어 진포 및 관음포 등지에서 실사용으로 소모된 이후, 조선 초에는 높은 화약 소모량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태되고 이후로도 다시 연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때문에 최무선 즐기에 언급된 ‘화포(火砲)’에 대한 후대의 기록도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목제 선박의 소각에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 원군으로 왔던 명군이 사용하였던 것을 계기로 재조명이 이루어져 분

62) 오기승, 앞의 글, 90-92쪽.

63) 조선 세종이 화약 소모량이 더 적다는 이유로 총통을 신기전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앞서의 사료 G와 더불어 세종대 이후 편찬된『국조오례의』에 나열되는 화기에서 총통 계열이 다수인 것, 조선 중기에 들어서는 총통 계열이 화약병기의 주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해볼 수 있다.

64) 연소통에서 화약을 연소시켜 화염을 분사한다는 점에서 신기전 계열의 화약병기와 분통 계열의 화약병기는 유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차이점은 목적에 따라 연소화염의 방향을 전방으로 향하는가 후방으로 향하는가 하는 점, 다시 말해 화약의 연소로 추진력을 얻으려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인화물질을 비산시키기 위한 화염과 가스압을 얻으려 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화통(噴火筒) 혹은 분통(噴筒)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재도입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의 추정 형태는, 앞서의 추론에 비해 가능성은 더 낮지만 화포(火砲)가 일종의 폭발식 투척 병기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최무선 졸기의 화약병기 나열 순서 상 명백하게 발사기구에 속하는 육화석포와 신포 사이에 명기되어 있는 화포가 투척병기라는 것은 배치 상 다소 부자연스럽다. 다만 명대의 서적인 『武備志』 등에서 포(砲)의 이름을 가진 화약병기는 발사기구와 투척병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砲)로 분류하여 구분 없이 나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겠다. 다만 이 경우, 배열순서 상 최무선 졸기의 화약병기 목록에서 화포(火砲)는 질려포(蒺藜砲)와 나란히 배치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되기에 이것이 투척병기였을 가능성은 전자보다 낮다고 본다.⁶⁵⁾

정리하자면, 화염방사식과 투척식 중 어느 형태이든, 고려 말 해전에 대한 사료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선을 불태우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화약병기의 존재가 필요하다. 또한 그 화약병기는 거철을 이용하여 고려 병선이 적의 등선은 방지하되, 구철을 활용하여 적선을 직접 포착할 수는 있을 정도의 적절한 근거리에서 적선에 유효한 수준의 화염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추론에 따르면 최무선 졸기의 화약병기 목록에서 언급되는 ‘화포(火砲)’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한 병기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65)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당시의 투척식 화약병기는 대체로 소각보다는 인마살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외에 불이 붙은 화구(火毬)와 같은 것을 운용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포강 내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당시의 화약식 발사기구로는 발사하기 어렵다. 이를 피하기 위해 투척기를 사용했다고 상정할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로켓 병기의 사례와 유사하게 선상 운용 상황에서의 명중률과 비효율성 문제를 도외시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화약병기는 적선이 서로 묶여 있던 진포해전에서 300척 이상, 최대 500척에 달하는 적선을 일시에 불태워 상륙한 왜구의 거점을 소멸시키거나⁶⁶⁾, 관음포해전의 종결 단계에서 20척 중 17척의 함선을 불태워 도주를 막음으로써 성공적인 소탕전으로 전과확대 효과를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등⁶⁷⁾, 대 왜구 수상전의 일선에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적지 않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막심한 화약 소모량과 이에 겹친 여말선초 화약 재고 및 생산역량 급감 등의 이유로 인해 조선 초를 거치며 급속히 도태되었으며 이 때문에 관련 기록 역시 미비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4. 결론

고려 말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병기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태조실록』의 최무선 졸기에 기재된 화약병기 목록을 중심으로 추론과 고찰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고려 말 화약병기를 이용한 해전과 관련해서는 적선을 불태우는 용도를 중심으로 화약병기가 활용되었다는 점은 일찍부터 짚었으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고찰이 많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무선 졸기에 언급된 화통(火桶)과 화포(火砲)의 실상에 주목해 보았다.

사료에서 나타나는 기록들을 종합하면 고려 말의 화통(火桶)은 화살 등을 발사하는 금속제의 유통식 화기였으며, 장군통 등에

66) 사료 D-1, D-2, D-3 참조.

67) 사료 E 참조.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화기였다. 그리고 조선 초의 운용기록에 따르면 육전에서는 그 사용자가 궁수와 같은 열에서 사격을 담당하였다. 한편 『기효신서』 조선본의 화통은 목제 외피를 가진 대형 투척병기이며 선상에서만 운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병기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고려 말 화약병기를 이용한 해전이 화약병기로 적선을 불태우는 형태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당시의 해전이 원거리 전투 위주였다면 아마도 유화, 주화 등의 로켓 병기가 이를 담당하였을 것이나, 이 경우 당시 로켓 병기 탄도의 불안정성 및 요동이 심한 해전의 특성 상 명중률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 근접한 상태에서 화염으로 적선을 소각할 수 있는 화약병기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 고찰이 없었던 최무선 줄기의 화포(火砲)를 곧 근접전에서 적선에 화염공격을 가했던 주체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분통(噴筒)과 같은 부류의 화염방사식 무기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실제로 전근대 중국에서의 화약병기 발달 흐름을 보면 원통 등에 담은 화약을 연소시켜 그 화염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는 12세기경 화창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었다. 또한 원말명초의 기록 및 명대의 병서인 『기효신서』나 『무비지』등을 참조해 보면, 화약 소모량이 많은 대신 화약의 연소력을 이용하여 화염을 방사해 근접전에서 상대 선박을 소각할 수 있는 무기가 선박 간의 근접전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무선이 화약병기를 도입하고자 한 배경 역시 해전에서의 우세 확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고려 말의 해전에서 선박 간 근접

전으로 ‘적선을 불태운’ 무기 역시 중국에서도 사용되던 이러한 부류의 화약병기로 추정되며, 최무선 줄기의 화포(火砲)가 곧 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는 고려 수군이 거철과 구철을 이용한 전술을 조합하여, 적병의 등선을 방지하면서도 상대의 자유로운 이탈을 막아서 주도적으로 적절한 근접 교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조선 전기 사료에서 이러한 부류의 화기에 대한 관련 기록이 거의 부재했던 것은 조선 전기 화약무기체계의 재편 흐름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건국 직후의 화약 부족을 거치면서, 조선에서는 세종대의 『총통등록』 편찬 시기 즈음을 기점으로 화약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총통 위주로 화기체계를 재편하면서 화약 소모량이 많은 화약병기들은 차차 도태시켰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앞서 상정한 연소식 화약병기 또한 격심한 화약 소모량으로 인해 일찍 도태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 전기의 사료에서 이러한 부류의 화약병기에 대한 설명이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사료가 부족한 만큼 전체적으로 추론의 비중이 높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추가적인 고찰을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원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紀效新書』(朝鮮本)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紀效新書』(四庫全書本) 『明史』 『明史紀事本末』 『明實錄』
『武備志』 『守城錄』 『續夷堅志』 『元季伏莽志』

2. 단행본

국방군사연구소 편, 『紀效新書』上, 下(朝鮮本), 국방군사연구소, 1998.
국방군사연구소 편, 『韓國武器發達史』, 국방군사연구소, 1994.
김기웅, 『무기와 화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노영구, 『한국의 전쟁과 과학기술문명』, 들녘, 2022.
<http://uci.or.kr//G901:A-0010864909>
법제처 역, 『國朝五禮儀』4(國朝五禮儀序例), 법제처, 1982.
민병만, 『한국의 화약역사』, 아이위크북, 2009.
<http://uci.or.kr//G901:A-0006250985@N2M>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역주 화포식언해 신전자취염소방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http://uci.or.kr/G901:A-0006508922@N2M>
이강철, 『한국의 화포』, 동재, 2004.
전상운, 『韓國科學技術史』, 정음사, 1975.
채연석, 『韓國初期火器研究』, 일지사, 1981.
허선도,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王兆春, 『中國火器通史』, 武汉大学出版社, 2015.
刘旭, 『中國古代火药火器史』, 大象出版社, 2004.
Peter A. Lorge, 『The Asian Military Revolution: from Gunpowder

to the Bomb』,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http://uci.or.kr/G901:A-0006722177>

3. 논문

강성문, “여말선초 전술변화와 외교정책”,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2-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5.

노영구, “朝鮮 增刊本 《紀效新書》의 체제와 내용”, 『군사』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박귀순, “중국(명)한국(조선) 일본 『기효신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17, 한국체육사학회, 2006.
<http://uci.or.kr/G704-001773.2006.17..009>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의 『기효신서』 도입과 수용”, 『한국사학보』76, 고려사학회, 2019.
<http://doi.org/10.21490/jskh.2019.08.76.175>

신성재, “고려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13,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오기승, “여말선초 화약 및 관련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체계적 재구성”, 『역사와현실』123, 한국역사연구회, 2022.
<http://doi.org/10.35865/YWH.2022.03.123.57>

임용한,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군사』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704-001528.2005..54.008>

정하명, “한국의 화기 발달 과정”, 『군사』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6.

제장명, “조선 초기 거북선의 출현 배경과 주요 형태 및 기능”, 『이순신연구논총』3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1.

채연석, “火藥兵器의 위력”, 『한국사 시민강좌』16, 일조각, 1995.

최복규, 「조선에 도입된 『기효신서』의 판본」, 『한국체육학회지』50-5, 한국체육학회, 2011.

<http://uci.or.kr/G704-000541.2011.50.5.020>

허선도,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역사학보』24, 역사학회, 1964a.

———,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中)”, 『역사학보』25, 역사학회, 1964b.

———,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下)”, 『역사학보』26, 역사학회, 1965.



(Abstract)

A study of the real features for the Gunpowder based weapons systems of 'hwatong' and 'hwapo' at the late period of Goryeo through several operating cases

Oh, Ki-seung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Goryeo dynasty acquired the overall and general techniques for manufacturing gunpowder based weapons systems through the research of Choi Mu-seon(崔茂宣), and used it in the battle against the Waegu(Wokou) which was the Japanese pirates. It is supposed that gunpowder weapons in maritime battles at that time destroyed enemy ships mainly through incineration by flames.

However the research on the gunpowder weapon system at the late period of Goryeo dynasty was insufficient due to lack of data. And for that reason, it is somewhat ambiguous as to what was the main gunpowder weapons that executed role of the incineration. In this study the actual situation and operation pattern their were traced by referring to existing studies and related historical records. And in particular, was paid attention to hwatong(火桶) and hwapo(火砲) that developed by Choi Mu-s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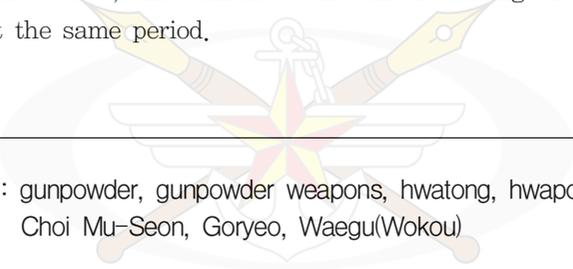
First, some supposing that hwatong was a firing device for projectiles and supposing that it was a thrown weapons and the main weapon for incinerating enemy ship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reviewed several historical sources and concluded that it was a firing device made by metal.

And among the gunpowder weapons developed by Choi Mu-seon, hwapo was thought to the main weapon of incineration of enemy ships. And referring to the historical records of China, it was highly likely that this was a flame-throwing gunpowder weapon. The hwapo that developed by Choi Mu-seon was able to effectively incinerate enemy ships in connection

with the tactics using Geo-chul(拒鐵, large iron pushing rod) and Goo-Chul(拘鐵, large iron hook), and was usefully used effectively in battlefields such as Jinpo(鎭浦) and Gwaneumpo(觀音浦), contributing to the suppression of Waegu(Wokou).

However, it is supposed that the flame-throwing gunpowder weapons were rapidly eliminated due to the problem of high too much gunpowder consumption and some other reasons. And from King Sejong's era, Joseon reorganized its gunpowder weapon system with a focus on firing device made by meta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ind out the actual reality of hwatong and hwapo in the late period of Goryeo dynasty through analysis and review of historical records, and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gunpowder weapons at the same period.



Keywords : gunpowder, gunpowder weapons, hwatong, hwapo,
Choi Mu-Seon, Goryeo, Waegu(Wokou)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81-115
<https://doi.org/10.29212/mh.2023..126.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이종화 | 건양대학교 초빙교수

윤헌식 | 이순신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조선 수군의 규모
3. 명 수군의 규모
4. 맺음말

초 록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명연합수군이 함께 전투에 임했다는 점과 7년 전쟁의 최후 결전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요성에 비해 이 전투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단지 이순신이 전사한 전투이고 일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사실 노량해전의 배경, 전투에 참전한 군사 규모, 전투 경과와 그 의의 등을 다룬 개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전투에 참전한 조선 수군과 명 수군의 규모는 지금까지도 학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그나마 조선 수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명 수군의 규모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는 당시 조선과 명 수군의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제이다. 그 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할수록 조선과 명 수군의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노량해전의 경과와 전쟁의 흐름까지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량해전을 다룬 여러 사료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 전투에 참전한 각국의 수군 규모를 자세히 고찰하려 한다. 특히 새로이 소개되거나 발굴된 사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기존 연구자들이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에 대해 놓친 부분을 밝혀내려 노력하였다.

조선 수군의 규모는, 명량해전 이후 전선 규모의 변화와 사로병진 작전 시기 전선의 손실 그리고 노량해전 직후 남은 전선의 숫자 등을 비교 및 고찰하여 기존 연구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선조실록』, 이순신의 『난중일기』, 조경남의 『난중잡록』, 이원익의 『오리집』, 이항복의 『백사집』, 진경문의 『섬호집』, 일본 측 기록인 『정한록』 등 다양한 사료를 참조하였다.

명 수군의 규모는 중국 측 기록인 『경략어왜주의』, 『양조평양록』, 『경략복국요편』 등을 참조하였으며, 우리나라 기록인 『선조실록』, 이순신의 『난중일기』, 신희의 『상촌집』, 신경의 『재조변방지』 등을 교차 검증하였다.

주제어 : 정유재란, 노량해전, 조명연합수군, 수군 규모, 이순신

(원고투고일 : 2023. 1. 15, 심사수정일 : 2023. 2. 21, 게재확정일 : 2023. 3. 2.)

1. 머리말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로서 조선 수군과 명 수군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노량해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가 연구를 진행하여 전투가 벌어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 등이 상당 부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이 전투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군사 규모는 전략·전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량해전의 수군 규모를 파악하는 문제는 정유재란 시기 조선과 명의 전략·전술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가 노량해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형석의 『임진전란사』는 노량해전의 경과에 대해 전투 상황도와 조·명·일 참전 장수 명단을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조명연합수군의 선박을 약 500척으로 서술하였다.¹⁾ 이 책이 서술한 조·명·일 참전 장수 명단은 현재까지도 종종 관련 연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명기의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은 『명실록』이나 『명사』와 같은 중국 사료를 활용하여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이 참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선박을 약 500척의 함대로 서술하였다.²⁾

1) 이형석, 『임진전란사』, 신현실사, 1974, 1117~1129쪽.

2) 한명기,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군사』 3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99, 35~41쪽/46쪽.

이민웅의 『임진왜란 해전사』는 명량해전 이후 조선 수군의 재건과 조·명 연합함대의 성립 그리고 사로병진 작전 과정을 소개하고 그 연장선에서 노량해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 책은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규모를 전선 80여 척과 병력 10,000여 명으로, 명 수군의 규모를 함선 300여 척과 병력 13,00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³⁾

김경록의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은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 배경과 파병 과정 그리고 지휘 체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사로병진 작전 시기 명 수군의 병력을 13,000명으로 보았다.⁴⁾

제장명의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은 정유재란 시기 조명연합수군의 활동을 종합하여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규모를 판옥선 60여 척과 병력 7,300여 명으로, 명 수군의 규모를 전선 약 400척과 병력 19,400명으로 추정하였다.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규모는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크다. 본 논고의 목적은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규모에 천착하여 기존 연구에서 놓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다.

조선 수군의 전선(판옥선)⁶⁾ 규모는, 명량해전 이후의 전선 건조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전선 손실 그리고 노량해전 이후의

3)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20~277쪽.

4)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논총』 19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3, 17~27쪽.

5)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7~148/168/180쪽.

6) 임진왜란 시기 판옥선(板屋船)은 보통 전선(戰船)으로 불렸다. 이산해(李山海, 1539~1609)의 시문집인 『아계유고(鵝溪遺稿)』 권5의 「차류(差類)」-「진폐자(陳弊劄)」는 ‘전선은 지금의 판옥선을 말한다(所謂戰船者, 今之板屋).’ 라고 기록하였다.

전선 규모 등을 검토하여 추정하였다. 조선 수군의 병력 규모는 참조할 수 있는 사료가 많지 않아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앞에서 추정한 전선 규모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전선 탑승 인원을 활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 장수는 『선조실록』과 『난중일기』 그리고 각종 문집과 선생안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료를 비교·검토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였다.

명 수군의 병력 규모는 중국 사료인 『경략어왜주의』와 『명실록』에 나타난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강하였다. 명 수군의 병선⁷⁾ 규모는 중국 사료인 『경략복국요편』·『경략어왜주의』·『명실록』의 기록을 위주로 임진왜란 시기의 병선 건조, 병선 동원, 탑승 인원 등을 검토하여 추산하였다.

『경략복국요편』이나 『경략어왜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어 본 논고의 저술이 가능하였다. 특히 『경략어왜주의』는 현재 번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번역본이 발간되면 정유재란 시기 조선과 명의 군사 전략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명 수군의 규모에 대한 연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임진왜란 시기 명 수군의 선박은 그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경우 대개 ‘병선(兵船)’으로 통칭하였다. 본 논고도 명 수군의 선박을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조선 수군의 규모

가. 판옥선 규모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주력 전선은 판옥선이다. 판옥선은 16세기 남해안 일대에 출몰하던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전의 주력 전선이었던 맹선(猛船)이 삼포왜란(1510년)과 사랑왜변(1544년) 그리고 을묘왜변(1555년) 때 전투력의 한계를 드러내자, 위기의식을 느낀 조정은 고려시대의 주력 함선인 누선(樓船)을 참고하여 맹선보다 더욱 전투력이 뛰어난 판옥선을 건조하게 되었다.⁸⁾

판옥선은 노량해전 때 조명연합수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량해전에 대한 기록이 적잖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 참전한 판옥선의 규모를 명시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그 규모는 여러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표 1>은 명량해전 이후의 판옥선 규모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명량해전 이후 판옥선 규모

| 사료 | 판옥선 규모 |
|--|--|
| 『사대문궤』 권24, 만력25년(1597년) 11월 14일 문서 | 전라도 나주 발음도9에 병선(兵船) 15척과 병력 2,000여 명이 정박 |
| 『선조실록』 권97, 31년(1598) 2월 22일 정축 4번째 기사 | 전선(戰船) 40척이 건조 완료 |

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판옥선 학술 복원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8쪽.

| | |
|--|--------------------------------------|
| 『사대문궤』 권28, 만력26년(1598년) 8월 7일 문서 | 전선(戰船) 21척이 건조 완료 |
| 이원익, 『오리집』 권2, 「소차」 - 「인견시계사」 (1599년 11월 25일) | 양남과 호서의 선박(船)이 총 70여 척 |
| 『선조실록』 권120, 32년(1599) 12월 8일 계미 4번째 기사 | 전선(戰船) 10척이 연말까지 건조 완료 예정 |
| 『선조실록』 권121, 33년(1600) 1월 29일 갑술 1번째 기사 | 삼도의 판옥선(板屋船)이 총 80여 척 ¹⁰⁾ |
| 『선조실록』 권126, 33년(1600) 6월 15일 병술 2번째 기사 | 삼도의 전선(戰船)이 총 80척 |

1597년 9월 16일 벌어진 명랑해전 때 통제사 이순신 휘하의 조선 수군은 판옥선 13척¹¹⁾으로 일본군 130여 척과 싸워 31척을 격침하였다. 이후 조선 수군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고군산도에서 잠시 머물다가 곧 남하하여 전라도 해남 일대에서 군사 활동을 펼쳤다.¹²⁾ 『사대문궤』 1597년 11월 14일 문서는 당시 조선 수군의 병선 15척이 나주 발음도에 정박했다고 기록하였는데, 고군산도까지 북상했다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판옥선의 숫자가 2척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칠천량해전 직후 조정은 통제사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배설 등으로 하여금 흩어진 병력과 선박을 모아 정비하도록 독촉하는 한편 선박을 다시 추가로 건조하였다.¹³⁾ 『선조실록』 1598년 2월

9)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 1597년 10월 11일은 조선 수군이 발음안편도(發音安便島)에 정박한 일을 기록하였다. 『사대문궤(事大文軌)』에 조선 수군이 정박한 곳으로 기록된 발음도(發音島)는 발음안편도와 같은 곳으로 생각된다.

10) 이항복(李恒福)의 『백사집(白沙集)』 권5의 「차자(劄子)」- 「경자이도체찰사재전라도차(庚子以都體察使在全羅道劄)」(1600년)에 따르면 당시 남방의 조선 수군 선박은 호서(湖西) 10척, 영남(嶺南) 20여 척, 호남(湖南) 40여 척이다.

11) 『선조실록』 권94, 30년(1597) 11월 10일 정유 5번째 기사; 『등당가각서(藤堂家覚書)』. 명랑해전에 참전한 판옥선의 숫자는 『선조실록』에는 '전선 13척(戰船一十三隻)'으로, 『등당가각서』에는 '척의 대장선 13척(番舟の大將分十三艘)'으로 기록되어 있다.

12)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7년 9월 16일~1597년 10월 13일.

13) 『사대문궤(事大文軌)』 권22, 만력25년(1597) 8월 5일 문서, 「開山水兵旣已潰散, 船隻旣已死亡, 雖督令, 新任統制使李舜臣, 慶尙右道水軍節度使裴楔等, 招集潰兵整

22일 기사와 『사대문궤』 1598년 8월 7일 문서에 각각 기록된 전선 40척 건조 완료와 전선 21척 건조 완료는 그 결과이다. 임진왜란 초기 전라좌수영에서 군관을 지낸 나대용은 1606년 조정에 올린 상소에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 이후 간신히 전선 60여 척을 마련하여 삼도의 각처에 나누어 주었지만 …”이라고 서술하였다.¹⁴⁾ 이 상소에 나타난 전선 60여 척은 1598년 새로 건조된 전선 40척과 전선 21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로병진 작전 시기 통제사 이순신 휘하에 있던 조선 수군은 전라좌수군·전라우수군·경상우수군·충청수군이다. 이 시기에 경상좌수군은 경상좌수사 이운룡의 지휘 아래 경상좌도 해안에서 별도로 군사 활동을 하였다.¹⁵⁾ 경상좌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 거의 와해되었다가 1593년부터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조정은 경상좌수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1593년 겨울에 전선 9척(또는 5척)을 건조하였다.¹⁶⁾ 이후 경상좌수군의 전선 규모는 1601년까지 10척 정도에 머무른 채로 큰 변동이 없었다.¹⁷⁾ 경상좌수군의 전선 규모의 변동 상황을 감안하면, 조정이 1598년에 건조한 전선 60여 척은 대부분 전라좌수군·전라우수군·경상우수군·충청수군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로병진 작전 시기 통제사 이순신 휘하 조선 수군의 관옥선은 1597년 말 보유했던 15척에다가 1598년 새로 건조한 60여 척을 더하여 총 75척 내외로 추정된다.

點費船，又多添造船隻，以備天兵協剿之用，而賊情方急禍在焚眉必須”.

14) 『선조실록』 권206, 39년(1606) 12월 24일 무오 3번째 기사, “丁酉更亂之後，戰船艱備之數，通三道六十餘艘，各處分付.”.

15)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군사』 109,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2018, 304~311쪽.

16) 제장명, 위의 논문, 2018, 298~304쪽.

17) 『선조실록』 권135, 34년(1601) 3월 18일 병진 3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42, 34년(1601) 10월 19일 계미 2번째 기사. 앞의 두 기사는 당시 경상좌수군의 전선 규모를 각각 '10척' 과 '10여 척' 으로 기록하였다.

사로병진 작전 시기에 벌어진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 때 통제사 이순신 휘하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일부 손실이 발생하였다. 사로병진 작전 시기 판옥선 손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로병진 작전 시기 판옥선 손실

| 사료 | 판옥선 손실 |
|--|--|
| 진경문, 『섬호집』 권하, 「예교진병일록」 10월 3일 | 왜교성 전투 때 수군(舟師) 3척이 나포됨 |
| 조경남, 『난중잡록』 권3, 1598년 11월 19일 | 노량해전 때 함평의 전함(戰艦)이 불타서 소실됨 |
| 『선조실록』 권109, 31년(1598) 2월 2일 임자 3번째 기사 | 노량해전 때 명 장수 등자룡이 판옥선을 타고 싸우다 전사함 |
| 신흥, 『상촌집』 권56, 「지」-「천조선후출병래원지」 | 노량해전 때 명 장수 등자룡이 탑승한 선박이 불타서 소실됨 |
| 시마즈 히사미치, 『정한록』 권6, 「구오가사부순천선사지사」 | 노량해전 때 조선의 군선(軍艦) 4척과 명의 전함(戰艦) 2척 격침됨 |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은 조·명·일 세 나라의 병력 수만 명이 동원된 커다란 전투였다. 특히 노량해전은, 조·명의 장수 10여 명이 전사하고 일본 선박 200여 척이 격침될 만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표 2>에 열거한 사료 가운데에는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기록도 있지만,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의 전투 규모를 살펴보면 일부 판옥선의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표 2>의 사료에 따르면 왜교성 전투에서는 3척, 노량해전에서는 4~6척의 판옥선 손실이 있었다. 이 손실 규모를 반영하면 노량해전에 참전한 판옥선은 70여 척으로, 노량해전 직후의 판옥선은 60여 척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에 열거한 『오리집』의 1599년 11월 25일 「소차」는 노량해전으로부터 약 1년 뒤인 당시 양남(전라도와 경상도)과 호서(충청도)의 선박(판옥선)을 70여 척으로 기록하였다. 경상좌수군

의 판옥선 규모가 1593년 말부터 1601년까지 약 10척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1599년경 전라좌수군·전라우수군·경상우수군·충청수군 소속 판옥선은 약 60여 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추정한 노량해전 직후의 판옥선 숫자와 부합한다.

나. 병력 규모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병력 규모 또한 판옥선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를 명시한 기록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추정해야 한다.

〈표 1〉에 열거한 『사대문궐』 1597년 11월 14일 문서는 명량해전 이후 전라도 나주 발음도에 정박한 통제사 이순신 휘하 조선 수군의 병선(판옥선)과 병력을 각각 15척과 2,000여 명으로 기록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판옥선 1척의 탑승 인원이 125~140명이므로¹⁸⁾ 『사대문궐』의 문서에 기록된 병선의 숫자와 병력의 숫자는 서로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나주 발음도 정박 이후 통제사 휘하 조선 수군은 1597년 10월 29일 나주 보화도로 진영을 옮겨 통제영을 설치했다가 1598년 2월 17일 다시 강진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겼다. 보화도 통제영과 고금도 통제영 시기 조정과 통제사 이순신 휘하 장수·관리는 조선 수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전선 건조, 병력 모집, 군량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⁹⁾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은 칠천량해전 직후부터 선박을 다시 건조하도록 조치하

18) 김재근, 『속한국선박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101~104쪽; 김병륜, 「판옥선의 승조원 편성에 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2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3, 172~176쪽. 전자는 일반 판옥선 1척의 탑승 인원을 125~130명으로 추산하였으며, 후자는 판옥선 1척에 130~140명 정도가 탑승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례로 보았다.

19)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36~246쪽.

였으므로 보화도와 고금도 통제영 시기 이전에 이미 전력 증강의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징비록』은 조선 수군이 고금도에 나아가 주둔했을 때의 병력이 8,000여 명이라고 기록하였다.²⁰⁾ <표 1>에 열거한 『선조실록』 1598년 2월 22일 기사에 전선 40척이 건조 완료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고금도 통제영 시기의 판옥선은 기존의 15척에다가 40척을 더하여 총 55척에 이른다. 임진왜란 시기 판옥선 1척의 탑승 인원으로 계산해보면 8,000여 명은 판옥선 55척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인원이다. 수군의 병력 운용은 보통 선박의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고금도 통제영 시기의 병력은 새로이 건조된 판옥선의 숫자에 맞추어 모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보화도에서 충분한 수의 판옥선과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통제영을 고금도로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1598년 4월 3일 명 제독 마귀는 선조가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휘하의 병력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선조는 이에 대해 2,000여 명이라고 대답하였다.²¹⁾ 통제영이 고금도로 옮긴 지 이미 1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명량해전 직후의 병력과 비슷한 숫자로 대답한 것이다. 칠천량해전 직전인 1597년 6월경 조정은 명 측에서 조선 수군의 선박, 병력, 군량, 기계 등의 숫자를 문의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제사와 체찰부사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수시로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²²⁾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문의에 대한 선조의 대답은 실제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²³⁾ 1595년 3월 조정은

20) 유성룡(柳成龍), 『징비록(懲毖錄)』 권2, “是時, 李舜臣, 已有軍八千餘人, 進駐古今島, 患乏糧, 作海路通行帖.”.

21) 『선조실록』 권99, 31년(1598) 4월 3일 정사 4번째 기사.

22) 『선조실록』 권89, 30년(1597) 6월 26일 을유 5번째 기사.

명 측에 자문(咨文)을 보내면서 당시 한산도 통제영에 주둔한 전선을 총 60척, 병력을 총 6,838명으로 적었다.²⁴⁾ 통제영의 전선은 이전 해인 1594년 3월경 이미 140여 척에 이르렀으므로²⁵⁾ 조정이 그 자문에 적은 전선과 병력의 숫자는 어떠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조가 마귀에게 대답한 고금도 통제영의 병력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²⁶⁾

『선조실록』 1598년 9월 28일 기사와 1598년 10월 12일 기사는 사로병진 작전에 동원된 통제사 휘하 수군 병력을 각각 7,300여 명과 7,328명으로 기록하였다.²⁷⁾ 『징비록』에 기록된 8,000여 명보다 오히려 병력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앞 절에서 추정된 노량해전 참전 판옥선 70여 척을 운용하기에도 부족하다. 1598년 9월 28일 기사는 명 측에 보내는 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록이고, 1598년 10월 12일 기사는 내용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두 기사에 적힌 병력 또한 마귀의 문의에 대한 선조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의문스럽다.

임진왜란 시기 판옥선 1척의 탑승 인원이 125~14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로병진 작전에 동원된 조선 수군의 병력은 판옥선 70여 척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인 약 1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비록 왜교성 전투 때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²⁸⁾

23) 이민웅, 앞의 책, 2004, 243쪽. 이 책은 명 제독 마귀의 문의에 대한 선조의 대답에 대해 “명량해전 직후 다시 수군을 모집하기 시작한 초기에 보고된 수치였거나, 또는 선조가 우리 수군 세력을 줄여서 답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였다.

24) 『사대문궤(事大文軌)』 권12, 만력23년(1595) 3월 4일 문서.

25) 이민웅, 앞의 책, 2004, 149쪽.

26) 명 제독 마귀에 대한 선조의 대답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과 명이 펼친 외교·군사 전략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본 논고의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함을 밝힌다.

27) 『선조실록』 권104, 31년(1598) 9월 28일 경술 19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05, 31년(1598) 10월 12일 갑자 7번째 기사.

28)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7년 9월 20일 ~ 1597년 10월 9일. 『난중일기』는 왜교성 전투 때 다치거나 전사한 장수의 이름은 기록하였지만, 병

노량해전에 참전한 병력은 이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 참전 장수

이형석의 『임진전란사』는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 장수를 명단으로 정리하였다.²⁹⁾ 아래의 <표 3>은 『선조실록』과 『난중일기』 그리고 각종 문집과 선생안 등 여러 관련 사료를 비교·검토하여 『임진전란사』의 명단을 새로이 보완한 것이다.³⁰⁾

<표 3>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 장수

| 참전 장수 |
|---|
| 녹도만호 송여중(宋汝棕) 1. 강항(姜沆), 『수은집(睡隱集)』 권4, 「묘갈(墓碣)」-「증우윤송공비명(贈右尹宋公碑銘)」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 |
| 발포만호 소계남(蘇季男)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1월 17일 : 일본군의 선박과 군량을 탈취했다고 기록됨 |
| 낙안군수 방덕룡(方德龍) 1. 『선조실록』 권106, 31년(1598) 11월 27일 무신 5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 2.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 |
| 흥양현감 고득장(高得蔣) 1. 『선조실록』 권106, 31년(1598) 11월 27일 무신 5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 2.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이 ‘高德章’으로 오기됨) |
| 군관 송희립(宋希立) 1. 『선조실록』 권109, 32년(1599) 2월 8일 무오 2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 |

력의 손실은 기록하지 않았다.

29) 이형석, 『임진전란사』, 신현실사, 1974, 1117~1118쪽.

30) 윤현식, 『역사자료로 보는 난중일기』, 북랩, 2020, 568~570쪽. 앞의 줄저에 수록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 장수 명단을 작성하였다. 노량해전 참전 여부가 사료에 명시되지 않은 장수는, 관련 사료의 날짜가 노량해전이 일어난 날짜(1598년 11월 19일)로부터 한 달을 넘어가지 않으면 “참전 장수”로, 한 달을 넘어가면 “참전 추정 장수”로 구분하였다.

31) 『선조실록』 권165, 36년(1603) 8월 17일 경자 3번째 기사.

| |
|--|
| <p>군관 이연량(李彦良)</p> <p>1.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랑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
| <p>가리포침사 이영남(李英男)</p> <p>1. 『선조실록』 권106, 31년(1598) 11월 27일 무신 5번째 기사 : 노랑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p> <p>2.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랑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p> |
| <p>미조항침사 김응함(金應緘)</p> <p>1. 『선조실록』 권165, 36년(1603) 8월 17일 경자 3번째 기사 : 노랑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7년과 1598년 명단에 미조항침사의 성명이 김응함으로 기록됨</p> |
| <p>이진관관(성명 미상)</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랑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
| <p>나주목사 남유(南瑜)</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랑해전에서 탄환에 맞았다고 기록됨</p> <p>2. 허목(許穆), 『미수기언별집(肩叟記言別集)』 권23, 「구묘문(丘墓文)」-「의춘군비(宜春君碑)」 : 통제사 이순신 휘하에서 노랑 앞바다의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3. 『나주군읍지(羅州郡邑誌)』, 「선생안(先生案)」 : 노랑해전에서 탄환에 맞아 전사했다고 기록됨</p> <p>4.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나주목사의 성명이 남유로 기록됨</p> |
| <p>해남현감 유형(柳珩)</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고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2.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랑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p> |
| <p>함평현감 송섭(宋涉)</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랑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3, 1598년 11월 19일 : 노랑해전에서 함평의 전함이 적에게 불탔다고 기록됨</p> <p>3. 『함평현읍지(咸平縣邑誌)』, 「읍재선생(邑宰生案)」 : 송섭의 재임이 기록됨</p> <p>4.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함평현감의 성명이 송섭으로 기록됨</p> <p>5. 송이석(宋履錫), 『남촌집(南村集)』 권2, 「잡저(雜著)」-「현감송섭판관송흠이공정포사정도백문(縣監宋涉判官宋滄 二公旌褒事呈道伯文)」 : 노랑해전에서 탄환에 맞아 전사했다고 기록됨</p> |

32) 『선조실록』 권101, 31년(1598) 6월 27일 경진 2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13, 32년(1599) 5월 1일 무신 2번째 기사.

| |
|---|
| <p>무장현감 나덕신(羅德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서우(李瑞雨), 『송파집(松坡集)』 권13, 「묘지(墓誌)」-「행통정대부이산현감나공묘지명(行通政大夫尼山縣監羅公墓誌銘)」 : 이순신 휘하에서 노랑에 참전했다고 기록됨 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무장현감의 성명이 나덕신으로 기록됨 3. 『전선무장지(全鮮茂長誌)』, 「관안(官案)」 : 나덕신의 재임이 기록됨 |
| <p>경상우수사 이순신(李純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22일 계유 1번째 기사 : 노랑해전에서 명 수군의 대장 진린이 판옥선에 탑승하여 전투를 벌인 일을 목격했음을 조정에 보고함 |
| <p>안골포만호 우수(禹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3일 : 왜고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 2.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랑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 |
| <p>옥포만호 이섬(李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대문궐(事大文軌)』 권28, 만력26년(1598년) 8월 16일 문서 : 옥포만호의 성명이 이섬으로 기록됨 2.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랑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 3. 『선조실록』 권123, 33년(1600) 3월16일 기미 2번째 기사 : 옥포만호의 성명이 이섬으로 기록됨 |
| <p>경상우우후 이의득(李義得)</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랑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 2. 통영의 『충렬사지(忠烈祠誌)』, 「절도사명단(節度使名單)」 : 경상우수사 이순신의 우후의 성명이 이의득으로 기록됨 |
| <p>거제현령 김사종(金嗣宗)</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랑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 2. 『거제부읍지(巨濟府邑誌)』, 「환적(宦績)」 : 1598년에 전사했다고 기록됨 3.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거제현령의 성명이 김사종으로 기록됨 |
| <p>당진포만호 조효열(趙孝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1월 17일: 일본군의 선박과 군량을 탈취했다고 기록됨 |
| <p>서천만호(성명 미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랑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 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의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서천권관(舒川權管)의 성명이 조덕린(曹德隣)으로 기록됨 (서천권관이 서천만호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움) |

| |
|---|
| <p>조방장 우치적(禹致績)</p> <p>1.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랑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우치적의 관직이 조방장으로 기록됨</p> |
| <p>만호 권전(權詮)</p> <p>1.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慶尙道)」-「안동(安東)」-「인물(人物)」 : 노랑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p> <p>2. 김약련(金若鍊), 『두암집(斗庵集)』 권9, 「비갈묘지(碑碣墓誌)」-「자헌대부이조판서권공신도비명(資憲大夫吏曹判書權公神道碑銘)」 : 이순신 휘하에서 만호로 순절했다고 기록됨</p> <p>3.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 : 권전의 관직이 만호로 기록됨</p> <p>4. 김헌탁(金獻洛), 『금계지(金溪志)』-「인물(人物)」 : 적량만호로 순절했다고 기록됨 (『금계지』가 19세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권전이 적량의 만호임을 확정하기 어려움)</p> |
| <p>참전 추정 장수</p> |
| <p>보성군수 전백옥(全伯玉)</p> <p>1. 『선조실록』 권102, 31년(1598) 7월 7일 기축 1번째 기사 : 보성군수의 성명이 전백옥으로 기록됨</p> <p>2. 진경문(陳景文), 『섬호집(峽湖集)』 하권,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10월 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한 보성군수의 성명이 김백옥(金伯玉)으로 기록됨(성명이 오기됨)</p> <p>3.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보성군수의 성명이 김백옥(金伯玉)으로 기록됨(성명이 오기됨)</p> |
| <p>진도군수 선의문(宣義問)</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
| <p>강진현감 송상보(宋商甫)</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
| <p>금갑도만호(성명 미상)</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
| <p>회령포만호 위대기(魏大器)</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회령포만호의 성명이 위대기로 기록됨</p> |

| |
|---|
| <p>영등포만호 조계종(趙繼宗)</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경문(陳景文), 『섬호집(剌湖集)』 하권,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10월 3일 : 왜교성 전투에 영등포의 선박이 참전했다고 기록됨 2.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9월 9일 : 영등포만호의 성명이 조계종으로 기록됨 3.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3일 갑진 11번째 기사 : 영등포만호의 성명이 조계종으로 기록됨 |
| <p>당포만호 안이명(安以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10월 13일 : 당포만호의 성명이 안이명으로 기록됨 2.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3일 갑진 11번째 기사 : 당포만호의 성명이 안이명으로 기록됨 |
| <p>조라포만호 정공칭(鄭公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10월 13일 : 조라포만호의 성명이 정공칭으로 기록됨 2.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3일 갑진 11번째 기사 : 조라포만호의 성명이 정공칭으로 기록됨 |
| <p>사랑만호 김성옥(金成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이 '金聲玉'으로 오기됨) |
| <p>제포만호 주의수(朱義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 |
| <p>평산포만호 정응두(丁應斗)</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경문(陳景文), 『섬호집(剌湖集)』 하권,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10월 3일 : 왜교성 전투에 평산포의 선박이 참전했다고 기록됨 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평산포만호의 성명이 정응두로 기록됨 |
| <p>지세포만호(성명 미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 |
| <p>홍주대장 최호(崔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 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홍주대장의 성명이 최호로 기록됨 |
| <p>한산대장 신경윤(申景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 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한산대장의 성명이 신경윤으로 기록됨 |
| <p>삼천포권관 박선춘(朴先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대문궤(事大文軌)』 권28, 만력26년(1598년) 8월 16일 문서 :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기록됨 |

- ※ 김갑도만호의 성명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1597년 10월 13일에 이정표(李廷彪)로 기록되어 있지만, 노량해전 때로부터 약 1년 이전의 기록이므로 위 명단에 ‘성명 미상’으로 서술하였다.
- ※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의 「장졸명단」의 1598년 명단에 기록된 아래의 인물들 또한 노량해전에 참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 | |
|---------------|----------------|
| 우후 이중복(李中復) | 남도포만호 김남걸(金南傑) |
| 장흥부사 이간(李侃) | 법성포만호 윤선각(尹先覺) |
| 영암군수 이종성(李宗誠) | 고부군수 구덕령(具德齡) |
| 옥구현감 권흠(權洽) | |
- ※ 배흥립(裵興立)은 그의 문집인 『동포선생기행록(東圃先生紀行錄)』을 포함한 어떠한 사료에서도 노량해전 참전 기록을 찾기 어렵다.
- ※ 『선조실록』의 기사³¹⁾에 따르면 전라우수사 안위(安衛)는 노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 손기양(孫起陽)의 『오한집(鰲漢集)』 권4의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에 안위가 탄환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왜교성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참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 『선조실록』의 기사³²⁾에 따르면 충청수사 오응태(吳應台)는 노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

〈표 3〉의 장수 가운데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장수는 통제사 이순신, 낙안군수 방덕룡, 홍양현감 고득장, 가리포첨사 이영남, 이진권관, 나주목사 남유, 함평현감 송섭, 경상우우후 이의득, 거제현령 김사종, 서천만호, 만호 권전이다.

3. 명 수군의 규모

가. 병력 규모

1593년부터 명과 일본 사이에서 진행되어왔던 강화 교섭이 몇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1596년에 결렬되었다. 그 결과 강화를 주장하던 명의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이 탄핵을 당했으며, 명의 조정에서는 강화 노선을 반대하는 언론이 조성되었다.

1597년 2월경 결국 명의 만력제는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여 조선으로 파병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³³⁾ 같은 해 6월 명 조정은 파병할 병력에 수군을 포함하기로 하였다가 곧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패배하자 수군의 파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³⁴⁾

명의 군문(軍門)이었던 형개(邢玠)의 『경략어왜주의(經略禦倭奏議)』는 정유재란 시기 명의 수군 전략을 자세히 신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칠천량해전 직후 형개는 명의 현지 병력 상황에 따라 우선 수병 1만 명을 징발하고 이후 추가로 수병 1만 명을 더 징발하도록 만력제에게 상소하였다.³⁵⁾ 이에 따라 명 병부는 1597년 9월까지 절강(浙江)·오송(吳淞)·복건(福建)·남경(南京)·강북(江北)·광둥(廣東)의 수병 21,000명을 징발하였으며, 만력제는 그 병력이 문제없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³⁶⁾ 징발된 수병 21,000명 가운데 10,000명은 조선의 강화(江華) 등의 입구를 방어하고, 5,000명은 전투병으로 배치하고, 3,000명은 여순(旅順)을 방어하고, 3,000명은 천진(天津)을 방어할 계획이었다.³⁷⁾

1597년 10월경 계금(季金)이 이끄는 수병 3,000~3,300명이 명 수군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선에 도착하였다.³⁸⁾ 1598년 1월경에는 수병 10,000명이 여순에 집결하였는데, 그 병력의 일부는

33) 첸상셴(陳尙勝), 「정유재란시 명군의 전략과 조·명연합작전의 변화」, 『韓中日共同研究 정유재란사』, 범우사, 2018, 254~260쪽.

34) 한명기, 앞의 논문, 1999, 37쪽.

35) 첸상셴(陳尙勝), 위의 논문, 2018, 277쪽.

36) 『명실록(明實錄)』-「신종현황제실록(神宗顯皇帝實錄)」 권314, 만력25년(1597) 9월 12일 3번째 기사.

37) 형개(邢玠), 『經略禦倭奏議』 권2, 「守備閩直水兵併募江北沙兵疏」, “故臣謂今日之守, 當先以一萬水兵防朝鮮之江華等口, 以五千作戰兵, 以三千防旅順, 以三千防天津”.

38)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明水將 季金의 군사 행적 고찰전」, 『이순신연구논총』 2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8~10쪽.

여순에 그대로 머물러 산둥(山東)을 지키고 다른 일부는 장산도(長山島)로 나아가 등주(登州)와 래주(萊州)의 입구를 지키며 조선의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였다.³⁹⁾

1598년 초 형개는 만력제에게 조선에 도착한 병사와 아직 도착하지 못한 병사를 통틀어 육군은 70,000여 명, 수군은 20,000여 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를 올렸다.⁴⁰⁾ 『명실록』 1598년 4월 기사에도 일본군을 정벌하기 위한 명의 병력이 모두 수록 90,000여 명이라는 기록이 있다.⁴¹⁾ 『선조실록』 1598년 3월 기사에 실린 명의 경리(經理) 양호(楊鎬)의 자문은 당시 조선에 도착한 명 수군을 총 8,300명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명 수군을 총 12,600명으로 서술하였다.⁴²⁾ 양호의 자문에 서술된 숫자는 모두 20,900명으로서 형개의 상소에 서술된 파병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신흙의 『상촌집』에 실린 정유재란 시기 명 장수의 성명과 휘하 병력은 관련 연구에서 자주 참조되는 기록이다.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저자 신흙 또한 임진왜란 시기 조정에서 요직을 지냈으므로 기록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39) 형개(邢玠), 『경략어왜주의(經畧禦倭奏義)』 권4, 「申飭五鎮沿海春汛疏」; 『명실록(明實錄)』-「신종현황제실록(神宗顯皇帝實錄)」 권318, 만력26년(1598) 1월 9일 5번째 기사, “水路夾攻之舉量撥水兵, 一枝留守旅順山東, 總兵李成勛亦宜統率舟師, 出汛於長山島, 以守登萊之門戶, 備旅順之應援, 而並壯朝鮮之聲勢.”

40) 형개(邢玠), 『경畧禦倭奏義』 권4, 「催發續調兵馬疏」.

41) 『명실록(明實錄)』-「신종현황제실록(神宗顯皇帝實錄)」 권321, 만력26년(1598) 4월 2일 1번째 기사.

42) 『선조실록』 권98, 31년(1598) 3월 29일 갑인 6번째 기사. 이 기사에 실린 명 수군 장수의 성명과 휘하 병력은 진린(陳璘) 5,000명, 계금(季金) 3,300명, 장양상(張良相) 3,000명, 심무(沈茂) 3,100명, 복일승(福日昇) 1,500명, 양천운(梁天胤) 3,000명, 왕원주(王元周) 1,000명, 이원상(李元常) 1,000명이다. 여기에 실린 이원상(李元常)의 이름은 이천상(李天常)의 오기이다. 이 기사는 진린과 계금 두 장수의 휘하 병력을 조선에 도착한 병력으로 서술하였는데, 진린이 실제로 조선에 도착한 시기는 6월경이다.

아래의 <표 4>는 『상촌집』에 실린 명 수군 장수의 성명과 휘하 병력을 정리한 것인데, 그 병력의 합계는 30,290명으로서 형개의 상소나 양호의 자문에 보이는 파병 규모보다 약 1.5배가 많다. 『상촌집』의 기록에 대하여 『임진왜란 해전사』는 명 측이 주장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였거나 명의 파병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⁴³⁾ 『상촌집』에 실린 명 수군 병력은 분명 문제가 많은 기록이지만, 전쟁이 끝난 뒤 조선에 도착한 명 수군 장수의 성명과 휘하 병력을 서술한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파병하기로 계획한 수군 병력 20,000명 가운데 일부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⁴⁴⁾

<표 4> 신흠의 『상촌집』에 실린 명 수군 장수와 휘하 병력

| 관직 / 성명 | 병력 | 비고 |
|---------------------|------------|---------------|
| 좌영도사 진구경(陳九經) | 수병 2,000명 | 노량해전 참전 |
| 좌영지휘중군 심찬(沈璨) | 보병 2,000명 | 진린을 따라 조선에 도착 |
| 표하광동영전총 장여문(張汝文) | 낭토군 4,590명 | 진린을 따라 조선에 도착 |
| 표하유격 왕원주(王元周) | 수병 2,000명 | 노량해전 참전 |
| 흠차비왜부총병 등자룡(鄧子龍) | 수병 3,000명 | 노량해전 전사 |
| 흠차통령광동수병유격장군 심무(沈茂) | 수병 1,000명 | |

43) 이민웅, 앞의 책, 2004, 248~251쪽. 이 책은 제갈원성(諸葛元聲)의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의 기록, 『선조실록』의 기사에 실린 명의 경리(經理) 양호(楊鎬)의 자문(咨文),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의 기록, 『선조실록』의 기사와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의 『행록(行錄)』에 실린 명 장수들 각각의 병력 등을 비교 및 고찰하여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 수군 병력을 13,00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44)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권56, 「천조선후출병래원지(天朝先後出兵來援志)」;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권57, 「천조소사장신선후거래성명 기자임진지경자(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 | | |
|---|-----------|----------------|
| 흠차통령산동직례수병유격장군 복일승(福日昇) | 수병 1,500명 | 노량해전 참전 |
| 흠차통령절직수병유격장군 계금(季金) | 수병 3,200명 | 노량해전 참전 |
| 흠차통령남직수병유격장군 양천윤(梁天胤) | 수병 2,000명 | |
| 흠의천총 이천상(李天常) | 수병 2,700명 | 노량해전 참전 |
| 오종도(吳宗道) | - | 1599년 조선 도착 |
| 흠차통령복건수병어왜유격장군 백사청(白斯淸) | 수병 1,600명 | 1599년 4월 조선 도착 |
| 흠차통령절강수병어왜유격장군 장양상(張良相) | 수병 1,500명 | 1599년 조선 도착 |
| 흠차통령남병유격장군 만방부(萬邦孚) | 수병 2,200명 | 1599년 4월 조선 도착 |
| 천진독부표하중군수비 이응창(李應昌) | 수병 1,000명 | 1599년 조선 도착 |
| ※ 신경의 『재조변방지』 권6에 따르면 오종도, 백사청, 장양상, 만방부, 이응창은 수병을 거느린 장수로서 1599년 7월경 조선의 요충지에 나누어 주둔하였다. 『재조변방지』에 기록된 이응창의 관직은 유격장군이고 휘하 병력은 2,000명이다. | | |

중국 사료인 『양조평양록』은 전쟁 직후인 1606년경 편찬된 책으로서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을 13,000여 명으로 기록하고 명 수군 장수 명단을 첨부하였다.⁴⁵⁾ 신경의 『재조변방지』와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은 명 수군 병력을 『양조평양록』과 비슷한 13,200명으로 기록하였다.⁴⁶⁾ 일본 사료인 『정한록』은 조명연합수군의 병력을 13,000여 명으로 기록하였는데, 함께 기록한 명 수군 장수 명단이 『양조평양록』의 해당 명단과 일치한다.⁴⁷⁾ 즉, 후대의 조선과 일본 학자들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

45) 제갈원성(諸葛元聲),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 제4권, 「일본하(日本下)」。『양조평양록』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장수를 진린(陳璘), 등자룡(鄧子龍), 마문환(馬文煥), 계금(季金), 장양상(張良相) 등으로 기록하였다. 장양상은 전쟁 이후인 1599년 조선에 입국한 사실이 『선조실록』 기사에서 확인되므로 『양조평양록』의 명 수군 장수 명단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6) 신경(申珉),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권5; 이공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7권, 「선조조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수륙동정왜적철환(水陸東征倭賊撤還)」.

47) 시마즈 히사미치(島津久通), 『정한록(征韓錄)』 권6, 「구오가사부순천선사지사(救五家事附順天船師之事)」.

군 병력에 대하여 대체로 『양조평양록』의 기록을 수용하고 있다. 참고로 『임진전란사』는 『재조변방지』에 기록된 명 수군 병력과 명 수군 장수 명단을 그대로 참조하였으며, 일본 연구서인 『일본전사 조선역』과 『조선역수군사』는 명 수군 병력을 『재조변방지』나 『연려실기술』의 기록과 같은 13,200명으로 서술하였다.⁴⁸⁾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장수 가운데 휘하 병력의 숫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수는 진린과 계금이다. 진린은 『명실록』 기사에 광동영병(廣東營兵) 5,000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⁹⁾ 『선조실록』의 기사에 실린 명의 경리 양호의 자문도 진린의 병력을 광동병(廣東兵) 5,000명으로 기록하였다.⁵⁰⁾ 이외에 『이충무공전서』, 이항복의 『백사집』, 김육의 『잠곡유고』 등도 진린의 병력을 5,000명으로 기록하였다.⁵¹⁾ 『선조실록』의 기사에는 진린이 병력 9,000여 명을 이끌고 요동에 이르렀다고 서술한 기록도 있지만, 앞의 여러 기록과 비교해보면 과장된 숫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⁵²⁾ 진린은 1598년 6월경 조선에 도착하여 선조의 환대를 받은 다음 조선 수군과 합류하기 위해 남해안으로 내려갔다.⁵³⁾ 계금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수병 3,000~3,300명을 이끌고 1597년 10월경 조선에 도착하였다. 계금의 파병 소식은 1597년 3월 일찍이 조선 조정에

48) 이형석, <부표 제26> 「제3차 동정군전투서열(東征軍戰鬪序列)」, 앞의 책, 1974, 1716쪽; 參謀本部, 「본편(本編)」, 『日本戰史朝鮮役』, 偕行社, 1924, 395쪽;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272쪽.

49) 『명실록(明實錄)』-「신종현황제실록(神宗顯皇帝實錄)」 권314, 만력25년(1597) 9월 9일 2번째 기사.

50) 『선조실록』 권98, 31년(1598) 3월 29일 갑인 6번째 기사.

51) 『이충무공전서』, 「행록(行錄)」;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권4, 「유사(遺事)」-「고통제사이공유사(故統制使李公遺事)」; 김육(金堉), 『잠곡유고(潛谷遺稿)』 권13, 「신도비명(神道碑銘)」-「이통제충무공신도비명(李統制忠武公神道碑銘)」.

52) 『선조실록』 권100, 31년(1598) 5월 16일 경자 3번째 기사.

53) 『선조실록』 권101, 31년(1598) 6월 12일 을축 3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01, 31년(1598) 6월 26일 기묘 1번째 기사.

알려졌다. 계금은 절강 출신으로서 휘하 부장과 병력 또한 주로 절강과 남직례(南直隸) 사람으로 구성되었다.⁵⁴⁾ 1597년 9월경 형개는 만력제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절강의 수병 3,000명이 여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하였는데, 정황으로 보아 계금의 병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양조평양록』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에 대해 제독 진린이 본래 거느렸던 육병 5,000명과 수병 3,000명을 포함하여 총 13,000여 명이라고 기록하였다.⁵⁶⁾ 진린이 본래 육병 5,000명과 수병 3,000명을 거느렸다는 내용은 일부 오류인 듯하고, 그 병력의 숫자로 미루어 보아 조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진린과 계금 각각의 병력 5,000명과 3,000명을 묶어서 진린의 본래 병력이라고 기록한 것 같다. 『양조평양록』에 유격 계금이 수병 3,300명을 거느리고 수군절도사 이순신과 합류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⁵⁷⁾

명 수군 장수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은 왜교성 전투 때인 1598년 9월 30일 휘하 병력을 이끌고 왜교성 앞바다에 이르러 진린과 계금의 병력에 합류하였다.⁵⁸⁾ 사로병진 작전 시기에 동원된 명 수군은 이때 병력이 모두 한곳에 집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조평양록』에 기록된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 13,000여 명에서 진린의 병력 5,000명과 계금의 병력 3,000명

54)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明 水將 季金の 군사 행적 고찰전」, 『이순신연구논총』 2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7-11쪽.

55) 형개(邢珪), 『경략어왜주의(經畧禦倭奏義)』 권2, 「守備閩直水兵併募江北沙兵疏」.

56) 제갈원성(諸葛元聲),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 권4, 「일본하(日本下)」, “陳璘仕水路提督, 率其原帶陸兵五千水兵三千, 專管海上防倭, 而副總兵陳蠶鄧子龍遊擊馬文煥季金張良相等皆屬之, 共兵一萬三千餘名.”.

57) 제갈원성(諸葛元聲),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 권4, 「일본하(日本下)」, “今水兵止三千三百名, 孤弱難倚, 總督不得已令, 水兵遊擊季金, 統率仍同朝鮮官李仁前, 去與水軍節度使李舜臣, 合營.”.

58)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8년 9월 30일.

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약 5,000명이다. 『상촌집』에 기록된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의 병력은 총 6,200명으로서 5,000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촌집』에 실린 명 수군 병력에 과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양조평양록』에 기록된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 13,000여 명은 사실에 가까운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병력은 왜교성 전투를 치르면서 일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⁵⁹⁾ 노량해전에는 13,000명 내외의 병력이 참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촌집』과 『재조변방지』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뒤 조선에 도착한 명 수군 병력은 총 8,300명이다. 이 병력에다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 13,000여 명을 합하면 21,300여 명에 이른다. 흥미롭게도 이 숫자는 본래 명에서 파병하기로 계획한 수군 병력 21,000명과 거의 일치한다. 『상촌집』과 『재조변방지』가 전쟁 이후 조선에 도착한 명 수군 병력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조실록』의 1598년 10월 기사는 당시 명 수군 병력을 19,400명으로 기록하였는데, 『상촌집』의 일부 기록과 마찬가지로 과장되었거나 아직 조선에 도착하지 않은 병력까지 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⁶⁰⁾

59) 『선조실록』 권105, 31년(1598) 10월 24일 병자 2번째 기사;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3, 1598년 10월 3~4일; 진경문(陳景文), 『섬호집(嶼湖集)』 권하,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10월 3일. 왜교성 전투 때 발생한 명 수군 병력의 사상자는 기록에 따라 그 숫자가 다르다.

60) 『선조실록』 권105, 31년(1598) 10월 12일 갑자 7번째 기사.

나. 병선 규모

1592년 9월경 명의 병부시랑(兵部侍郎) 송응창(宋應昌)은 일본군이 명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목적으로 만력제에게 병력 모집, 병선 건조, 수군 매복 장소 선별, 해전용 무기 조달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상소를 올렸다.⁶¹⁾ 이에 따라 명의 병부는 많은 수의 병력과 병선을 징발하여 천진으로 집결시키고 추가로 새 병선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징발된 병선은 절강(浙江)의 사선(沙船) 20척, 절강의 호선(唬船) 60척, 남직(南直)의 사선 20척, 남직의 호선 40척이다. 그리고 새로이 건조하기로 한 병선은 복선(福船) 20척, 창선(倉船) 80척 또는 100척, 사선 50~60척, 팔장(八槳)·오장(五槳)·팔라호(叭喇唬) 30~40척이다. 이때 병선 1척의 탑승 인원은 복선 80명, 창선 40명, 사선·호선·팔장선 20명 또는 15~16명으로 산정되었다. 징발된 병력은 절강의 사선·호선 80척에 탑승한 인원 약 1,500명, 남직의 사선·호선 60척에 탑승한 인원 약 900명, 사병(沙兵) 7,000명, 복건병(福建兵) 3,000명, 새로 건조될 복선·창선·사선·호선·팔장선 등에 탑승할 인원 5,400명이다.⁶²⁾

임진왜란 초기 송응창의 상소에 따라 징발하거나 건조된 병선은 총 320~360척이며, 병력은 병선의 규모에 맞추어 약 17,800명이 징발되었다. 이때 추진된 병선 계획이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병선 규모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병선의 종류와 운용은 참고할만한 점이 있다.

송응창의 상소에 나타난 병선 계획을 살펴보면 명 수군의 병선 가운데 사선·호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유재란

61) 첸상셴(陳尙勝), 앞의 논문, 2018, 279쪽.

62) 구범진·김슬기·김창수·박민수·서은혜·이재경·정동훈·薛戈, 『명나라의 임진전쟁:송응창의 《경략북국요편》역주』 1, 국립진주박물관, 2020, 322~333쪽.

시기에도 사선·호선은 명 수군의 주요 병선으로 운용되었다. 『선조실록』의 기사는 왜교성 전투 때 손실된 명 수군의 병선 23척 가운데 큰 병선 2척은 각각 100여 명을 실었고 나머지 작은 병선 21척은 각각 30여 명 또는 40여 명의 병력을 실었다고 기록하였다.⁶³⁾ 그 탑승 인원을 통해 큰 병선은 복선이고 작은 병선은 창선·사선·호선 등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난중일기』는 이때 손실된 명 수군의 병선이 사선 19척과 호선 20여 척이라고 기록하였다.⁶⁴⁾ 비록 『선조실록』과 『난중일기』의 기록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명 수군의 주력 병선이 사선·호선이라는 사실만은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그림 1〉 『무비지』의 사선



* 출처: 『속한국선박사연구』

〈그림 2〉 『무비지』의 팔라호선



* 출처: 『속한국선박사연구』

63) 『선조실록』 권105, 31년(1598) 10월 24일 병자 2번째 기사.

64)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8년 10월 3일. 이날 일기는 왜교성 전투에서 손실된 명 수군의 병선을 사선(沙船) 19척, 호선(唬船) 20여 척으로 기록하였다. 비록 손실된 병선의 숫자는 『선조실록』 기사와 다르지만, 병선의 종류를 명확히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선조실록』에 기록된 왜교성 전투 때의 사선·호선 1척의 탑승 인원은 임진왜란 초기 송응창의 상소에서 산정된 사선·호선 1척의 탑승 인원보다 더 많은 30~40여 명이다. 『경략어왜주의』에는 1592년경 사선 50척과 사병(沙兵) 1,700여 명을 모아 천진으로 지원을 나간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1척의 탑승 인원을 계산해보면 34명이다.⁶⁵⁾ 『선조실록』과 『경략어왜주의』의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시기 사선·호선 1척의 탑승 인원은 30~40여 명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사선은 중국 강소와 절강 지방에서 발달하여 양자강 이북에서 널리 사용된 선박이다. 본래 조운선(漕運船)으로 개발되었으나 나중에는 병선으로도 사용되었다. 크기는 명 시대를 기준으로 대형·중형·소형 등으로 다양하며, 길이는 크기에 따라 각각 100척·70척·50척·30척 등이다. 보통 대형 사선은 돛만 사용하고 소형일수록 노를 많이 두었다.⁶⁶⁾

호선은 팔라호선으로도 불리며 중국 명·청 시대에 절강과 복건 지방에서 사용된 비교적 작은 병선으로서 길이는 40척, 너비는 10척 정도이다. 돛과 노로 운행하며 속력이 빨라서 연해를 정탐하거나 적선을 쫓기에 편리하므로 16세기 명의 척계광(戚繼光)이 왜구를 토벌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⁶⁷⁾

『경략어왜주의』에 따르면 1598년 1월경 수병 10,000명이 여순에 집결할 때 사선·호선 등의 병선 280척이 동원되었다.⁶⁸⁾

65) 형개(邢玠), 『經畧禦倭奏義』 권2, 「守催閩直水兵併募江北沙兵疏」.

66) 김재근, 앞의 책, 1994, 133~138쪽. 이 책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으로 파견된 사선을 조선 남해안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50~70척 크기의 중형 사선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송응창의 병선 계획과 『선조실록』·『경략어왜주의』에 기록된 탑승 인원을 살펴보면 중형보다는 소형에 가까웠던 것 같다.

67) 김재근, 앞의 책, 1994, 138~140쪽.

68) 형개(邢玠), 『經畧禦倭奏義』 권4, 「申飭五鎮沿海春汛疏」, “水兵一萬, 沙唬等船二百八十隻, 周于德移駐旅順”.

병선의 종류가 사선·호선만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선 1척의 평균 탑승 인원이 약 35명이므로 병선 대부분이 사선·호선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순에 집결한 수병과 병선은 조선 파병 계획에 따라 동원된 수군으로서 사로병진 작전 시기 명 수군의 상당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의 병선 규모도 대략 추정이 가능하다. 진린과 계금의 휘하 병력이 총 8,000여 명이었으므로 두 장수의 병선은 280척의 약 80%인 220여 척 정도로 추산해볼 수 있다.

왜교성 전투 때인 1598년 9월 30일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이 이끌고 온 병선은 130척이다.⁶⁹⁾ 앞 절에서 파악한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의 병력이 5,000명에 가까운 규모이므로 이들의 병선 1척의 평균 탑승 인원은 대략 38명이다. 이는 1598년 1월경 여순에 집결한 병선 280척의 평균 탑승 인원과도 거의 부합한다.

진린·계금의 병선 220여 척과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의 병선 130척을 더하면 350여 척이다. 여기에 왜교성 전투 때 발생한 병선의 손실 23척 또는 39척을 적용하면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 수군의 병선은 대략 300여 척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는 1598년 6월경 진린이 병선 50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로 갔다고 기록하였다.⁷⁰⁾ 진린은 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으로 왔으므로 500여 척을 이끌었다는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는 지나친 과장이다. 일본 연구서인 『일본전사조선역』 또한 사로병진 작전 시기 조명연합수군의 선박을 약 500척으로 과도하게 서술하였다.⁷¹⁾

69)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8년 9월 30일; 진경문(陳景文), 『섬호집(剌湖集)』 권하,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9월 30일. 『난중일기』는 이날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이 100여 척의 선박을 이끌고 왔다고 기록하였으며, 『섬호집』은 이날 명 수군 130척이 적의 성 머리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다.

70) 『선조수정실록』 권32, 31년(1598) 6월 1일 갑인 6번째 기사.

71) 參謀本部, 앞의 책, 1924, 416쪽.

4. 맺음말

지금까지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규모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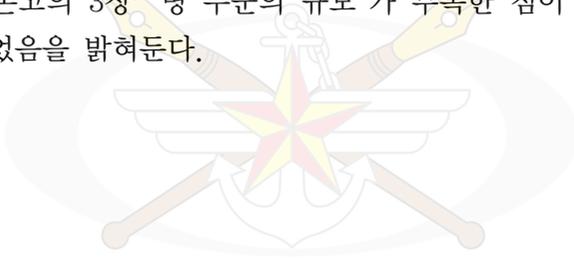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70여 척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조선의 삼도 수군 판옥선 80여 척 가운데 경상좌수영의 10여 척을 제외한 규모이다. 조선 수군의 병력은 판옥선 70여 척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인 약 10,000명으로 추정된다. 『임진전란사』의 조선 수군 장수 명단은 현재까지도 종종 관련 연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명단을 여러 관련 사료와 비교·검토하여 새로이 보완하였다.

정유재란 시기 명에서 파병하기로 계획된 수군 병력은 총 20,000여 명으로서 그 일부는 전쟁이 끝난 1599년경 조선에 도착하였다. 『양조평양록』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을 13,000여 명으로 기록하였는데, 여러 사료와 연구 자료를 비교·검토해보면 사실에 가까운 숫자로 생각된다. 이 명 수군은 대략 진린의 병력 5,000명과 계금의 병력 3,000명 그리고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의 병력 5,000명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왜교성 전투 때 발생한 사상자를 제외한 13,000명 내외의 병력이 노량해전에 참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주력 병선은 사선·호선으로서 1척의 탑승 인원은 보통 30~40여 명이였다. 1598년 1월경 명 수군의 병력 10,000명이 여순에 집결할 때 사선·호선 등의 병선 280척이 동원되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왜교성 전투 때의 병선

규모와 손실을 함께 계산해보면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 수군의 병선은 대략 300여 척으로 추정된다.

정유재란 시기 조명연합수군의 규모는 두 나라의 수군 전략에 대한 연구 성과와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필자는 그 연구가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본 논고를 쓰기 시작하였지만, 곧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중국 사료인 『경략어왜주의』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정유재란 시기 명의 수군 전략이 아직 규명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군사 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아쉽게도 본 논고의 3장 “명 수군의 규모”가 부족한 점이 많은 채로 마무리되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1. 사료

『巨濟府邑誌』 『羅州郡邑誌』 『亂中日記』 『亂中雜錄』 『明實錄』
『眉叟記言別集』 『白沙集』 『象村集』 『事大文軌』 『宣武原從功臣錄券』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剡湖集』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梧里集』 『李忠武公全書』 『全鮮茂長誌』 『再造藩邦志』 『懲毖錄』
『忠烈祠誌』 『忠武公遺事』 『咸平縣邑誌』 『經畧禦倭奏義』
『藤堂家覺書』 『征韓錄』 『兩朝平攘錄』

2. 단행본

구범진·김슬기·김창수·박민수·서은혜·이재경·정동훈·薛戈, 『명나라의
임진전쟁: 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 역주』 1, 진주: 국립진
주박물관, 2020,

<http://uci.or.kr//G901:A-0010827172@N2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판옥선 학술 복원 보고서』, 목포: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 2022,

<http://uci.or.kr//G901:A-0010636920@N2M>

김재근, 『속한국선박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윤현식, 『역사자료로 보는 난중일기』, 서울: 북랩, 2020,

<http://uci.or.kr//G701:D-00122063861@N2M>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http://uci.or.kr//G701:B-00118427028@N2M>

이형석, 『임진전란사』, 서울: 신현실사, 1974

조원래·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첸상셴(陳尙勝) 외, 『韓中日共同研
究 정유재란사』, 파주: 범우사, 2018,

<http://uci.or.kr//G901:A-0009277989@N2M>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參謀本部, 『日本戰史朝鮮役』, 偕行社, 1924

3. 논문

-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논총』1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2013):1-29,
<http://uci.or.kr//G901:A-0003515109@N2M>
- 김경태, “일본군 기록으로 본 순천 왜교성 전투 -『宇都宮高麗歸陣物語』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삼국의 사료를 통해 본 임진왜란』,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2022):85-128
- 김병륜, “판옥선의 승조원 편성에 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2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2013):169-217,
<http://uci.or.kr//G901:A-0003387181@N2M>
-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明 水將 季金の 군사 행적 고찰전”, 『이순신연구논총』2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2014):1-35,
<http://uci.or.kr//G901:A-0003586568@N2M>
-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군사』109호 (2018):281-320,
<http://doi.org/10.29212/mh.2018..109.281>
-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http://uci.or.kr//G701:B-00093063403@N2M>
- 한명기,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군사』38호(1999):33-55,
<http://uci.or.kr//G901:A-0001362575@N2M>

(Abstract)

A study on the Scale of Combined Naval Forces of Joseon and Ming in the Battle of Noryang

Lee, Jong-hwa

Yoon, Hun-sik

The Noryang(노량) Maritime Battle ha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significance whole throughout the Imjin War.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was the battle of the Joseon-Ming Combined Fleet fighting together and also the final battle of the seven years of Imjin war against Japanese invasive forces. However the general level of historical understanding for this sea battle is not very high compared to its importance.

It was simply recognized as a battle in which Yi Sun-shin(이순신) died, and the Japanese troops returned back to their country and finally the Imjin War was over. In fact, not enough individual studies dealing with the background of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the combat power of friend or foe's participation in the battle, the course of the battle, and its historical importance.

Many researchers still have slightly different views on the size of the Joseon and the Ming naval forces that participated in the sea battle of Noryang.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the size of the Joseon naval forces has been grasped to some extent however the size that of the Ming naval forces remains controversial.

The size of the Joseon-Ming Combined Fleet at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is an important topic to understand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Joseon and Ming naval forces at that time. The more accurately we can grasp the size, the better we can understand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Joseon and Ming naval forces, and the better we can read the course of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and the war status and process of Imjin War.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size of the Joseon and the Ming

naval forces that participated in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in detail by reviewing some historical literature and various research data dealing with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In particular, by researching newly introduced or excavated historical materials in detail, this study tried to clarify what existing researchers missed about the size of the Joseon-Ming Combined Fleet at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The size of Joseon naval forces was estimated in more detail than previous studies by comparing and examining changes in the size of the front line battleships after the Myeongnyang(명량) Sea Battle, the loss of the front line battleships during the SaroByeongjin Operation(Four Way Breakthrough Operation 사로병진 작전) and the number of remaining front line battleships after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To this end, this study referred to various historical sources such as 『Annals of King Seonjo(선조실록)』, Yi Sun-shin(이순신)'s war diary 『Nanjung Ilgi(난중일기)』, Cho Kyung-nam(조경남)'s 『Nanjung Japrok(난중잡록)』, Lee Won-ik(이원익)'s 『Orijiip(오리집)』, Lee Hang-bok(이항복)'s 『Baeksajip(백사집)』, Jin Kyung-moon(진경문)'s 『Seomhojip(섬호집)』, a Japanese record 『Jeonghanrok(정한록)』.

The size of Ming naval forces was referred to records of Ming dynasty such as 『Gyungryagoejui(경략어왜주의)』, 『Yangjiopyongyangrok(양조평양록)』, 『Gyungryagbokgukyopyon(경략북국요편)』 and also the records of Joseon dynasty such as 『Annals of King Seonjo(선조실록)』, Yi Sun-shin(이순신)'s 『Nanjung Ilgi(난중일기)』, Sin Heum(신흠)'s 『Sangchonjip(상촌집)』, Shin Gyung(신경)'s 『Jaejobunbangji(재조변방지)』 were cross-verified.

Keywords : Jungyujaeran, The Battle of Noryang, Combined Naval Forces, The size of the naval forces, Yi Sun-shi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117-173
<https://doi.org/10.29212/mh.2023..126.1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적극방어 교리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 미육군 FM 100-5 작전 교범 1976년판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박솔규 | (주)한화방산 보은사업장

- 목 차
1. 서론
 2. 교범작성의 배경
 3. 교범작성 초기과정
 4. 교범작성과정 중 반발
 5. 교범의 완성과 논란
 6. 결 론

초 록 이 논문은 베트남전을 종식하고 대분란전에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관심과 교리가 변화하던 1970년대의 격렬한 교리변화의 중심점인 '적극방어'교리의 작성과정을 통해 적극방어 교리의 본질을 연구한다.

1970년대 미육군은 베트남전 후 10여년 간 정체상태였으나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은 현대화로 양과 질 모두 주유럽미군과 NATO

동맹국을 압도한다. 하지만 베트남전 이후 미육군은 반군감정, 예산의 감축,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등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73년 발발한 4차 중동전으로 현대전의 치명성이 미육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해 창설된 미육군 훈련·교리사령부의 초대사령관인 윌리엄 E. 드퓨이 장군은 그의 전술관을 강하게 반영한 유럽중심의 대규모 전면전 교리의 개발을 시작했다.

육군참모총장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드퓨이는 그의 지지자인 폴 F. 고먼 장군과 돈 A. 스테리 장군의 협업으로 적극방어 교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존 보병병과와 야전부대 등에서 많은 반발을 보였다. 드퓨이는 교리작성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미육군 전력사령부(FORSCOM)와 공동으로 옥토펬스트 컨퍼런스를 주최하였고, 독일 육군 및 미공군 전술항공사령부(TAC)와 교리작성 협업을 하여 교리적 합의라는 정치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리개발을 통해 최종적으로 FM 100-5 작전 1976년판의 작성을 진행하자 드퓨이는 예하 병과학교, 교리센터들과 작성과 전술관에 차이로 진통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드퓨이의 강한 추진력으로 교범은 결국 작성되었고, 재차 전력사령부(FORSCOM)와 공동으로 오프트론 컨퍼런스를 주최하여 적극방어 교리를 승인받는다.

교범이 출판되고 배부된 후 육군 내외적으로 전통적인 공세주도, 주도성(initiative)을 중시하는 미육군의 군사사상, 전통보병교리와 충돌하고 많은 반발에 직면한다. 논란의 중심점인 적극방어 교리는 결국 5년뒤 ‘공지전투’교리로 대체되게 된다.

주제어 : 적극방어, 미육군, 교리, 작전, 공지전투, 전면전, 제병협동, 드퓨이, 스테리, 전술

1. 서 론

미육군은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경된 교리를 사용해왔으며, 조직구조와 실천 측면에서 미육군에 영향을 미쳐왔다.¹⁾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육군의 교리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0년대부터 공지전투가 제시된 1980년대까지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전술 교리의 급격한 변화는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1970년대 초에 일어났다. 이는 육군이 교리의 초점을 재래식, 핵, 대분란전, 재래식 작전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또한 교리의 변화는 안보환경 변화 외에도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였다.²⁾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한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대전말기 발전한 폭격기 및 핵무기 등에 의존하여 대규모 전략폭격, 장거리미사일, 핵 및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 전략무기 중심으로 교리를 전환하였고, 본격적으로 1950년대부터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여 핵무기 공격과 방어에 맞게 부대구성을 5각편제(Pentomic Organization)로 변경한 펜토믹 시대(Pentomic Era)를 열었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케네디 행정부는 전략적 핵전쟁의 문제를 다른 모든 종류의 전쟁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했고, 육군은 5각편제의 단점³⁾을 인식하고 재편제목표육군사단(Reorganization Objectives

1) Erick M. Nyngi, *Complexity and Design Leadership: The Design of Active Defense and AirLand Battle Doctrines*,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19), p. 5.

2) Robert A. Doughty,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79), pp.1~2.

Army Division, ROAD) 연구를 거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기갑 사단과 전투 사령부의 논리적 기반을 배경으로 재래전으로 전환하였다. 미군은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공산주의 반군과의 전투에 관련한 대비로 대분란전(counter-insurgency) 교리를 발전시켰고, 베트남전의 확전으로 인해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⁴⁾ 국방장관 주도로 정보병과 항공수송(air-mobile)이 주도하는 교리가 중심이 되었다. 1970년대 초 베트남에서 철수 후 미군은 다시 유럽에서의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재래전 중심으로 교리를 전환하게 되었다.⁵⁾

미육군은 미국 대중의 극렬한 반군감정과 함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수십만의 감군,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양적·질적 상승 등으로 인한 미국 내·외부에서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73년에 창설된 미육군 훈련·교리사령부(TRADO C)⁶⁾의 초대사령관인 윌리엄 드퓨이(William E. DePuy) 장군⁷⁾은

3) 당시 육군참모총장 조지 데커(George H. Decker)에게 “전투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술핵무기가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케네디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공식 폐기된 후 이전의 전통적인 사단개념과 유사한 ROAD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병구, 『미국의 제1차 상쇄전략과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펜토믹 사단 개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권2호(2021), p. 213.

4) 존 F. 케네디에게 국방장관으로 지명되어 1961년부터 1968년까지 7년간 장관을 역임하며, 국방부의 유연반응전략과 비용효율화를 중점으로 개혁적인 성과를 내었다.

5) Doughty, *Ibid*, pp. 2~41.

6) 북미대륙에 주둔한 모든 미육군부대의 사령부인 대륙군 사령부(U.S. Continental Army Command, CONARC)를 전력사령부(U.S. Army Forces Command, FORSCOM)와 훈련·교리사령부(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두 개의 사령부로 분리하여 1973년 7월 1일에 창설되었다.

7) 1919년에 출생하여 1941년 사우스다코다 주립대 학군단(ROTC)에서 보병장교로 임관한 드퓨이는 당시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많은 장교들과 유사하게 임관전 학군단과 주방위군 병사 근무를 병행하였으며, 소위로 임관시에는 제20보병연대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2세에 중위로 진급, 새로 창설된 제90보병사단으로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1944년 6월, 노르망디에 상륙하였고, 소령으로 진급한 후 유타해변전투와 발지전투에 참전하였으며, 3개의 은성무공훈장(Silver Stars)과 수훈십자장

미육군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교리개발에 착수하였고, 1976년 미육군 교리사에 가장 혁신적이라 평가받는 1976년판 야전교범(FM) 100-5 작전(Operations)⁸⁾을 발간하였으며 그 교리는 별칭 ‘적극방어(Active Defense)’로 알려졌다.⁹⁾

미군 교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군내 교리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민간학계에서도 적잖은 수가 진행되었지만 ‘적극방어’교리에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공지전투¹⁰⁾ 교리와 최근의 다영역작전¹¹⁾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인데 반

(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수여받았다. 1945년 대대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맞은 25세의 드퓨이는 다리부상으로 한국전쟁은 참전하지 못했지만 CIA에서 대중국 공작작전에 근무하였고, 1950년대에는 제4보병사단 8보병연대 2대대장으로 1960년대 초에는 제3보병사단 30보병연대 연대장으로 유럽에서 3차례 근무했고, 베트남에서 군사지원사령부(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MACV)의 작전참모(J3)와 제1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베트남전을 경험했다. 이후 대분란전 및 특수전담당 특별보좌관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는 참모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대장으로 진급하여, 새로 창설된 TRADOC의 신입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 8) *FM 100-5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1976). 미 FM 100-5 Operations은 한국에서 ‘작전요무령’으로 번역되어 운용이 되었다. 당시 한국군은 해당 교범과 동격의 야전교범 100-5를 ‘작전요무령’으로, 1999년도에 ‘지상작전’으로, 2005년도부터는 ‘지상군기본교리’로 변경하였으며, 현재에는 ‘지상군기본교리’로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당시 번역과는 별도로 원작의 문구를 직역하여 ‘작전’으로 표기한다.
- 9) 미육군 교범의 기원은 거의 20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폰 슈토이벤(General Friedrich Wilhelm von Steuben) 소장의 1779 Regulations for the Order and Discipline of the Troops of the United States 또는 Blue Book을 교범의 기원으로 본다. 근대에서 미군의 기준교범(Capstones Manual)인 FM 100-5 교범의 기원을 찾는다면 1905년에 발간된 FSR 1905(야전근무규정, Field Service Regulations)으로 출발하여, 1939년 FM 100-5 체계를 거쳐 현재의 ADP 3-0(통합 지상작전, Unified Land Operations, 2019년판)으로 부분 개정판을 제외하고 23회 출판되었다. *List of United States Army Field Manual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States_Army_Field_Manuals
- 10) 김영환, 「미국 기동전 사상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軍史』, 第123號(2022) ; 장재규,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방안 연구 : 공지전투와 비교, 『韓國軍事學論集』, 第77輯 第3卷(2021) ; 조상태, 「미 육군의 FM 100-5에 있어서의 공지전, 『國防과 技術

하여, 적극방어 교리에 관련한 연구는 공지전투의 전반 배경¹²⁾이나 미군 전략 및 교리사 전반의 일환¹³⁾으로 설명되거나 또는 신문기사¹⁴⁾, 장군열전¹⁵⁾ 등으로 저자인 드푸이 장군이나 FM 100-5 작전

(Defense and Technology)』(1985) ;

- 11) 김재엽,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 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韓國軍事學論集』, 第75輯 第1卷(2019) ; 장재규, 상계서 ; 허광환, 「미국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군사연구』, 제147집(2019). ; 주정울,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구: 작전수행과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통권 127호(2020). ; 지효근,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통권76호(2019).
- 12) 김영환, 상계서 ; 조상태, 상계서 ;
- 13) 김만진, 「한반도에서의 공세적 방어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기동전 이론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 노양규, 「미군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 박기련, 「美國 安保政策과 軍事戰略의 變化: 그 特徵과 決定要因」,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 석영준, 「군사혁신으로 본 전쟁사」, 『군사연구』, 제127집(2009). ; 양욱, 「미국 군사혁신의 변천사: 군사변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혁신 과정」,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 58 (2021) ;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Vol 18-1 (2010) ; Summers, Harry G., 권재상·김종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 서울: 자작아카데미(1995)
- 14) 김만수, 「국군 개혁, 어떻게? 1970년대 美 육군 사례를 보자」, 『통일한국』(2018년 11월호), <https://unikorea21.com/?p=19627>(검색일: 2022년 08월 24일) ; 양욱, 「적극방어전략」, 『무기백과』, (2021년 01월 20일),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02163.html (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 15) 남보람,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상)-1976년판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5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06/1/BBSMSTR_0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남보람,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중)-1976년판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19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20/1/BBSMSTR_0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남보람,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하)-1976년판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26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27/1/BBSMSTR_0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토머스 릭스, 김영식·최재호 역, 『제네럴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2.

1976년판 작성의 혁신적 중요성만 소개되는 수준으로 교범의 자세한 작성과정과 적극방어 교리만의 직접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군내 교리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1976년 교범이 발간되고 겨우 수년이 지난 1980년대부터 활발한 연구¹⁶⁾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교리변화인 다영역작전과 관련하여 미군 교리혁신의 원천으로 최근 2019년까지 연구¹⁷⁾가 있다. 폴 허버트의 “Deciding What Has to Be Done”은 아마도 드퓨이 장군과 ‘적극방어’교리의 배경 및 작성과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일 것이며, 존 롬주의 “Active Defense to Air Land Battle”은 돈 스타

16) Romie L. Brownlee, Mullen III William J., *Changing An, Army An Oral History of General William E. DePuy*, Retired, U.S. Military History Institute, Washington, D.C. :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1988) ; Michael W. Cannon, *The Development of FM100-5 from 1945 Until 1976*, University of Iowa, Master of Arts(1984) ; William E. DePuy, *FM 100-5 Revisited*, Army 30, no.11(1980) ; Doughty, *Ibid.* ; Paul H. Herbert, *Deciding What Has to Be Done: General William E. DePuy and the 1976 Edition of FM 100-5, Operations*,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88) ; John L. Romjue,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 Fort Monroe,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1984) ; Jeffrey W. Long, *The Evolution of U.S. Army Doctrin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and Beyond*,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91) ; Richard M. Swain,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95) ;

17) Clinton J. Ancker, *The Evolution of Mission Command in U.S. Army Doctrine, 1905 to the Present*, Military Review March-April(2013) ; Paul F. Gorman, *Cardinal Point: An Oral History — Training Soldiers and Becoming a Strategist in Peace and War*,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1.; Aaron J. Kaufman, *Continuity and Evolution: General Donn A. Starry and Doctrinal Change in the U.S. Army, 1974-1982*,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12) ; Nyngi, *Ibid.*

리(Donn A. Starry) 장군의 ‘공지전투’교리의 작성 과정을 기록하면서 ‘적극방어’에서 ‘공지전투’로 교리가 바뀌게 된 쟁점에 대한 전 반을 연구한 자료이다. 로버트 도우티의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6년부터 FM 100-5 작전 1976년판이 출판된 해까지 미육군이 겪은 전략적 및 작전상의 도전에 대한 개요를 연구한 자료이다. 또한 스웨인의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브라운리의 “Changing An Army An Oral History of General William E. DePuy, Retired”, 고먼의 “Cardinal Point: An Oral History — Training Soldiers and Becoming a Strategist in Peace and War” 같이 미육군 군사역사 연구부서를 중심으로 드퓨이 장군의 문서, 편지, 보고서, 인터뷰 등 원천사료 연구도 있다. 최근에는 ‘적극방어’교리 자체보다는 드퓨이 장군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중점으로한 닝기의 “Complexity and Design Leadership: The Design of Active Defense and AirLand Battle Doctrines”와 교리변화 과정을 스타리 장군 중심으로 본 카우프만의 “Continuity and Evolution: General Donn A. Starry and Doctrinal Change in the U.S. Army, 1974-1982” 등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전이 종식되고 대분란전에서 대규모 전면전으로 관심과 교리가 변화하던 1970년대의 격렬한 교리변화의 중심점인 ‘적극방어’교리의 작성과정을 통해 ‘적극방어’교리의 본질을 연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분란전에서 전면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연구와 우리군 교리 및 육군 기준교범인 지상작전 교범 연구에 기반을 제시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¹⁸⁾

18) 폴 허버트의 교리작성과정 연구를 주로 참고하고, 이후 발간된 드퓨이장군과 고먼 장군의 인터뷰 자료, 스웨인의 공식문서모음집 등의 원천자료로 교차검증하여 연구하였다.

2. 교범작성의 배경

가. 시대적 배경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에서 철군을 가속화하고 소련을 미국의 안보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는 1965년경 소련이 미국과 핵전력을 거의 동등하게 달성했다고 보았고, 미국이 전력증강과 무관하게 베트남전에서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고 있을 시기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은 재래식 전력의 무장을 한세대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켜 현대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1969년 닉슨의 괌 독트린(Guam Doctrine)으로 처음 선언되고, 나중에는 현실적 억제적 전략(strategy of realistic deterrence)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전략입안자들이 중동, 특히 이스라엘의 안보와 페르시아만 석유의 접근 경로를 ‘작은전쟁’으로 보는 등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¹⁹⁾

이런 위협과 동시에 이시기 미육군의 내부적 문제도 심각했다. 질적인 면에서도 주유럽미군인 미육군 제7야전군은 역사상 가장 낮은 준비 상태로 부대 대부분의 인력이 베트남전의 인력풀로 사용되었고, 장교와 부사관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했다. 또한 베트남 전쟁 기간 내내 미육군의 훈련과 전쟁에서의 경험은 전적으로 보병 중심적인 전투에 대한 노력에 집중했으며, 미 육군을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군대로 만들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중의 환멸은 사기적 측면에서 모든 군사 조직, 특히 육군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이 되어 있었고, 1973년 미 육군은 전체적으로 조직

19) Herbert, *Ibid*, p. 4.

의 정체성과 사기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²⁰⁾

이런 미육군의 위기 상황에서 1973년 흔히 욘 키푸르 전쟁으로 불리는 4차 중동전이 발발하였다. 참전국인 이스라엘과 아랍 군대²¹⁾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기갑전력의 충돌로, 3주간의 전투가 끝났을 때, 양측의 기갑과 포병의 총 손실은 유럽 미 육군의 전차와 곡사포 재고 전체를 초과하였다.²²⁾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가장 치열한 전투와 비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특히 대전차미사일(ATGM)²³⁾과 통합 방공 체계와 같은 최신식 무기로 얻어진 치명적인 결과였다. 베트남에서의 철군, 바르샤바조약군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4차 중동전의 교훈 등 여러 내외적 영향으로 인해, 1970대초 시작된 미육군의 교리 재검토는 베트남에서의 보병을 헬기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공중기동전(infantry-airmobile warfare)에서 서유럽의 주요 전략적 관심이 되는 유럽 전구에서 재래식 제병협동전(conventional combined arms warfare)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이러한 교리재검토는 1973년 창설된 TRADOC에 부여된 임무였으며, 초대사령관인 윌리엄 드퓨이 장군에게는 사명같은 임무가 되었다.²⁴⁾

20) Herbert, *Ibid*, p. 6. ; Nyingi, *Ibid*, p. 16.

21) 이집트,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등이 다수의 국가가 참전하였다.

22)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병력 약 1만2천명의 전사상자, 전차 1,063대, 장갑차 407대, 전투기 387대의 손실을 입었고, 아랍군은 병력 약 5만명의 전사상자 및 포로, 전차 2,000대 이상, 장갑차 3,000대 이상, 전투기 약 500대 등의 손실을 입었다. 수치상으로 이스라엘 군의 대승이었으나, 이스라엘군은 개전 2일간만 전차 300대 이상을 손실하였고, 이후 골란고원까지 추산하면 800대의 전차를 단일전투에서 손실하였다. 또한 전사자 2800명중 1500명이 전차 승무원이었고, 이후 기갑 병과와 전차승무원에 대한 지원이 기피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Yom_Kippur_War(검색일 : 2022년 8월 28일)

23) 이집트군은 AT-3(9M14 말룻카) 대전차 미사일로만 이스라엘군의 전차 150대 이상을 파괴하였다.

24) 미육군 교리의 잃어버린 베트남전 10년 이후의 교리 개혁은 여러 내외적 영향으로 인하여 미육군 내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었다 하더라도, 드퓨이 장군이

나. 훈련·교리사령부 창설

미육군은 1971~1972년 ‘Steadfast(변함없음)’이라는 계획명으로 육군재편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행하였다. Steadfast이전에는 전투 개발사령부(Combat Development Command, CDC)가 특정 장비에 대한 육군 교리, 조직 및 요구 사항을 개발하였고, 이 요구사항을 당시 조달기관이었던 육군물자사령부(Army Materiel Command, AMC)에 전달하였다. AMC는 이 요구사항에 맞춰 물품을 설계, 개발, 조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절차에서 드퓨이는 당시 육군이 가장 원하던 AH-56 샤이엔(Cheyenne) 공격헬리콥터와 MBT70 주력전차(Main Battle Tank) 획득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두 무기체계는 이후 현재까지도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한 무기체계인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M1에이브럼스 전차의 기원이 될 정도로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강력한 무기체계였지만, AMC는 고가의 무기체계에 상응하는 필요성을 국방부와 의회에 납득시킬 수 없었다. 애초에 CDC가 전문기술을 지원받는 각 군교육기관들과 다른 지휘체계에 있었고, 지리적 거리를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리와 무기체계 획득이 서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⁵⁾ 이는

1973년 초대 TRADOC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수행한 강한 추진에 의한 교리적 변혁은 속도, 형태, 그리고 그것이 전달하는 사상에서 드퓨이 장군의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Romjue, *Ibid*, p. 3. ; 제2차 세계대전에 제90보병사단의 일원으로 참전한 드퓨이는 노르망디에 상륙하였다. 90사단은 상륙 후 악명높은 빌레 보카주 전투, 몽카스트레 인근 고지대 전투, 메츠 요새 전투 등에 참가하였고, 90사단은 참전 2개월여 간 엄청난 손실로 인해 소총병력의 100%를 대체할 정도로 맹렬한 독일군과의 격전에 참여하였다. Herbert, *Ibid*, pp. 14~15. ; 이런 11개월 간의 격렬한 전투는 드퓨이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으며, 평생 동안의 교훈이 되었다. 이 교훈으로 형성된 드퓨이의 전술관을 미육군의 교리로 정립하려는 강한 의도가 있었다.

25) Herbert, *Ibid*, pp. 27~28.

드퓨이에게 교리 및 훈련—소요—개발—획득으로 이어지는 개념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강조되는 철학적 개념이 되었다. 결국 이 재편안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1973년 드퓨이는 해체 예정인 CONARC의 부사령관을 거쳐 새로 창설되는 TRADOC의 초대 사령관이 되었고, 이로써 수십 년간 쌓아온 전술적 사고로 교육훈련 및 조직 관리, 교리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이 합쳐졌다.²⁶⁾

1973년 베트남에서의 완전 철군과 맞물려 미육군은 엄청난 조직 전환을 시행하였고, 신임 육군참모총장 크레이튼 에이브럼스(Creighton W. Abrams) 장군과 하워드 캘러웨이(Howard H. Callaway) 육군장관은 육군이 전투를 준비하는 것보다 징병제에서 전환된 새로운 모병군 조직으로서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캘러웨이 육군장관은 육군에게 모병, 현역 유지율, 인적수준, 훈련방법관리, 생활환경, 그리고 대중적 이미지 향상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에이브럼스 참모총장은 육군에게 할당된 785,000명의 병력상한선 내에서 13개의 사단 수를 16개로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주요 지휘관들에게 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TRADOC 역시 구성원 감축, 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등에 주력하였고, 장교 교육과정의 단축, 신병의 재배치 비용의 절감을 위한 공통훈련, 전문 훈련을 위한 교육교보재의 배치 등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망스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퓨이는 교리 및

26) 초기 계획안에 FORSCOM의 사령관이 대장 직위, TRADOC의 사령관은 중장 직위로 결정되어 있었다. 드퓨이는 대장으로의 진급이 제한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TRADOC의 사령관을 선택하였고, 이는 교리 및 훈련에 드퓨이가 얼마나 열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후 TRADOC의 사령관 직위가 대장으로 승격되었고, 드퓨이는 대장 진급과 동시에 TRADOC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CONARC의 사령관은 월터 커윈(Walter Thomas Kerwin Jr.) 대장으로 CONARC 해체 후 커윈은 FORSCOM의 사령관이, 드퓨이는 TRADOC의 사령관이 되었는데 이는 개개인의 선호도에 맞춘 것으로 큰 이견 없이 진행되었다. Brownlee, *Ibid.*, p. 180.

훈련 개혁에 있어서 의지를 잃지 않고 있었다.²⁷⁾

1973년부터 추진된 육군의 주요 획득사업인 ‘Big Five’ 항목은 주력전차(MBT), 기계화보병전투차(MICV), 공격헬기, 수송헬기, 단거리방공미사일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획득사업이 육군의 전반적인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우선 드퓨이가 시작한 일은 자신이 재편한 제병협동전투개발국(Combined Arms Combat Development Agency, CACDA)을 통해 전투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제병협동작전(combined arms operations) 교리에 관련한 교범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드퓨이가 추구하였던 것은 모든 전투 개발과 물자 획득을 육군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형, 날씨 및 적 활동의 특정 조건을 설명하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현용 조직과 장비의 제약에 따라 개념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육군이 개발하는 장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육군 시스템과 호환되고 배치 및 운용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27) 드퓨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훈련체계의 시급한 재건이었다. 각 병과학교의 교육실태를 점검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초군장교 교육에서 공병학교는 불도저, 로터, 그레이더 등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 보병학교는 대부분의 교육이 야외가 아닌 교실에서 이론교육으로, 기갑학교는 전차장·전차소대장이 아닌 중대장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등 현직책보다 1~2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바로 수행하는 직책의 현실과 상이했다. 드퓨이는 이를 미군이 과거의 동원군(Mobilization Army)의 개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이스라엘식 교육을 참고하여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또한 과거 CONARC에서 하달하던 획일된 징집병(conscripts)식 교육인 소떼몰기(on the trail)식 지침을 폐기하고, 새로운 성과지향형 훈련방법인 기술자격시험(Skill Qualification Tests, SQT)과 육군훈련평가프로그램(Army Training and Evaluation Program, ARTEP)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드퓨이의 강한 개혁은 기존의 육군의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Herbert, *Ibid*, p. 25.

드퓨이는 이와 같은 증명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은 육군 전체의 공감대와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상에서 실제 존재하는 육군 임무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제작을 CACDA의 주요 과제로 보았기 때문에 CACDA의 지휘관인 존 쿠쉬먼(John H. Cushman) 소장에게 총괄 임무를 부여하였다. 각 병과학교장들에게는 해당 병과의 전투개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시나리오에 새로운 교리와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을 하게 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적의 무기를 분석하고 새로운 교리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개발된 아이디어는 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이라는 공식문서로 표현해야 했다. ROC는 시나리오에서 육군이 이 능력을 왜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였다. 이후 승인된 ROC는 비용 및 작전 효과분석(Cost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Analysis, COEA)을 거쳐 최상의 해결책으로 군, 국방부, 의회에 설명이 되는 근거가 되었다.²⁸⁾

다. 4차 중동전 분석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이 이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전쟁 직후 에이브럼스 육군참모총장은 TRADOC에게 전쟁의 교훈을 도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곧 드퓨이의 지시에 따라 CAC, 각 학교기관들, 센터들 등에서 대표자로 구성된 특별그룹을 구성하였다. CACDA의 부사령관인 모리스 브래디(Morris J. Brady) 준장이 이끄는 이 그룹은 중동을 방문하여 1974년 7월에 육군에 중요한 162가지 특정 사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²⁹⁾ 브래디의 보고서는 미육군의 중강도전쟁능력(mid-intensity war-fighting

28) Herbert, *Ibid*, p. 77. 현재까지 무기체계 소요와 개발에 중요한 절차를 이 당시 드퓨이의 주도하에 정립하였다.

29) Herbert, *Ibid*, pp. 29~30.

capabilities)의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작전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등 전훈 내용이 미육군에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기에는 부족했고, 드퓨이는 이러한 미진적인 권고사항 수준의 결론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결국 드퓨이는 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분석하여 브래디 보고서의 모호한 세부사항보다 더 많은 결론으로 미육군에게 즉각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에이브럼스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였다. 드퓨이가 작성한 보고서는 이후 TRADOC의 공식적인 교훈 분석의 기초로 향후 2년간 교리작성의 방향을 주도하였다.³⁰⁾

드퓨이는 4차 중동전에서 제병협동(combined arms)을 주요 교훈으로 생각하였다. 아랍군은 대전차미사일(ATGM), 지뢰, 휴대용 로켓(RPG) 등으로 무장한 전차킬러팀을 구성하여 매복으로 역습하는 이스라엘 전차를 대량 격파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최대속도로 이동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이런 전차들은 보병식별이 제한되었고, 지형에 맞게 잘 매복한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로켓에 쉽게 격파당했다. 다급한 이스라엘군은 방어진지를 근접항공지원으로 돌파하려했으나, 아랍군의 방공전력에 차단되었다. 아랍군은 지상군을 엄호하는 방공우산이라는 개념으로 지상군을 근접지원하기 위해 레이더로 잘 통제된 단거리 방공포형태와 미사일형태를 혼합하여 방공망을 운용하였다. 이러한 지상군 지원 방공망은 궤도화 되어 최전방부대까지 동행하여 이스라엘의 공중지원을 원천차단 하였고,³¹⁾ 결국 이스라엘은 보병, 포병, 기갑의 제병협동을 하고서야 이집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방공망을 파괴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지상군

30) Swain, *Ibid*, pp. 69~74.

31) 전쟁기간 이스라엘군은 109대가 손실되었는데, 그중 방공망으로 81대를 잃었다. 반면 이스라엘 군은 항공기 간의 공중전으로 334대를 격추하였고, 공습으로 22대를 지상파괴, 방공망으로는 101대를 격추하였다. Karl H. Eulenstein, *North Korea-South Korea Computer War Game*, 1975.

은 이 방공망을 파괴한 이후에나 적절한 공중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집트군의 중심을 파괴할 수 있었다. 드퓨이는 이러한 면에서 제병협동을 위해 적의 대전차 능력을 보유한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전차와 함께 이동하며 장갑방호력과 기관포를 구비한 기계화된 보병부대를 핵심사향으로 생각하였다. 현대에 보편화되어 있는 보병전투차(Infantry Fighting Vehicle, IFV)개념과 유사한 이 개념은 기존 미육군의 단순히 이동성과 장갑에 의한 파편보호만을 강조한 보병수송장갑차(Armored Personnel Carrier, APC)개념과는 다르며,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들이 전차전투와 기동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³²⁾

드퓨이는 4차 중동전에서 도출된 교훈이 그동안 미육군이 중강도 분쟁(mid-intensity conflict)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그에게 하나의 큰 목표를 주었다. 드퓨이는 폴 고먼(Paul F. Gorman) 장군³³⁾의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how we fight)’와 쿠쉬먼의 ‘시나리오’를 넘어 육군 전체를 바꾸려(changing the army) 하였고, 그의 확대된 지휘권은 교리를 바꾸는데 충분한 권한과 조직을 주었다. 일단 드퓨이는 현대전의 위협을

32) 미육군에게 4차 중동전은 준비되지 않은 현대식 재래전 유형을 제시하는 변화라면, 드퓨이에게는 그동안 착실하게 발전된 그의 전술관을 확인시켜주는 연속성이었다. 그에게 현대의 위협적인 적의 대전차 미사일은 과거의 대전차포였고, 이스라엘군이 보여줬던 제병협동은 그가 중요시하였던 엄호하 기동인 ‘엄호망(overwatch)’이었다. 전통적인 전투에서 드퓨이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기갑의 전차였는데, 전차의 특성인 기동성, 화력, 장갑보호로 적의 방어선을 뚫고 지휘통제, 통신, 군수지원 등의 후방의 주요요소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접접근식의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33) 드퓨이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폴 고먼(Paul F. Gorman)은 훈련·교리사령부(TRADOC)에서 훈련참모차장으로 근무하면서 SOT, ARTEP 등을 작성하면서 육군훈련체계를 크게 발전시켰고, FM 100-5 1976년판의 주작성자가 된다. 이후 8보병사단장, CIA파견관, 합참 등에서 근무하고, 남부사령부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한다. Gorman, *Ibid.* ; 무기지수, 전투력 비율 측정 방법을 연구개발한 운영분석 전문가로 운영분석과 체계분석을 군에 도입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된다. 남보람, 전계서(중).

느꼈고, 교리적인 변혁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상정하고 18개월 내 모든 육군의 야전교범을 다시 작성하여 육군의 전제대에 일치된 전술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드퓨이는 우선 육군 전체를 바꾸려면 상급지휘관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합의하고,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증된 교범을 통해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육군의 기준교범(capstone manual)인 FM 100-5 작전(operations)을 바꾸는 것이 그 결정적인 목표가 되었다.³⁴⁾

3. 교범작성 초기과정

가. 병과 간 갈등

하지만 기준교범인 FM 100-5 작전 교범의 작성은 순조롭지 만은 않았다. 우선 드퓨이의 개념과 전훈에서 핵심적인 제병협동 교리 작성을 주도할 기관이 사실상 육군에 없었다. TRADOC 예하에는 제병협동센터(Combined Arms Center, CAC)가 있었으나 사단급 이상제대 만을 다루던 기관인 것을 고려하여 결국 드퓨이는 보병센터와 기갑센터를 통해 제병협동 교리 작성을 낮은 제대의 수준부터 시작하였다. 이 결정으로 교리작성 초반부터 앞으로 주된 논란의 원인이 될 보병병과와 기갑병과 간 알력과 갈등이 크게 발생하였

34) Brownlee, *Ibid.*, pp. 184~188. 4차 중동전 이후 TRADOC은 교리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TRADOC의 목표는 40개 이상의 ‘어떻게 싸우는가(how to fight)’ 교범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이 교범들은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의 교리를 현대전장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론적으로는 FM 100-5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FM 100-5의 새로운 작성은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다.³⁵⁾ 하지만 드퓨이는 기갑센터에게 교리작성을 주도하는 최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결국 기갑센터가 다른 TRADOC 기관들을 이끌고 육군의 교리의 본질을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이런 기갑센터를 중심으로 주도되는 교리작성이 추진된 드퓨이의 결정 이유는 기갑기계화전이 주축이된 4차 중동전의 교훈, 전차중심의 유럽방어계획, 전차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제병협동작전의 드퓨이의 개인 선호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기갑센터장인 돈 스테리 장군이다. 스테리 소장은 당시 참모총장이던 에이브럼스 장군과 기갑장교로 근무연이 있던 상당히 친밀한 관계³⁶⁾였으며, 드퓨이 장군이 “육군내 모든 계급의 다른 사람들 보다 전술 이해에 우월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인정하는 인재였고, 폴 고먼 준장과 더불어 드퓨이를 강하게 지지하는 친밀한 관계였다.³⁷⁾

그리고 보병병과에 대한 드퓨이의 기갑센터와는 상반된 비선호도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비록 보병센터의 타플리 소장은

35) 보병센터에서는 소대급 수준에서 전차와 보병을 조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여 기존대로 중대급 수준 이상의 전차운용 교리를 작성하는 기갑센터와 의견을 보였고, 기계화보병 교리작성 임무를 기갑센터에 부여함에 따라 기계화보병 교리의 우선권을 상실했다는 의미에 크게 반발하였다. 더구나 당시 중요하게 개발되고 있던 중동에서의 우발사태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또한 기갑센터로 임무가 부여되자 보병센터장인 토마스 타플리(Thomas M. Tarpley)소장은 교리작성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드퓨이 장군은 이런 작성권한의 논란을 조정하기 위해 기계화보병 교리작성권한을 여단제대 이상은 기갑센터에게, 대대이하의 제대는 보병센터에게 부여하였다. 보병센터에게는 이 밖에도 보병, 공수, 항공기동여단 등의 작성권한을 주었을 뿐 아니라 기갑과 기계화보병 여단에 대한 작성참여도 인정하였다.

36) 당시 미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간 근무연으로 후견인과 유사한 관계가 된 사례가 많았는데, 스테리는 독일근무간 전차소대장으로 대대장인 에이브럼스와 근무했고, 이후에는 베트남에서 연대장으로 다시 주월미군사령관인 에이브럼스와 근무하였다. Kaufman, *Ibid*, p. 6. ; 한우성, 아름다운 영웅 김용욱, 나무와 숲(2008). ; 콜린파월·요셉 E. 파시코, 『콜린파월 자서전』, 샘터(1997).

37) Herbert, *Ibid*, pp. 40~42.

유능한 인재였으나 보병병과의 기계화교리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드퓨이는 보고 있었고, 4차 중동전이 보여준 현대 기갑 전투에는 보병병과의 오랜 전통과 베트남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상이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병학교가 2.5마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길 원했다”라는 언급처럼 드퓨이는 보병병과에서 제병협동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뺏는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³⁸⁾ 이러한 전통적인 보병병과 교리철학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당시에 조율되지 않았고, 후일 최종적으로 교범작성이 완료되어 출판 및 배부가 되자 크게 반발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역시 기갑센터가 교리작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한 병과가 다른 병과의 교리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문제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³⁹⁾

나. 개념문서 초안 작성

드퓨이는 추진하는 새로운 교리개발 방향에 전체 육군의 합의와 이해를 위해 자신의 전술관에 대해 포괄적인 개념서를 작성하였다. 개념서의 초안들은 고먼의 사무실에서 소수로 선정된 작성실무자인 소령 및 중령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드퓨이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작성하였는데, 무기체계 분석, 작전 연구, 4차 중동전의 교훈 등으로 구성된 내용은 그의 전술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⁴⁰⁾ 이렇듯

38) “저는 보병학교가 시속 2.5마일(보병의 걷는 속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 하지만 보병학교는 경보병들의 손에 잡혔고 ... 그들은 기계화보병을 전혀 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 그래서 제가 이런 가혹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 무기력함에서 그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요” Herbert, *Ibid*, p. 41.

39) 병과에 따라 집결지, 포병화력지원 등의 교리적 개념이 상이했다. 또한 기갑 지휘관은 전차 포탑에서, 보병 지휘관은 고정 지휘소에서 지휘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본질부터 다른 부대들을 현대전이 요구하는 빠른 교차배치를 위해 공통된 교리로 묶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였다. Herbert, *Ibid*, p. 43.

초안의 작전과 전술 개념에 드퓨이의 일관된 전술관이 깊게 반영되어 있었지만, 단지 과거의 경험만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크게 발전한 방공무기와 방공무기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미공군과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한 병력의 공중이동에 관련한 미육군의 베트남전 경험과 대전차 공격력을 갖춘 공격헬기 등 4차 중동전의 교훈이 아닌 최근의 발전 등도 반영되었다. 이 간결한 초안은 “훈련·교리사령부 전투작전 개념서 초안(TRADOC Draft Concept Paper Combat Operations)”⁴¹⁾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기존의 4차중동전에 관련한 TRADOC의 전훈분석을 종합한 기존의 브래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FM 100-5 작전” 작성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⁴²⁾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범의 개념 초안이 되었다. 이 초안은 곧 예하 센터와 학교에 배부되어 각 기관들에서 작성할 초안들이 공통된 작전개념 하에서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FM 100-5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

1974년 7월 드퓨이는 TRADOC예하 8명의 센터장과 학교장들에게 ‘전투작전 개념서 초안’이 동봉된 개인적인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유명한 ‘프랑스 농부의 냄비 편지’⁴³⁾로 불리게 되며, FM 100-5

40) ‘은·엠펜로 아군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적의 무기를 제압’, ‘기동전에서 전차가 결정적인 무기’, ‘전차로 적방어선을 돌파하여 적의 후방 또는 중요한 지형으로 이동’, ‘장갑차의 엄중한 제압 사격 아래 수류탄과 소형 무기로 도보로 적의 진지를 공격하라’, ‘어느 제대에서나 훌륭한 지휘관은 적은 병력으로 적을 발견할 수 있다’, ‘제압용 사격을 즉시 할 수 있고, 적의 엠펜과 은페를 위한 기동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이 요점으로 드퓨이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줄곧 강조하던 전술적 개념이었다.

41) 최초 FM 100-5 작전 교범의 초안 제목은 전투작전이였다. Swain, *Ibid*, pp. 122~135. ; 남보람, 상계서(중).

42) 문서의 구성은 일반배경, 전투역동성, 공격작전, 방어작전 순으로 FM 100-5 작전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후 발간된 1976년판 교범도 이를 기반으로 목차가 구성되었다.

43) “프랑스의 한 농부의 집에는 항상 벽난로에서 끓고 있는 수프 냄비가 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감자, 부추, 닭고기 육수, 소고기 육수, 가끔 당근 같은 것을 던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프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누구나 추가할 수 있고 누

작전 교범의 초안개념과 작성에 모두가 동참해 주길 원했다. 드퓨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본인의 전술관으로 새로운 교리개념을 작성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프랑스 농부의 냄비처럼 모든 재료를 넣어 뛰어난 FM 100-5 작전 교범과 ‘어떻게 싸우는가’ 교범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비록 드퓨이가 스타리처럼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토론을 선호하지는 않고 통제된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드퓨이가 역시 “군대의 51%가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교리가 진정한 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듯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리 작성을 추진했다. 이렇듯 교리개혁과 작성과정 그 자체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보여준 ‘육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드퓨이의 열정과 역할이었다.⁴⁴⁾

다. 교리의 국내·외적 협력 과정

많은 육군의 내외적 아이디어와 합의를 필요로 하는 FM 100-5 교범의 작성은 TRADOC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다. 우선 독일육군과의 협력은 교범 내용작성에도 교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외적인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다. 독일 육군과의 교리작성 협력은 베트남전 종전에 이어 유럽방어가 미육군의 최우선 임무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주전장인 서독 국경지대에서 독일 육군과 유럽주둔 미육군 제7야전군 간의 작전 개념과 전술적 교리의 협력이 필수적

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첨부된 논문을 약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 저는 당신이 저와 논의하거나 의견, 권고 또는 수정사항, 특히 그것에 대한 추가사항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 또는 그것의 측면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 누가 보든, 얼마나 많이 복사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프랑스 수프 냄비처럼 보관하고 싶습니다” Letter to Major General David E. Ott et al. from General DePuy, 23 July 1974, with draft concept paper, Concept Operations [“Pot of Soup” Letter]. Swain, *Ibid*, p. 121.

44) Brownlee, *Ibid*, p. 180. ; 남보람, 상계서(하) ; Herbert, *Ibid*, p. 46.

이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군사동맹국들 간의 합의를 통해 육군 내적인 합의를 위한 권위 확보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육군참모총장 에이브럼스 장군은 독일육군의 참모총장격인 육군감찰관(Inspekteur des Heeres) 호르스트 힐데브란트 장군(Horst Hildebrandt)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제7야전군과 별도로 드퓨이에게 비공식적으로⁴⁵⁾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드퓨이는 우선 독일 육군 고위층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리, 훈련, 장비 등에 관련한 고위급 연례 회담을 추진하였으며, 미육군과 독일육군의 교리문헌들을 상호 교환했고, 후일 최종적으로는 작성중인 FM 100-5의 초안을 독일육군에 보내 의견을 구했다. 이러한 교류는 교리적으로도 유용하였는데, 독일 육군의 전통적인 기갑척탄병(panzergrenadier) 전술교리에 기반한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교리가 미육군보다 우수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했고,⁴⁶⁾ 작성중인 FM 100-5 작전교범의 기준이 되는 주작전지역이 독일지역이 주축이 되기에 미독연합작전을 위한 교리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독일육군과의 합의가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내 군종간 협력으로 공군과의 협력이 중요했다. 공군과의 협력은 그간 발전된 기술력으로 인한 방공무기제압과 중심상의 적 후방지역에 대한 타격이라는 교리상의 협력 외에도 더욱 중요한 예산을 둘러싼 내부 분쟁을 피하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다.

45) 독일 육군과 TRADOC간의 교류가 비공식적이고 비정형적이어야 하며, 고위급 회담을 공식화하지 않음으로써, 드퓨이는 육군이 나토의 구조를 무시하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후일 주유럽미육군인 제7야전군 장성들의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6) ROD A. Coffey, *Doctrinal Orphan or Active Partner? A History of U.S. Army Mechanized Infantry Doctrine*,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00).

1972년에만 하더라도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AH-56 샤이엔 공격헬기 사업은 의회에 의해서 개발이 취소되었는데, 이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CAS)과 중복되는 역할이라는 공군의 주장이 의회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육군은 공격헬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공군과의 내부 예산분쟁을 피해야 한다고 보았고, 육군참모총장 에이브럼스 장군은 공군참모총장인 조지 브라운(George S. Brown)과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쟁 회피를 위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에이브럼스 참모총장은 드퓨이에게 TRADOC부임 초기부터 공군과의 획득사업과 교리적 협력에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드퓨이는 전술항공사령부(Tactical Air Command, TAC) 사령관 로버트 딕슨(Robert J. Dixon)장군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긴밀한 협력을 하려고 했다. 지상전 교리 작성과정에 있어서 공군은 큰 이견이나 반대도 없었고, 전자전, 공역관리, 항공수송 등 보조적인 교리분야에서 기여하였다. 하지만 4차 중동전 이후 이러한 협력관계는 발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드퓨이는 초기 개념문서에 “미공군과의 협력을 통한 방공망제압은 이제 지상군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기술하였다. TRADOC과 TAC는 이제 ‘따로가 아니라 더 잘 싸우는 방법(to fight better, not each other)’의 구호 하에 공역관리, 방공망제압, 정찰 및 감시, 전자전, 근접항공지원, 항공수송 등의 주요 관심사를 지정하였고, 사거리를 기준으로 육군과 공군의 영역을 구분하였다.⁴⁷⁾

47) 드퓨이는 딕슨 장군에게 “우리는 ... 근접전에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육군체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는... 육군은 가까운 전투 지역에 자원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공군체계와 유사한 체계에 충분한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언급을 하였다. Herbert, *Ibid*, pp. 69. ; 이 기준은 육군의 직접 사격 무기의 최대사거리를 고려하여 최전선에서 5km까지는 육군의 영역, 육군의 화기가 도달하기 어려운 50km이상은 공군의 영역, 그 사이인 5~50km는 상호협

라. 대외적인 교리적 합의

드퓨이와 TRADOC의 이런 빠른 교리구축과 교범작성은 육군참모총장인 에이브럼스 장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인선에서 에이브럼스는 드퓨이를 TRADOC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스테리를 기갑학교장에, 쿠쉬먼을 제병협동센터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드퓨이에게 독일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하고, 공군과 협력 하도록 추진시켰고, 시스템 분석, 훈련, 전투개발 등에서 TRADOC과 드퓨이의 초기계획안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드퓨이는 ‘육군을 바꾸기’위해 늘 에이브럼스에게 보고하고 지원을 받았다.⁴⁸⁾ 이미 1964년에 대장으로 진급한 에이브럼스는 참모총장이자 전쟁영웅⁴⁹⁾으로서 미육군내 막강한 영향력으로 드퓨이와 TRADOC, 그리고 스테리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에이브럼스는 1974년 9월 지병인 폐암으로 59세에 사망한다. 그의 사망 이후 드퓨이와 TRADOC은 후임 육군참모총장⁵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리적 합의를 공적으로 받기 위한 대외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조로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절차상에서 TRADOC은 시나리오 구축에 공군을 참여시켰으며, 공역관리 교범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48) Swain, *Ibid.* pp. 59~68. ; Swain, *Ibid.* pp. 69~74. ; Herbert, *Ibid.* pp. 75~76.

49) 제2차 세계대전에 기갑병과 대위로 참전한 에이브럼스는 수많은 전투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기갑병과에서는 유일하게 수훈십자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두 번 수여받았다. 독일군 전차에 비해 비교적 성능이 낮은 M4 셔먼 전차로 그의 대대가 전쟁기간 약 500대의 독일군 기갑차량을 격파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놀라운 전과와 리더십으로 종전시 임시대령까지 진급하기도 하였다. 종전 후에는 다양한 보직에서 근무하였으며,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모두 참전하였고 1968년 주베트남미군사령관이 되어 미군철수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1972년 참모총장에 임명된다. 군경력 동안 수훈십자장 2회, 동성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 2회, 육군수훈장 5회 등 38번의 각종 훈장과 기장을 수여받았다.

50) 후임 참모총장은 프레더릭 웨안드(Frederick C. Weyand) 장군으로 TRADOC의 교리작성에 큰 관심이 없었다.

1974년 10월 드퓨이는 독일의 10월축제(Okttoberfest)⁵¹⁾를 모티브로 한 컨퍼런스 ‘옥터버페스트(Octoberfest)’를 기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포트 녹스에서 개최하였다. 이 옥터버페스트는 전력사령부(FORSCOM) 사령관인 커윈 장군의 지지로 FORSCOM과 TRADOC이 함께 조직한 컨퍼런스로 중대급 수준의 전투 기술과 기법에 관련한 주제를 다뤘고, 본토 내에 위치한 미육군 관계자와 유럽주둔미군(제7야전군), 한국 및 아시아권 주둔미군(제8야전군), 파나마와 알래스카 등 전 세계의 파병된 미육군 대표들도 참석했다. TRADOC은 드퓨이가 강조했던 4차 중동전의 교훈, 엄호망, 제압화력, 제병협동, 지형활용, 차장연막 등을 발표했는데, 이렇듯 옥터버페스트는 단순히 전술소개를 위해 공개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드퓨이의 전술관을 전군의 지휘관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드퓨이와 스테리는 전통적인 육군의 전술관과 베트남전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4차 중동전이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옥터버페스트는 육군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스테리와 기갑학교의 역할이 인정받았다. 참석자들은 그들이 컨퍼런스를 통해 일관적으로 설명된 사항들에 대해 큰 반대나 비판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드퓨이는 일종의 합의라고 인식하였으며 만족스러워 했다. 하지만 이는 TRADOC의 잘 준비된 의견에 참석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딱히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후일 이 옥터버페스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당시에는 부동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많은 인사들이 드퓨이 장군 전역 후 반대의사를 많이 표명하였다. 특히, 주유럽주둔 미육군은 TRADOC의 새로운 훈련방법을 채용하지 않는 등 반발이 심했다.⁵²⁾

51)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에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 열리는 맥주 축제이다. 공식적으로는 옥터버페스트(Okttoberfest)라고 부르며 10월 맥주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옥토버페스트 컨퍼런스를 성공이라고 인지한 드퓨이는 즉시 후속 추진을 진행하였다. 일단 공식적으로 육군 상층부 인사들의 상당수가 드퓨이의 전술관과 TRADOC의 교리적 주도에 대해 최소한 암묵적인 승인을 한 셈이 되었으므로 드퓨이는 대외적으로 독일군과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1974년 10월말 드퓨이는 독일 육군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독일연방군의 FM 100-5격인 HDv 100/100⁵³⁾과의 연계를 확인했다.⁵⁴⁾ HDv 100/100은 방어자는 진지를 활용하고 노출된 공격자에게 화력을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대규모 집중화력, 장애물, 내부기동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공격을 약화시킨다면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파괴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적의 주공을 파악하고 아군의 지형활용, 유연성, 중심방어구축, 기동적인 예비대 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가능한 전방에서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적전차의 전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개념을 FM 100-5 작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데, 작전의 1976년판 ‘적극방어’의 ‘5장 방어’에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다.

52) Herbert, *Ibid*, pp. 47~50.

53) *HDv 100/100 Command and Control in Battle* 전투에서의 지휘통제.

54)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청년장교 드퓨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기갑척탄병 교리는 그의 전술관과 FM 100-5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 도입된 미국의 기계화보병은 인원수송장갑차(APC)를 갖추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군을 모방하여 ‘장갑보병(armored infantry)’을 구성하였으나 본질적으로 독일의 기갑척탄병 교리와 괴리가 있었다. 드퓨이의 엄호하 기동을 강조하던 ‘화력기지’ ‘엄호망’ 전술관과 거의 일치하는 기갑척탄병 전술은 4차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의 대전차무기 제압 해결책과도 유사하였다. 드퓨이는 독일과의 교리일치성은 물론이고 기존 미육군의 비탑승보병 중심의 보병교리에서 보병, 포병, 방공 등이 지원하는 기갑을 중심으로하는 기갑 및 기계화보병 교리로 전환하고자 했다. Coffey, *Ibid*, ; Herbert, *Ibid*, pp. 63~64. ; Doughty, *Ibid*. ; 비탑승(unmounted) 보병은 기계화, 차량화된 보병인 탑승(mounted)보병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전투시 장비(차량, 수송장갑차, 보병전투차 등)에 탑승하지 않고 개인화기(소총)을 주력 무기로 하는 보병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4. 교범작성과정 중 반발

가. 최종 작성명령과 반발

드퓨이는 1976년 상반기까지 FM 100-5 작전을 작성하기로 예하 학교장들에게 명령하였다.⁵⁵⁾ 드퓨이는 교범 작성 명령을 하달한지 2달 후인 12월에 학교장들에게 초안을 제출받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학교장들에게 다음 일정과 함께 필요하면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⁶⁾ 이전부터 보병센터와 기갑센터 사이에 병과의 관점과 교리작성 권한에 대한 우선권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충돌이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FM 100-5 작전교범의 작성이 시작되고 작성실무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과 센터장급으로 상향되자 이들과 드퓨이 사이에 충돌이 가시화 되었다. 교범작성에 열성적인 드퓨이와 관심이 적은 병과학교장들과의 교범작성의 참여도⁵⁷⁾ 차이뿐 아니라 전술관 차이

55) “나는 우리가 미육군의 모든 중요한 야전 교범을 다시 써서 1976년 6월 30일까지 출판할 작정입니다 ... 우리는 충분한 토론에 참여했고, 충분한 브리핑을 들었고, 미 육군의 학교 시스템에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싸우는가(how to fight)에 대한 최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연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리 출판물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제도화하고 영구화해야 할 때입니다” Herbert, *Ibid*, p. 49. ; “그 기한은 197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중략) 조만간 미팅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FM 100-5’의 초안을 감수할 것입니다. 미팅 일주일 전에 교범 초안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과업을 부여합니다. 항공학교장은 ‘육군 항공’ 교범 초안을 완성해 일주일 전에 참석자들에게 보내시오. 보병학교장은 ‘대전차 작전’에 대해 기갑학교장과 토의해 마찬가지로 결과물을 일주일 전에 보내시오. 여러분이 보낸 내용을 가지고 미팅 날 토의할 것입니다” 남보람, 상계서(상).

56)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이 일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Herbert, *Ibid*, p. 49.

57) 이 첫 초안검토 회의에서 어떤 이는 골프채를 들고 오고 또 어떤 이는 부하들을 시켜 만든 개조식 안을 가지고 왔다. 드퓨이 장군은 ‘골프채를 사용할 일은 없을

가 문제였다.

이 회의에서 보병학교의 학교장인 타플리 소장은 전차가 결정적인 무기라는 개념을 지우려 노력하고, 비탑승보병의 항공수송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는 드퓨이의 전차 중심 기동전 전술관과 전통적인 보병병과의 전술관 차이가 극명하게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드퓨이는 FM 100-5 초안의 주작성자인 쿠쉬먼의 FM 100-5 초안이 미숙하며 구체적이지 않다며 거부했다. 드퓨이는 최초 본격적으로 FM 100-5 교범작성을 위해 제병협동센터(CAC)와 센터장인 쿠쉬먼 소장에게 주 작성임무를 부여했고, 작성을 독려하였으나 애초에 작성 방향에 큰 이견이 있었다. 쿠쉬먼의 초안은 타 학교장들의 초안처럼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열의가 부족한 것보다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쿠쉬먼은 육군 내에서 최고 수준의 지성인으로 손꼽힐 학구적인 엘리트 장교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⁵⁸⁾

쿠쉬먼과 드퓨이 모두 육군 발전을 위한 훈련에 열정적이었고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이었지만, 이들은 교리에 대한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랐다. 쿠쉬먼은 지식인으로서 누구보다 사려깊고 반성적이며, 모든 아이디어에서 장점을 인정하는 인격의 소유자로 개인이 인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을 때 엄청난 창조적 잠재력이 발휘된다고 보았다. 그는 지휘참모대를 지휘감독하

것'이라고 면박을 주었고, 개조식 안에 대해서 '애들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금이라도 교리와 관련 없는 말을 하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하시오" 하고 대번에 잘랐다. 남보람, 상계서(상).

58) 1944년 미육군사관학교를 12등으로 졸업하여 임관한 쿠쉬먼은 공병으로 임관하여 제2차세계대전시에 태평양 전구에 참전하였다. 전후 뉴멕시코에서 핵무기 개발프로젝트에 참여, MIT공대에서 위탁교육, 지휘참모대 교관, 육군장관실 보좌관, 육군참모총장 고문실 등의 엘리트 경력을 거쳤다. 또한 야전에서도 독일근무와 베트남에서 3번의 파병을 경험 등 다양한 근무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1공수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후 에이브러햄스 참모총장과 드퓨이의 지명으로 CAC의 센터장이 되었다. Herbert, *Ibid*, pp. 52~53.

며, 그의 학생장교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으로 단련하고, 자신만의 생각이 발전하여, 지적으로 야전에서 준비가 되길 원했다. 그러한 그의 개념에서 교리작성은 전쟁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최선의 생각을 담는 것을 의미했다.

쿠쉬먼이 작성한 초안 교범 ‘방어에서의 사단(Division in Defense)’은 첫 페이지에서 1934년 보병학교에서 발간된 ‘전투에서의 보병(Infantry in Battle)’의 문구 “전술은 생각하는 사람의 술(art)입니다. 학습할 수 있는 특정 원칙은 있지만 규칙은 없습니다”를 인용했다. 그의 초안은 1922년 이후 미군교리의 정석이었던 전쟁의 9가지 추상적 원칙⁵⁹⁾을 강조하며, ‘방법’과 ‘왜’를 모두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미군 병사의 놀라운 기발함과 끝없는 상상력에서 전투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쿠쉬먼은 본인과 그의 참모들이 작성한 교범 초안에 스스로 상당히 만족했으며, 미 육군 전투 교리의 기준교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드퓨이가 생각하는 작전 교범에는 드퓨이의 전술관에 따라 제압, 엄호망, 간접접근, 적의 취약점파악, 빠른 전력의 집중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했을 것이지만 쿠쉬먼은 정해진 규칙보다는 구체적인 적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범에는 엄호망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간접접근은 선호되나 상황에 따라 적의 강한방어에 정면으로 맞설 수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현대전장을 설명하면서 제병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최고의 무기체계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전차가 ‘결정적인 무기’임을

59) 군사학계에서 다루는 전쟁의 원칙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이하나 미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1.목표의 원칙(Objective), 2.공세의 원칙(Offensive), 3.집중의 원칙(Mass), 4.병력절약의 원칙(Economy of force), 5.기동의 원칙(Maneuver), 6.지휘 통일의 원칙(Unity of command), 7.경계의 원칙(Security), 8.기습의 원칙(Surprise), 9.간명의 원칙(Simplicity) 등이 있다. ADP 3-0 Unified Land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2011).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쿠쉬먼의 초안은 드퓨이의 강한 신념으로 형성된 전술관을 대부분 비판했다. 하지만 드퓨이가 이 초안에 기입한 논평은 “미숙하며 …, 우리는 토론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 무기 효과, 제압, 이동성, 차단 등과 관련이 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등, 등”⁶⁰⁾과 같으며, 오히려 냉정하기까지 하다. 심지어 드퓨이는 새로운 초안판을 위한 개요를 작성하여 쿠쉬먼에게 주었고, 다음 해인 1975년 봄에 예정되어 있는 후속회의에 다시 작성할 기회도 부여하였다.

나. 체계분석 기반 교리작성

TRADOC은 전투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상세한 무기 시스템 분석으로 육군의 무기 획득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퓨이는 쿠쉬먼의 이론 같은 비기술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인정할 수 없었다. TRADOC 사령관 부임 이후 드퓨이는 “육군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육군의 필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질서 있는 과정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바꾼 무기체계획득과정의 시나리오처럼 교리 역시 상세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러한 분석은 능력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교리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했고, 적무기에 대한 상세한 비교 분석으로 발전해야 했다. 4차 중동전 이후 소련식 무기와 교리에 대한 자료가 육군에 상당량 수집되었고, 육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정량화된 분석을 시작했다. 드퓨이는 이 분석에서 전술적 영감을 얻었는데, 당시 유럽에서 숫적으로 우위인 바르샤바조약군과의 전면전에서 벌어질 ‘수적 우세인 적과의 전투(fighting outnumbered)’⁶¹⁾였다. 드퓨이는 “현재의 교리, 최근

60) Herbert, *Ibid*, p. 57.

61) 숫적 우위와의 전투는 드퓨이만의 독창적인 전술적 영감이라기 보다는 당시 TRADOC의 화두였다. 고먼이 4차 중동전의 잠정적인 교훈을 ARTEP과 훈련회보에

의 군사 경험 ... , 적의 무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의 전술은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결국 드퓨이가 고민한 전술교리의 시작은 적과 아군 무기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출발하며, 여기서 냉혹하고 엄연한 사실에 기초한 구체화된 전술을 개발하여 모호한 추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리발전의 종결이었다. 드퓨이에게 받은 강한 요구로 TRADOC은 최근의 사례를 조사하고, 사거리 함수로 계산된 소련 무기의 명중 확률 같은 육군 물자체계 분석국(Army Materiel Systems Analysis Agency)의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술을 개발해야 했고, 드퓨이가 묻는 미국의 전차포 포수들이 각 소련의 무기 체계와 교전할 수 있는 사거리와 같은 고도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야 했다.⁶²⁾ 1964년부터 미육군은 기계화보병전투차량(Mechanized Infantry Combat Vehicle, MICV)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M2브래들리 보병전투차(IFV)의 전신이 되는 사업은 모호한 요구도와 활용도로 약 10여 년간 국방부(DOD)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보병전투차는 드퓨이의 전술관에서 필수적인 무기체제로 FM 100-5작성이 중심이 되어 교리개발과 무기체계개발의 분석을 연결시켰다.⁶³⁾

통합하면서 구체화된 개념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How to Win Outnumbered”의 제목으로 게재한 후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큰 병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이스라엘 전차승무원의 높은 수준에 기인한 전차전의 승리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62) Romjue, *Ibid*, p. 4.

63) “숫적 우위인 적과 싸우는 전투에서 전차주도의 전투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MICV가 전차와 함께 이동하며 적의 대전차무기를 장거리에서 제압하여야 하며, 엄호망 개념하에서 제압사격을 통해 하차보병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BMP의 73mm주포 사거리 이상에서 선제적으로 격파할 수 있어야 하며, 대전차유도미사일(ATGM)을 발사할 수 있어야 기관포 등에서 보호가 가능하다. 현재 육군의 장갑차인 M113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드퓨이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용상으로도 MICV는 소련군의 BMP나 독일군의 Marder보다 적게 들어야 했으며, 드퓨이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 외에도 순수 전술교리도 이 체계분석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1950년대 초부터 육군의 방어전술교리는 크게 ‘기동방어(mobile defense)’와 ‘지역방어(area defense)’로 제시되어 있었다. 기동방어는 기갑제대로 적 공격전력을 파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지역방어는 보병진지를 중심으로 기계화된 포병화력으로 지역을 유지하는데 중점이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전 이후 유럽전역에서 방어전술로서 이 두 가지 방어형태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당시 미육군의 유럽주둔 병력부족으로 인해 할당된 책임지역의 방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미육군은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이에 보병학교에서는 ‘전력지향방어(force-oriented defense)’라 불리는 전술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이 전술은 공격자의 전투력을 계획된 지역에 끌어들이고 후 소모전투를 벌여 약화시키는 개념으로 전면전을 대비한 보병학교의 노력이 반영된 산물이었다. 이후 1974년 8월, 보병학교는 이 개념을 대전차미사일(ATGM)로 요새화된 진지를 기반으로 하는 ‘강점방어(strongpoint defense)’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드퓨이의 분석⁶⁴⁾에 의해 폐기되었고, 기갑학교의 데이비드 탐미넨(David L. Tamminen) 중령이 주축

이것이 육군의 능력의 핵심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레징거 장관에게 MICV와 우리가 독일 동맹국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채택해야 할 전술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보시다시피, 저는 군대가 이번 전투에서 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Herbert, *Ibid*, pp. 78~79.

- 64) 고먼의 “다수와의 전투” 논문과 드퓨이의 전술관, 4차 중동전의 교훈 등이 통합되어 발전한 “개념초안서 전투작전(Combat Operations)”에서 드퓨이는 “방어의 기본 개념은 자신의 무기 사용을 최적화 하는 것, 자신의 취약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형의 모든 가능한 이점을 활용”, “공격자의 계획과 행동을 예측하고 물리치는 무기 배치와 행동을 상호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대전차 방어는 대장갑/대전차 무기체계 구축이며, 미국의 대전차 무기들의 사정거리, 정확도, 사격속도 등 논의”, “엄호망으로 적 진지와 방공망제압, 공격하는 적 전차의 효과 33%이상 감소”, “행동의 중요단계에서 일정량의 포병지원” 등으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었다. TRADOC, “Combat Operations”, Draft concept paper enclosed in Deputy to Tarpley(1974). Swain, *Ibid*, pp. 121~136.

이 된 전술개발팀은 미육군 제5군단의 책임지역인 독일 국경인 풀다(Fulda) 근방의 지역을 배경으로 위계임을 구축하고, 이 연구를 훈펠트I(Hunfeld I)로 명명하였다. 기존의 CACDA가 개발하는 유럽시나리오가 있었지만 드퓨이는 스테리와 기갑학교에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옥토버페스트를 기갑학교가 위치한 포트 녹스(Knox)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체계분석 등으로 1974~1975년, 약 2년간 미육군은 4차 중동전의 교훈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1975년 2월 드퓨이는 TRADOC의 전훈분석을 종합하여 “중동 전쟁이 미군의 전술, 교리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Implications of the Middle East War on U.S. Army Tactics, Doctrine and Systems)”⁶⁵⁾이라는 제목으로 선정된 인원에게 기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술과 교리 이상의 문제를 미육군에게 제기하였는데, 이전의 육군이 경보병으로 베트남전을 수행하였다면 현재의 유럽과 중동에서는 대규모 기갑전이 주축인 전면전을 수행함을 의미하였고, 이에 따라 드퓨이는 육군의 전술적인 문제들을 고민했다.⁶⁶⁾

다. 본격적인 교범 작성의 시작

1975년 4월, 드퓨이는 쿠쉬먼이 교범작성 참여를 거부하자 총괄

65) Swain, *Ibid*, pp. 75~112.

66) 그는 4차 중동전에서 이전의 미국이 경험한 전쟁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새로운 치명성(new lethality)’이라는 징후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향상된 전차포, 사격통제장치, 장거리화포, 대전차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등이 발생시킨 빠르고 막대한 사상률은 역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적으로부터 미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추론되었다. 그리고 4차 중동전에서의 이집트와 시리아 같이 유사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소련의 도움으로 고도로 장비된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국가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미군이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많은 수의 장비를 갖춘 적군과 초전부터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Herbert, *Ibid*, pp. 31~36.

기능을 CAC에서 TRADOC본부로 완전히 이전하였다. 드퓨이와 쿠쉬먼의 반목은 1974년 12월 첫회의 시작부터 1975년 5월 후속회의 까지 반년간 지속되었다. 이미 4월 쿠쉬먼은 초안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의만 참석했다. 드퓨이는 오랜 경험에서 보통의 인간에게는 진정한 주도성(initiative)은 힘들며 직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간명한 용어로 명확하게 임무와 훈련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리를 복잡한 부대의 작전 활동을 정리하는 도구로 여겼고, 현대 전장에서 필수적인 전술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드퓨이에게 교범은 야전부대들의 활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의 통로였고, 교리 및 훈련—소요—개발—획득 절차로 구성된 체계의 시발점이 되어야 했으며, 궁극적으로 육군을 바꾸기 위해 교리를 바꾸는 제도상의 목적이 사명처럼 있었다. 반면 쿠쉬먼에게 교리는 제도적 목적보다는 진리는 찾는 것에 있었으며,⁶⁷⁾ 이성에 의해 최고의 가능한 생각을 제공해 주는 구속력이 없는 지침일 뿐이었다. 드퓨이가 원하는 교리의 내용은 소련과 미국의 무기 능력에 상세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된 교범으로 사용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규칙이었고, 이를 위해 면밀한 기술 분석과 위계임을 기반으로 교리를 작성하길 원했다. 쿠쉬먼은 교범에서 그가 몸담았던 육군의 전통을 충분히 유지시키길 원했기에, 그의 초안은 과거에서 문구를 인용하고 과거의 교범과 같은 형태를 유지했다. 정반대로 드퓨이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변혁을 원했다. 육군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현대전의 치명성에 기반한 긴박감을 교범의 형태와 문장으로 전달해야 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들로 인해 드퓨이는 충분히 쿠쉬먼의 작성안이 자신의 신념과 모순됨을 깨달았고, 결국 쿠쉬먼의 ‘사고하는 토론’과 드퓨이의 ‘명확한 것을 가르치는 것’의 근

67) “유효한 교리를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 이론, 경험, 귀납적 추론에 의해 ... 보통 가장 잘 작동하는 것에 대한 계몽적인 설명 ... ”
Herbert, *Ibid*, p. 55.

본적인 관점 차이로 인해 쿠쉬먼이 만족할 만한 교범을 결국 쓰지 못할 것을 인지했다. 결국 드퓨이는 CAC에 부여했던 FM 100-5의 주작성 임무를 철회하고, TRADOC에서 직접 작성할 팀을 편성했다. 마지막 후속회의에서 드퓨이는 일관성, 단순성, 직접성, 주장성, 명확성 등 본인의 철학이 명확한 작성지침⁶⁸⁾을 하달했다. 그리고 각 장의 작성을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소위원회에 할당했는데, 주요 할당을 보면 공격은 훈련부사령관인 고먼 준장, 방어는 보병학교장인 타플리 소장, 정보는 TRADOC 사령관인 드퓨이 본인으로 지정하여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기간이 종료하면 작성지휘자가 내용을 전체에게 브리핑하게 했다.

드퓨이의 성향대로 교범작성은 광범위하게 공개된 작성과정 보다는 소수의 작성팀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작성팀은 ‘보트창고갱(boathouse gang)’이라고 불렸으며, 에드윈 스크라이브너(Edwin G. Scribner) 대령을 팀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⁶⁹⁾ 이 시기부터 드퓨이는 엄격히 외부로 자료공개를 통제하였으며, 제병협동에 관련 교범들⁷⁰⁾에 대한 작성을 병행하였다. 작성팀에게 드퓨이는 ‘고상하거나 철학적’이지 않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할 것을

68) “일관적이며 ...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 중대, 대대, 여단, 사단 수준에서 우리 지휘관들이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원칙에 집중하기 위한 것 ...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단일 우발적 사건들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 Herbert, *Ibid*, pp. 58~59.

69) TRADOC 사령부본부 주둔지인 포트 먼로에 과거 요트클럽의 보트를 보관하는 낡은 창고가 있었는데, 이를 개조하여 작성팀의 사무실을 만든 것에서 보트하우스갱이라는 명명이 기인한다. 이 작성팀은 TRADOC의 훈련참모차장인 고먼 소장의 작전연구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영관급 장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이 고먼의 훈련문헌의 작성할 때 드퓨이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드퓨이는 작성준비과정 내내 이들을 개인참모로 활용했고, 업무성적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들을 재기용하였다. 이들은 아예 드퓨이의 참모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컨셉팀’, ‘보트하우스갱’, ‘전술개념사무실’ 등으로 불렸다. Herbert, *Ibid*, pp. 86~87.

70) TC 7-10 The Rifle Company(보병소총중대), FM 71-2 The Tank and Mechanized Infantry Battalion Task Force(전차 및 기계화보병 특수임무대대), FM 90-3 Desert Operations(사막작전) 등 남보람, 전게서(상).

강조하였다.⁷¹⁾ 사용자들이 읽는 모든 장에 화력우위와 제압의 필요성 메시지를 반복 강조하고, 직접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읽을 수 있어야 사용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화력우위와 제압은 아군이 수적으로 열세상태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는 핵심이론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초기부터 아군의 전력을 보호하고 생존하여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전력집중을 통해 유리한 전력비율로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⁷²⁾

1975년 가을, 고먼이 강조하던 ‘수적 우세인 적과 전투 및 승리(fight and win outnumbered)’와 드퓨이가 필수로 강조하던 고먼의 표현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win the first battle)’가 FM 100-5의 가장 중요한 기본개념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교범의 기준이 되었는데, 베트남전의 관습과 단절을 의미하고 유럽에서의 전면전의 재집중을 육군 내부에 알리는 선언 같은 것이었다. 이밖에도 전차의 결정적인 역할, 기계화(장갑화)의 중심성, 대전차전의 중요성, 무기체계와 전력비율에 대한 강조, 전술공군력의 막강한 위력, 명확(clear) · 단순(simple) · 구체(specific) · 단호한(assertive) 등의 언어가 있었다. 이러한 만족스러운 개념들은 출판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12월 육군지휘관 컨퍼런스에 일정을 맞춰 초안교범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잠재적 반대를 물리치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했다.

71) 남보람, 상계서(상) ; 드퓨이는 현대적인 유럽전역에서 이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동원을 통한 전면전이 불가하고 첫전투에서 승리를 강조했지만, 교범에 대해서는 예비군 장교(reserve officers)와 징집병(draftees)들이 읽고 활용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Herbert, *Ibid*, p. 87.

72) 드퓨이가 생각하는 좋은 전술은 전장에서 집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대담한 집결, 공군의 지원, 리더십 등을 강조하였다.

5. 교범의 완성과 논란

가. 최종 합의

10월 초, 드퓨이는 커윈 장군의 후임 FORSCOM사령관인 버나드 로저스(Bernard W. Rogers) 장군의 지지⁷³⁾를 받기 위해 전해 10월 개최된 옥토버페스트와 유사한 10월 전력사령부-교리·훈련사령부 컨퍼런스(October FORSCOM-TRADOC Conference, OFTCON)를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 FORSCOM의 지지를 받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었다. 우선 미대륙 내에 있는 모든 야전부대가 FORSCOM의 소속이었고, 예하의 11개 사단 중 7개 사단이 기갑/기계화부대가 아닌 공중기동사단, 공수사단, 보병사단 등으로 전통적인 보병이었으며, 이들은 보병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베트남전의 경험이 많았고, 비탑승교리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의 유산과 결별하는 유럽전역중심과 기갑/기계화 작전교리에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쿠쉬먼 장군의 이전 직책이 101공수사단의 사단장이기도 했으며, 보병병과에서 영향력 있는 장교였다. 교리작성 간 보병학교와 CAC가 반발하여 쿠쉬먼과 보병병과가 작성과정의 상당부분에서 제외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73) 전력사령부(FORSCOM)와 훈련·교리사령부(TRADOC)이 분리하기 직전 대륙군사령부(CONARC)의 사령관인 커윈 장군이 신설된 FORSCOM의 초대사령관이 되었고, 당시 CONARC의 부사령관이었던 드퓨이와 관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커윈 장군 시절에는 TRADOC은 FORSCOM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 버나드 로저스 장군은 1940년 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했지만, 제2차세계대전에는 참전하지 않고 육사에서 경제학, 행정학, 역사학 등을 강의했다. 하지만 다시 야전으로 돌아가 한국전쟁,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사단장, 육군인사참모장, FORSCOM사령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보병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OFTCON에는 육군 참모총장 웨안드 장군, FORSCOM과 TRADOC의 고위급 장교단, 예비군, 주요 해외사령부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주요의제로는 헬리콥터에 의한 전력의 전술적인 이동과 중강도분쟁에서의 전차와 헬리콥터의 활용을 다뤘다.⁷⁴⁾ 이렇게 헬리콥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육군이 주요 획득사업으로 내세운 ‘Big Five’ 중에 2개가 헬기사업이기도 했지만 비탐승보병들의 반발을 달래야 했기 때문이었다. 드퓨이는 바르샤바조약군과의 전면전에서 발전된 방공망의 존재로 헬기작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치적으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⁷⁵⁾

OFTCON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자 전해와 동일하게 드퓨이는 주유 럽미군과 독일군을 만나기 위해 독일로 이동했다. 1975년 10월말 독일에서 열린 3일간의 회의를 통해 드퓨이는 FM 100-5의 초안을 독일군 최고위층에게 직접 브리핑하였다. 독일쪽에서는 HDv 100/100에 대해 브리핑하였으며, 양측은 두 교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토의했다. 드퓨이는 초청자인 독일 육군의 육군참모차장격⁷⁶⁾인 루디거 라이허르트(Rüdiger von Reichert) 장군에게 FM 100-5를 자세히 연구하여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독일에서의 귀국한 드퓨이는 방문을 ‘전폭적인 성공’으로 평가했고, HDv 100/100과 FM 100-5의 ‘중요한 차이는 없다’고 평가했다.⁷⁷⁾

74) 이 회의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부대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101공수사단이 헬기이동으로 주력이 되는 강습사단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75) 드퓨이도 대전차전에 공격헬기가 유용하다는 것과 4차중동전에서 헬기와 오토바이 등으로 대전차미사일팀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카할리니, 전계서. ; Herbert, *Ibid*, p. 90.

76) 육군부감찰관(Stellvertretender Inspekteur des Heeres)

77)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국경을 따라 전진 방어하는 임무를 이해합니다. 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모든 의도와 목적이 동일합니다. 방어 전술과 기술의 원리는 같습니다”. Herbert, *Ibid*, p. 66. ; 하지만 ‘적극방어’는 드퓨이, 고먼, 스테리의 성향과 전술관을 기반으로 위계임을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드퓨이는 OFTCON과 독일군과의 회담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11월에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자신의 작성 지지세력을 규합했다. 드퓨이, 고먼, 스테리는 교범의 가장 중요한 6개의 장을 다시 할당하여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1장 미군의 목표’는 드퓨이, ‘2장 현대전장의 현대무기’는 드퓨이와 고먼, ‘3장 어떻게 싸우는가’는 드퓨이와 스테리, ‘4장 공격’과 ‘5장 방어’, ‘6장 철퇴’는 스테리가 마무리 작성을 주도했다. 쿠쉬먼은 읍저버로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지만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장성급 장교의 참여는 없었다. 이 작성을 마지막으로 교범의 초안본 작성이 완료되었다. 최종 합의과정인 12월 육군지휘관 컨퍼런스에서 드퓨이의 브리핑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교범 초안 사본을 제공하고 1976년 2월까지 별도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1976년 1월에 독일군의 최종 동의를 얻었고, 4월에는 일러스트 작업을 마무리하여 최종판을 완성했다. 7월 1일부로 교범은 육군의 최종 승인이 완료된 이후 인쇄가 시작되었다. 교범의 배포가 시작되자 드퓨이는 ‘보트창고갱’ 작성팀에게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하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데, 강한 영향을 받은 독일 육군의 교리외도 상이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 독일군의 방어교리는 지형중심의 은폐와 기습을 강조하고, 잘 준비되고 통제된 사격을 중심으로 화력을 강조하였다. 반면 적극방어는 강력한 화력으로 결정적인 전투 전까지 적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이 있었고, 결정적인 전투시에는 기갑이 주요노력의 무기였고, 기계화보병을 포함한 다른 모든 병과가 전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David L. Tamminen, “How to Defend Outnumbered and Win”, *Field Artillery Journal*, Fort Sill, U.S. Army Field Artillery School(1976). 이런 기술적인 전술관의 차이보다도 본질적으로 독일은 추상적인 ‘전력비율(force ratios)’만이 있었고, 사기, 리더십, 측정할 수 있는 요소 등을 가미했고 계량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방어의 경우 적과의 전력비를 숫자로 명시하였으며, 추상적인 요소를 중시하지 않았다. ; 공격작전에서 결정적인 전투에서는 아6:적1, 방어시에는 아1:적3 등으로 전력비율을 설정하였다. 다만 방어의 비율에서 강력한 화력과 공군의 지원이 있다면 아1:적5 정도로 잠시동안도 가능하다는 화력의 적용과 예외를 두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은 작전을 예하부대의 자유로운 행동을 중시하였지만, 적극방어는 통제된 큰 시스템으로 보고 특정한 임무들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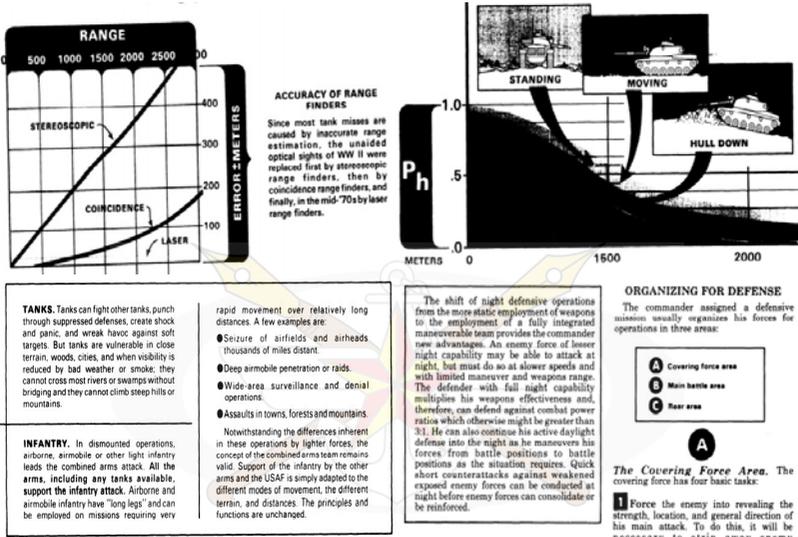
입니다. 그 충격은 ... 천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교범은 군대의 방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며 공로를 치하했는데, 이는 ‘드퓨이 본인의 영향력으로 육군을 바꾼다는 사명’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나. 교범의 주요구성

작성된 FM 100-5 작전 1976년판은 ‘1장 미군의 목표’에서 적이 미군의 무기같이 효과적인 무기로 무장하며, 미육군은 적은 병력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상대하며,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를 강조한다. ‘2장 현대전장의 현대무기’에서는 강조하던 치명성에 관련한 내용으로 전차 · 보병 · 야전포병 · 방공 · 항공력 · 육군항공 · 야간전투 · 지뢰전 · 전자전 · 전술핵무기 · 기동과 템포 순으로 무기의 성능 향상과 전장에서의 운용술에 대해 일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도왔으며, 통계자료와 무기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장 어떻게 싸우는가’에서는 중부유럽의 중요성과 현대전장의 특징, 지형을 이용한 은 · 엄폐를 활용한 생존의 강조, 전장의 역동성을 강조하는데, 방어자는 3배의 적을 상대해야 하고 공격에서는 결정적인 지점에서 6배의 전력을 요구하는 전력비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력비는 기존처럼 병력에 의존하는 전력이 아닌 화력과 무기의 전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자주포, 주력전차, 기계화보병, 방공무기, 공격헬기 등을 사용하여 전투력을 빠르게 이동시켜 집중시키는 기동을 강조하였다. ‘4장 공격’에서는 적의 방어화력을 제압하고, 충격을 주며, 후방을 공격하는 간접전략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제병협동을 통해 전차를 주요 무기로 결정적인 전투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했다. ‘5장 방어’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전장환경에서 지휘관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

고, 중요한 시기와 장소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방어도 공격과 동일하게 제병협동과 기동력을 강조하였으며, 지휘관의 전투결정 능력 역시 강조하였다.

〈그림 1〉 FM 100-5 작전 1976년판 기술 내용



출처 : FM 100-5 Operations(1976) p. 2-5 ; p. 3-11 ; p. 4-7. ; p. 5-10

교범의 핵심내용인 2~5장을 보면, 기존의 모호한 기본원리, 전쟁사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현대무기의 제원, 운용술 등을 기반으로한 전투에서 이기는 전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모호한 독자층을 거부하고, 병과별(기갑, 보병, 기계화 보병, 야전포병, 전투공병, 통신 등), 계급별(장군, 대령, 중령, 대위, 분대장, 포수 등)의 임무를 직접 기입함으로써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상용제품의 사용설명서 수준으로 기술하려고 했다.

다. 교범 공개 후 논란

FM 100-5 교범은 7월에 초도 출판 후 육군본부 참모부, 각 사령부본부, 각 군단 및 사단, TRADOC예하 각 학교들에 1,000부씩 배부가 되었다. 8월에는 현역육군, 연방예비군, 주방위군 등 모든 부대들의 전투병과 중대급 부대에 2만부 가량이 배부되었고, 지속적으로 총 15만부가 배부되었다. 9월에는 해외까지 포함한 모든 육군 사단들에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새 교범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범 배부 전 중장으로 진급한 스테리는 유럽에 주둔중인 제5군단의 군단장으로 직책을 수행 중이었고, 군단의 상급부대인 제7야전군의 사령관인 조지 블랜차드(George S. Blanchard) 장군과 인근 군단인 제7군단의 데이비드 오토(David E. Ott)⁷⁸⁾ 장군을 설득하여 군단의 방어작전 계획을 새로운 교리에 따라 작성하게 했다. 드퓨이는 육군이 해·공군과 같이 정교한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로 무장한 사람’의 구조에서 ‘승무원을 보유한 무기’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드퓨이는 교리부터 바꾸고 조직 및 장비도 교리에 기반하여 바뀌길 원했다. 이후 ‘사단 재구성 연구’, ‘육군 예산 및 조달 지원을 위한 무기체계 분석’, ‘일관된 동맹군 교리’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이렇게 적극방어 교리는 단순하게 ‘교범과 교리의 전환’이 아니라 육군을 바꾸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다.

FM 100-5 교범이 출판되어 공개되자 교범의 출판은 군사계에서

78) 데이비드 오토 장군은 교범작성 기간인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포병학교의 학교장으로 있었고, 포병학교는 적극방어 작성에 호의적이었으며, 이후 공지전투 작성에 기본개념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TRADOC과 드퓨이, 스테리의 지지세력이었다.

미육군이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재배치되는 전략적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며 관심을 받았다. 현대무기의 치명적인 위력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와 구체적인 세부사항, 그리고 명확한 묘사로 현대전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전술적인 논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제시된 교범은 군사 전문 저널들의 활발한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교범에 대한 군사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좋았고, 호의적인 평가 쪽에서는 열광적으로 ‘교리 르네상스’, ‘미육군의 이정표’,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 ‘방어의 정수’, ‘최고의 작전교범’ 등으로 찬사를 보냈다.⁷⁹⁾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비평들이 다양한 경로에서 쏟아졌다. 초기 비평들은 크게 ‘공격을 희생하면서 수비를 너무 강조’, ‘힘의 비율과 적군의 파괴를 강조하면서, 전쟁의 심리적 측면을 무시’, ‘유럽에서의 전투에 너무 좁게 초점을 맞추어서 세계 다른 곳의 우발 상황을 배제’ 등으로 정리되는데, 점차 많은 비평가들이 날카롭고 광범위한 질문과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초기 비평 중 하나로 NATO의 연합최고사령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 사령관 알렉산더 헤이그(Alexander M. Haig) 장군에게서 드퓨이에게 온 편지가 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 ‘공세의 부족’, ‘유럽중시 강조 우려’, ‘방어에 대한 편협한 초점’ 등을 우려했고, ‘상대의 전투 의지를 파괴하는 데 있어 공세적 기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헤이그의 편지는 다른 비판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 편지가 더 크게 우려스러웠던 것은 육군 내에서

79) 저명한 군사평론가 필립 카버(Philip A. Karber)는 교범을 ‘교리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했으며, 캐나다 비평가인 댄 루미스(Dan G. Loomis)는 미육군의 이정표로서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육군 지휘참모대학의 전 군사사 학장인 아처 존스(Archer Jones) 박사는 집중의 원리와 “오래된 진실, 방어적 정수”로 육군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다고 극찬했다. 같은 해 4월, 콜린 그레이(Colin S. Gray) 허드슨연구소의 국제전략센터의 전 부센터장은 교범을 육군의 “훌륭한 새로 완성된 작전교범”이라고 언급했다. Romjue, *Ibid*, p. 13.

고위급 장성들이 갖는 인식이 헤이그와 유사하고, 교범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당시 적극방어에 대한 극렬한 논쟁들을 크게 방어강조, 최초전투지향, 소련의 돌파 기동, 전술예비대이슈, 화력강조, 집중전술 등으로 정리되고 있다. 우선 방어중시는 많은 비판 중 가장 큰 목소리였는데, 교범에 “전투의 결과는 공격 작전의 결과에서 비롯된다”라는 문구로 명시하고 스테리가 공격에 대한 장을 주도적으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비평가들 뿐 아니라 지지하는 비평가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장 극렬한 반대파이었던 비평가 윌리엄 린드(William S. Lind)⁸⁰⁾는 기동에 대한 추구는 하지만 공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지지파이었던 필립 카버도 공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터무니없다며 방어의 이점을 포기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평가들에 대해 TRADOC은 “교범은 공격적 행동이 선호하는 전투 형태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격과 방어 모두와 연계된 대담한 작전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Armed Forces Journal⁸¹⁾에 게재했다. 린드의 비판은 최초전투지향과 소련의 돌파전술에도 이어졌는데,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의 1,200대 전차를 과연 미군이 1차 전투에서 한번에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범에서는 예비대를 두지 않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부대가 방어전면에 있을 수 있다는 기술에 반발과 예비대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린드는 교범이 화력소모교리(firepower-attribution doctrine)라고 평가하며 비판을 가했고, 카버는 탄약의 발달로 화력이 우세해진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⁸²⁾ 하지만 TRADOC은 화력소모에 대한 의론이 아니며, 공격

80) 초기의 반대는 1977년 3월에 비판한 콜로라도주의 게리 하트 상원의원의 보좌관 윌리엄 린드(William S. Lind)가 주도했다.

81) TRADOC's Reply, Armed Forces Journal, (1976).

과 방어 모두 함께 대담한 작전을 추구한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중전술에서 린드는 적의 우수한 교란 및 전자전 능력이 아군의 통신과 지휘통제를 방해한다는 현실과 적의 지휘관이 아군의 방어선을 움직이지 못하게 충분한 압력을 가할 때, 적의 공격축 방향으로 측면 방어부대가 제한 없이 횡방향 이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린드는 결국 교범이 선형방어(linear defense)를 옹호하는 교리라고 해석하였다. 카버는 이에 대해 교범은 선형방어가 아니라 거대한 중심 기동방어(mobile defense of greater depth)라고 반박했다. 그 밖에도 소련의 고밀도 집중전술로 방어측의 전력비가 21:1까지 열세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적극방어는 일부 방어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⁸³⁾

교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1977년 논란을 뒤로한 채 윌리엄 드퓨이 장군은 TRADOC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하였다. 결국 드퓨이 장군의 전역 이후 FM 100-5 작전 1976년판 교범은 연합최고사령부 사령관 알렉산더 헤이그(Alexander M. Haig) 대장, 3군 단장 리처드 카바조스(Richard E. Cavazos) 중장,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Edward C. Meyer) 대장 등 미육군내 여러 고위직들의 압력으로 ‘적극방어’ 교리 자체로 육군에서 거부되었다.⁸⁴⁾ ‘적극방어’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만큼이나 교범을 개정하기 위한 빠른 진행도 이어졌는데, 육군은 새로운 FM 100-5 작전 1982년판⁸⁵⁾을 출판하여 기존의 교범을 대체하였다. 이 교범과 교리는 ‘공지전투’로 널리 알려졌으며, 후일 1991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교리로 평가받는다. ‘적극방어’ 교리에서 ‘공지전투’ 교리로의 대체는 ‘적극

82) 허버트는 이에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권위를 얻기 위해 방어위주의 국방정책으로 방어위주일 수밖에 없는 독일과 화력 중심의 공군의 합의가 과연 교리작성에서 현명한 과정이었는지 의구심을 보인다. Herbert, *Ibid*, pp. 72~73.

83) Romjue, *Ibid*, pp. 13~21.

84) Herbert, *Ibid*, pp. 96~97 ; Kaufman, *Ibid*, pp.3~4. ; 남보람, 상계서(하).

85) *FM 100-5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1982).

방어' 교리의 거부와 실패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6. 결 론

1976년판 이전의 FM 100-5 교범은 변화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1976년판은 당시 육군에게 윌리엄 E. 드퓌이 장군이 주작성자⁸⁶⁾로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 교범이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드퓌이의 의도대로 '육군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교범은 훈련부터 무기체계 설계까지 육군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싸우려는 지'에 대해 합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 투쟁의 교리이자 획득 전략이었다. 베트남전의 경험과 관습을 육군에서 종결시켰으며, 전문 모병군으로 탈바꿈한 육군에게 과거 징집군의 '무기로 무장한 사람'의 구조에서 모병군의 '승무원을 보유한 무기'의 구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전의 모호함과 추상성을 완전히 버린 교범은 실용성과 야전성을 갖추고 전례없는 교리적 혁신을 몰고 왔다. 드퓌이는 교범을 통해 육군이 교리와 전술을 논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했다. 그 논의는 육군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정치·안보정책·군사전략·위기관리·인지심리 등 다양한 학문 분과 연구자들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교리 르네상스라는 찬사보다는 비판이 더 거세었으며, 결국 적극방어 교리는 시작과 동시에 대체가 논의되었고 불과 5년 후인 1982년 '공지전투'로 대체되었다. 적극방어 교리가 태동한

86) 19세기 훈련교범이 작가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향(Henry W. Halleck, William J. Hardee, Silas Casey, Emory Upton)이 있었기 때문에 1976년 판도 DePuy 교범으로 알려지는 것은 전통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전의 FM 100-5 교범 판본들은 딱히 저자의 이름이 교범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Herbert, *Ibid*, p. 7.

1970년대는 미육군에게 위기의 시대였다. 10여 년간 베트남전의 진창에 빠진 미육군은 외부적으로 그 기간 만큼 현대화되고 거대한 규모로 증대한 소련 및 바르샤바조약군과 대치해야 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감군과 예산삭감에 맞서야 했다. 적극방어 교리 역시 이와 같은 내외부적인 위기를 기반으로 태동했다. 교리에서 미육군은 수적으로 우세인 상대와 싸워 이겨야만 했고, 동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첫 전투부터 완벽하게 승리하고 생존해야만 했다. 또한 이와 같이 상식적이지 않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대전의 특성인 무기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은 미육군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적극방어에 대한 극렬한 비판과 거부는 의견상으로는 교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었지만 사실상 미육군의 전통을 벗어난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으며, 인간 드퓨이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⁸⁷⁾ 역설적으로 이러한 극렬한 반응은 육군이 적극방어를 교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드퓨이가 취한 조치에 기인하는데, 의도적으로 도해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TRADOC의 모든 훈련 계획안에 결합함으로써 교범에 관심이 없던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허버트의 언급대로 “그 교범은 명령어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사용 가능하고, 매력적이고, 읽기 쉬웠기 때문에, 육군 장교들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고 적용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작성하고, 결국 거부했습니다”⁸⁸⁾ 하지만 그렇기에 1976년판에는 드퓨이에 지문이 찍힌 듯한 전술관이 반영될 수 있었고, 쿠쉬먼이 작성한 미육군의 전통을 계승한 초안을 승인하였다면 교범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개 평범한 교범으로 역사에 묻혔을 것이다.

사실 이 교범은 1944년 6월 노르망디에 제90보병사단이 상륙할

87) 남보람, 상계서(하). ; Nyingi, *Ibid.* ; Kaufman, *Ibid.*

88) Herbert, *Ibid.*, p. 98. ; 남보람, 상계서(하).

때부터 시작하였다. 미숙한 예비군장교와 징집병으로 구성된 미육군은 진보한 군사학과 수년간의 전투로 단련된 독일국방군에게 엄청난 인명손실을 겪으면서 새로운 현대전을 피로 체득했다. 하지만 이후 30여년이 흐른 1970년대에도 이러한 피의 교훈은 교리로서 정립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90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에게 ‘우수함(brilliant)’, ‘고무적이고 용기있는 지도력(inspiring and courageous leadership)’, ‘이 전쟁에서 최선의 보병작전 예(some of the finest examples of infantry operations in this War)’ 등으로 평가받았던 청년장교 드퓨이의 평생 체득으로 완성된 전술관은 사명과도 같이 추진한 그의 신념으로 미육군의 교리가 되었다.

1991년 미육군은 대규모 전면전인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대파하고 큰 승리를 했다. 이라크군은 수년간 이란과의 대규모 전면전 경험을 체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6·25전쟁 이후 대규모 전면전을 하지 않은 미육군에게 농락당하는 수준으로 패배했다. 당시 미육군의 주력부대들은 완전한 상비연방군이 아닌 수많은 주방위군 부대가 혼합되어 편성되었음에도 이런 대승을 거둔 원인으로 많은 연구들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훈련, 그리고 훌륭한 교리를 지목한다. 드퓨이가 강조하고 정착시킨 교리 및 훈련—소요—개발—획득으로 이어지는 개념은 미육군의 개혁을 촉발했고,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투자된 막대한 예산으로 그 빛을 본다. 수십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최강의 무기체계로 명맥을 잇는 M1에이브럼스 주력전차, AH-64 아파치 공격헬기, M2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등이 그 예시이며, 훈련역시 고만이 창안한 SOT와 ARTEP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누구보다 제병협동을 강조한 드퓨이는 교리사에서 현재까지도 칭송받고 있으며, 그 공로로 미육군 제병협동센터는 매년 ‘윌리엄 드퓨이 장군 논문 경진대회’⁸⁹⁾를 연다.

‘공지전투’교리의 창시자이자 1977년 드퓨이 장군의 뒤를 이어 TRADOC의 사령관이 된 돈 스타리(Donn A. Starry) 장군의 표현대로 “어떤 육군 교범도 그렇게 널리 언급되고, 토론되고, 크게 오해된 적”은 없었다. 단순히 ‘적극방어’에서 ‘공지전투’로 교리의 대체가 드퓨이의 교리개발 실패라고 보기에는 기존의 1968년판 교리보다 큰 많은 발전이 있었고, ‘적극방어’ 교리의 작성자이며 열렬한 지지자인 스타리 장군이 ‘공지전투’의 창시자임을 고려하면, ‘적극방어’ 교리가 일반에 알려진 대로 사장되어 졌는지 아니면 발전하여 승계되어 졌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미육군의 교리사 연구는 극심한 군규모 감축과 대중의 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미 육군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는지 교리의 배경과 작성과정을 연구하여, 현재 병력감축과 낮은 대군신뢰도의 대한민국 시대상에서 한국군 장교단과 교리작성 기관, 그리고 특히 장군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육군은 대규모 전면전인 제2차 세계대전과 4차중동전의 교훈에서 현대무기의 치명성과 제병협동 등 전면전의 본질을 파악하여 위계임을 통해 교리작성의 근간을 삼았는데, 한국군의 교리작성 실태는 미군 교범의 피상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복제·수용하는 수준으로, 교리작성 경향이 정체되어 있다. 이에 문구해석 중심의 피상적인 연구를 넘는 미육군의 교리작성과정 전반의 연구를 통해 교리작성 간 추진배경과 논쟁과정을 포함한 전체 교리의 통섭적인 진의와 철학을 파악하는 요구가 절실하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순 군경험과 학술적인 전쟁사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한 근거와 소요제기가 필요하며, 그간 과학화전투훈련단(KCTC)과 전투지휘훈련단(BCTP)에서 축적된 전술은

용 사례의 반영과 진보된 새로운 워게임 시뮬레이터 구축이 교리개발 및 검증 용도로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수치를 구체화하여 교리작성까지 할 수 있는 조직과 구조를 통찰하는 명석한 장성급 지휘관이며, 강력한 리더십과 유능함으로 책임감 있게 장기간 작성과정을 수행하고, 공개되고 다면적인 참여가 보장된 교리작성과정을 통해 열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육군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리를 완성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만진, “한반도에서의 공세적 방어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 기동전 이론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 김영환, “미국 기동전 사상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공지전투 (AirLand Battle) 교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軍史』, 第123號(2022).
<https://doi.org/10.29212/mh.2022..123.219>
- 김재엽,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 공해 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韓國軍事學論集』, 第75輯 第1卷(2019).
<http://doi.org/10.31066/kjmas.2019.75.1.006>
- 김한수, “국군 개혁, 어떻게? 1970년대 美 육군 사례를 보자”, 『통일한국』(2018년 11월호),
<https://unikorea21.com/?p=19627>(검색일: 2022년 08월 24일)
- 남보람, “환영 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상)-1976년판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5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06/1/BBSMSTR_0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_____,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중)-1976년판 미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19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20/1/BBSMSTR_0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 _____,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하)-1976년판 미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

(2018년 11월 26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127/1/BBSMSTR_00000010603/view.do(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노양규, “미군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기련, “美國 安保政策과 軍事戰略의 變化 : 그 特徵과 決定要因”,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석영준, “군사혁신으로 본 전쟁사”, 『군사연구』, 제127집(2009).

양 욱, “적극방어전략”, 『무기백과』, (2021년 01월 20일),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3/2021011302163.html(검색일: 2022년 08월 14일)

_____, “미국 군사혁신의 변천사 : 군사변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혁신 과정”,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 58 (2021).

<http://doi.org/10.32961/jwhc.2021.03.58.181>

이병구, “미국의 제1차 상쇄전략과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펜토믹 사단 개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권2호 (2021).

<http://doi.org/10.18327/jias.2021.4.25.2.191>

장재규, “한국 육군의 다영역작전 적용 방안 연구: 공지전투와 비교”, 『韓國軍事學論集』, 第77輯 第3卷(2021).

<http://doi.org/10.31066/kjmas.2021.77.3.002>

조상태, “미 육군의 FM 100-5에 있어서의 공지전”, 『國防과 技術 (Defense and Technology)』(1985).

<http://uci.or.kr//G701:A-00106292523@N2M>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Vol 18-1 (2010).

<http://uci.or.kr//G704-001862.2010.18.1.004>

주정율,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관한 연

- 구: 작전수행과정과 군사적 능력, 동맹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통권 127호(2020).
<http://doi.org/10.22883/jdps.2020.36.1.001>
- 지효근,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 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군가안보와 전략』, 통권76호(2019).
<http://doi.org/10.23111/nsas.2019.19.4.005>
- 허광환, “미국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군사연구』, 제147집(2019).
<http://doi.org/10.17934/jmhs..147.201906.125>
- 해리 섬머스, 권재상·김종민 역, 『미국의 걸프전 전략』, 서울: 자작아카데미, 1995.
- 토머스 리스, 김영식·최재호 역, 『제네럴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22.
- A. 카할리니, 임채상 역, 『골란고원의 영웅들』, 서울: 세창출판사, 2000.
- Ancker, Clinton J. III, *The Evolution of Mission Command in U.S. Army Doctrine, 1905 to the Present*, Military Review March-April, 2013.
- Brownlee, Romie L., Mullen III William J., *Changing An Army An Oral History of General William E. Depuy, Retired*, U.S. Military History Institute, Washington, D.C. :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8.
- Cannon, Michael W., *The Development of FM100-5 from 1945 Until 1976*, University of Iowa, Master of Arts, 1984.
- Coffey, ROD A., *Doctrinal Orphan or Active Partner? A History of U.S. Army Mechanized Infantry Doctrine*,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00).

DePuy, William E., *FM 100-5 Revisited*, Army 30, no.11, 1980.

Doughty, Robert A.,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68).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2).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6).

Gorman, Paul F., *Cardinal Point: An Oral History — Training Soldiers and Becoming a Strategist in Peace and War*,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1.

Herbert, Paul H., *Deciding What Has to Be Done: General William E. DePuy and the 1976 Edition of FM 100-5, Operations*,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88.

Long, Jeffrey W., *The Evolution of U.S. Army Doctrin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and Beyond*,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1.

Kaufman, Aaron J., *Continuity and Evolution: General Donn A.*

Starry and Doctrinal Change in the U.S. Army, 1974–1982,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2.

Nyingi, Erick M., *Complexity and Design Leadership: The Design of Active Defense and AirLand Battle Doctrines*,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9.

Paquin Robert J., *Desert Storm: Doctrinal Airfield Battle Success or “American Way of War?”*,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8–1999.

Romjue, John L.,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 Fort Monroe,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1984.

Swain, Richard M.,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5.

Tamminen, David L., “How to Defend Outnumbered and Win”, *Field Artillery Journal*, Fort Sill, U.S. Army Field Artillery School, 1976.

(Abstract)

How was the Military doctrine of active defense born?
: Focusing on the process of writing the FM 100-5 Operations
1976 edition

Park, Sol-kyu

This paper studies the nature of the “active defense” army doctrine through the process of writing the doctrine reflected on the FM 100-5 in the 1970s, the center of violent doctrinal change, when interest and doctrine changed from the Vietnam War to a large scale all-out war.

General William E. Depuy, the first commander of the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founded in 1973, began developing conventional and total war doctrine that strongly reflected his own tactical idea. With full support of the Army Chief of Staff, General Abrams, Depuy began the development of an “active defense” doctrine in collaboration with his strong advocates on that military theory, General Paul F. Gorman and General Donn A. Starry, but faced a lot of opposition from existing infantry branch and field units. Depuy hosted OCTOFEST conference in collaboration with FORSCOM to gain authority to proposed doctrine, and collaborated with the German Army and U.S. Air Force Tactical Air Command to produce a doctrinal agreement in political perspective.

The FM 100-5 was written with Depuy’s strong will but he had gone through a painful process when the 1976 version of “FM 100-5 Operations” was finally ready to publish.

After the FM 100-5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y clashed with traditional offensive supporters inside and outside the army because the U.S. Army’s military ideology valued initiatives and traditional infantry doctrine. The “active defense” doctrine, which is the center of controversy, was eventually replaced by the ‘Airland-battle’ doctrine five years l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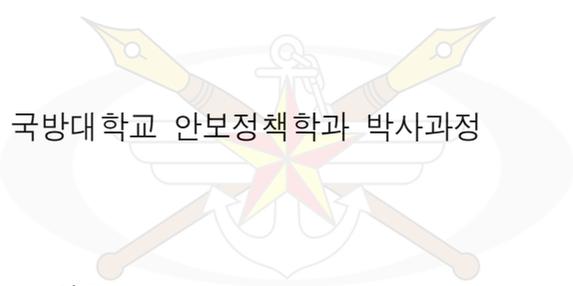
Keywords : Active Defense, army, doctrine, operation, airland,
battle, depuy, starry, gorman, tatic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175-208
<https://doi.org/10.29212/mh.2023..126.1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군의 정치개입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비교 :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한형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박사과정

- 
- 목 차
1. 서론
 2. 군의 정치개입(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3. 분석틀: 국내정치 안정성-군의 조직적 분열
 4. 이집트와 이스라엘군의 정치개입 비교
 - 가. 이집트: 국내정치 불안정-군의 조직적 분열
 - 나. 이스라엘: 국내정치 안정-군의 조직적 통합
 5. 결론

초 록 ‘군의 정치개입(MIP)’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한국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국가도 있지만 중동지역의 이집트와 이스라엘처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국가도 있다. 다만, 두 국가의 차이점은 이집트의 경우 군의 정치개입이 극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스라엘의 경우 제도권 내에서 온건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정치 안정성(Internal Stability)-군의 조직적 분열(Divided Military)’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국내정치 불안정-군의 조직적 분열’의 이집트는 민간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군이 신임을 얻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지만 이원화된 군 운용으로 인해 급진적인 형태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정치 안정-군의 조직적 통합’의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안보위협과 독특한 민군관계 형성으로 평시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군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직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급진적인 정치개입 행태를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숙된 민군관계와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온건한 군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도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전문화된 군이 국가의 안보정책과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문화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주제어 : 군의 정치개입, 민군관계, 국내안정성, 군의 분열, 이집트, 이스라엘

1. 서론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에 휩싸였다. 해당 문건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계획의 작성책임은 기무사가 아닌 합동참모본부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었다.¹⁾ 여기에 더해 공개된 문건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의견은 양분되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단순히 실무 차원에서 검토된 ‘계획’일 뿐이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군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해당 문건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라고 문건 작성자와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기무부대 개혁, 검찰 수사 등을 요구하였다.²⁾ 결국 이 사건은 국방개혁과 맞물려 기무사 개혁을 가속화시켰으며, 2018년 9월 1일부로 기무사는 공식적으로 해편되었고 임무와 활동범위가 축소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³⁾

* 본 논문은 2021년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중동학회가 주관한 제4회 중동 논문 공모전에 제출했던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 BBC 코리아, “기무사 계엄령: ‘기무사 계엄령’ 파문을 이해하는 4가지 질문,”

<https://www.bbc.com/korean/news-44803438> (검색일: 2021년 7월 25일).

2) 월간조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808100013> (검색일: 2021년 7월 27일).

3)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닷 올렸다...기무사 시대 마감,”

해당 문건의 적법성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는 차치하더라도 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난 점은 우리는 '군의 정치개입(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이하 MIP)'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간의 군사정권 경험과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저질렀던 과오, 문민통제에 기초한 민군관계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유독 군의 정치개입은 금기시되고 항상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터부(Taboo)'시 되면서 군 내부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어색한 일이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그 어떤 민주국가보다 문민통제에 대한 의식이 정치엘리트와 국민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군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가? 실제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매우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심지어 일부 국

<https://www.yna.co.kr/view/AKR20180831116851014> (검색일: 2021년 7월 27일).

4)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David J. Myers et al, "Support for Coups in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 Venezuelan Explor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30, No. 2(Jan., 1998); J. I. Elaigwu,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An African Perspective," *Geneva-Africa*, Vol. 19, No. 1(Jan., 1981); Majid Khadduri, "The Role of the Military in Middle East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7, No. 2(Jun., 1953); Martin C. Needler, "Political Development and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0, No. 3(Sep., 1966); Robert D. Putnam, "Toward Explaining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n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0, No. 1(Oct., 1967); Robert H. Epperson, "Russian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1991-96,"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10, No. 3(Sep., 1997); Vincenzo Bove et al, "Beyond Coups: Terrorism and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1(Mar., 2020) 등을 참조.

가에서는 군의 정치개입(쿠데타 포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터키의 경우 3차례에 걸쳐 민주정부가 혼란에 빠졌을 때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였고, 사회를 안정시킨 이후 민주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면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경우 쿠데타와 군사정권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쿠데타’는 지지하지만, ‘군사정권’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인들은 ‘쿠데타’와 ‘민주주의’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쿠데타를 의원내각제 하에서 의회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정도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⁵⁾

본 글의 연구대상인 이집트와 이스라엘도 군의 정치개입이 일상적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다. 이집트는 2011년 민주화 시위를 통해 30년 동안 집권했던 무바라크(Hosni Mubarak) 대통령을 권력에서 물리나게 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하였지만 2013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다시 군부정권이 권력을 잡는 현상이 발생하였다.⁶⁾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이행 이론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Initial Transition)’에 성공한 국가는 ‘공고화(Consolidation)’의 모습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화’ 대신 다시 군부정권이 들어서서 역행이 발생했던 것이다. 심지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얻고 집권하였던 무르시(Mohamed Morsi) 정부에 대한 군부 쿠데타를 시민들이 지지하는 매우 독특한 현상도 나타났다.⁷⁾

5) David J. Myers and Robert E. O' Connor, "Support for Coups in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 Venezuelan Explor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30, No. 2(Jan., 1998) 참조.

6) Martin Beck, "The July 2013 Military Coup in Egypt: One normative clarification and some empirical issues," *News Analysis of SDU's Resource Center on Middle East Studies* (Jul., 2013), p. 2.

7) 김은비, "이집트군의 정치개입," 『중동연구』 제37권 제1호(2018), pp. 59-61.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군의 정치개입에 있어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문민통제는 민간인과 군인 집단 간의 상대적 권력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이 분야의 권위자인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에 따르면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방식은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주관적(Subjective) 통제로 이는 민간권력의 극대화를 통해 군대를 정치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이다. 둘째, 객관적(Objective) 통제로 군 직업주의를 극대화하면서 군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영역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키는 것이다. 헌팅턴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객관적 문민통제’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⁸⁾ 군의 정치개입이 매우 일상적이다.

다만, 두 국가 사이의 차이점은 이집트의 경우 ‘쿠데타’처럼 급진적인 형태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졌는데 반해, 이스라엘은 제도권 내에서 외교·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온건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두 국가 사이에 군의 정치개입이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군의 정치개입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는 무엇인가? 본 글은 상기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먼저 제2장에서 ‘군의 정치개입’ 개념과 기존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양 국가에서 군의 정치개입 모습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다. 물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변수가

8)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여 지수로 나타낸 Polity IV Projec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94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9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https://www.systemicpeace.org/polity/isr2.htm> (검색일: 2021년 8월 16일).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내정치 안정성(Internal Stability) - 군의 조직적 분열(Divided Military)’ 분석틀을 중심으로 접근해 본다. 여기서 ‘국내정치 안정성’은 한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정성이 낮은 경우 집권 세력은 다른 권력집단이나 엘리트, 시민사회로부터 정권 유지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군의 조직적 분열’은 한 국가 내에서 군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⁹⁾ 수직적 분열은 이원화된 군을 운용하는 것이며, 수평적 분열은 군 내부에서 출신, 계층,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분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특정 세력의 행위가 다른 세력의 급진적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례 비교를 통해 상기 두 변수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군의 정치개입을 추동하고 개입형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와 한계를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2. 군의 정치개입(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민군관계’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는 군의 정치개입은 일부 학자들이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고 있는 명확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군의 정치개입을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가 아닌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로 사용하거나 두 단어를 혼

9) 김인수·이봉원, “이집트군의 분열 양상과 2010년 시민혁명,” 『국방정책연구』 제 27권 제1호(2011), p. 91.

용해서 쓰기도 한다. 하지만, 뉘앙스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단어 모두 ‘군의 정치개입’으로 번역되지만 ‘Involvement’는 군이 정치의 영역에 ‘관여’하거나 ‘관련’되는 것으로 정치엘리트와 국민들 사이의 합의와 필요에 의해 군이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정치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는 포괄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Intervention’은 ‘개입’ 또는 ‘간섭’의 의미로 조금 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군이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제한적인 역할만 하다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⁰⁾

여기에 더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많이 인용되는 정의 중 하나는 사무엘 파이너(Samuel E. Finer)의 “군의 정치개입은 군대가 그들의 정책과 인원을 민간 권력이 대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¹¹⁾ 또 다른 연구에서 클로드 웰치(Claude E. Welch)는 “정책의 선언, 발전, 이행과 관련하여 군과 민간 사이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관계”로 정의한다.¹²⁾ 최근에 진행된 빈센조 보베(Vincenzo Bove)의 연구에서는 “군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 스스로 또는 정책 결정자가 승인하는 과정과 행동”으로 표현된다.¹³⁾ 이와 같은 정의에서 공통되는 점을 추출해보면 “군이 민간권력과의 관계 속

10) 본 글에서는 ‘쿠테타’부터 ‘정계 진출’까지 직·간접적인 ‘군의 정치개입’을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Involvement’를 사용한다.

11) Samuel E. Finer, *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London: Pall Mall Press, 1962),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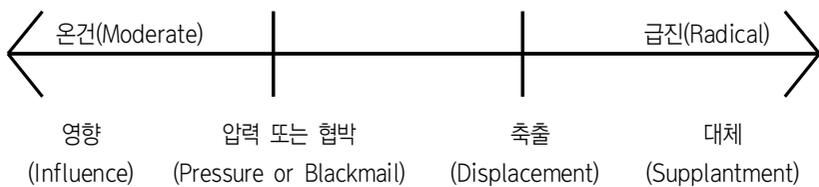
12) Claude E. Welch,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ory and Cases from Developing Countrie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76), p. 3.

13) Vincenzo Bove et al, “Beyond Coups: Terrorism and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1(March, 2020), Online Appendix, p. 2.

에서 정책결정과 이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의 정치개입 수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개입으로는 군인들이 군 개혁이나 국방예산과 관련한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개입은 군이 ‘상위 정치’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인데 이는 외교정책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국가 형성과정에서 헌법 작성에 관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¹⁴⁾ 가장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형태의 정치개입은 쿠데타를 통해 군사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분류로는 ‘영향력 발휘(Influence)’, ‘참여(Participation)’, ‘통제(Control)’ 3가지 유형의 정치개입을 구분하는 연구가 있다. 군의 ‘영향력 발휘’는 합법적인 채널을 통한다는 점에서 은근한 압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참여’와 구분된다. 세 번째 유형은 ‘통제’로 이는 군이 직·간접적으로 정부권력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마지막으로 사무엘 파이너(Samuel E. Finer)는 그의 저서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4가지 수준(level)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 1. 군의 정치개입 스펙트럼〉



먼저, 영향(influence)는 가장 온건한 형태의 정치개입으로 군

14) Vincenzo Bove et al(2020), Online Appendix, p. 2.

15) Claude E. Welch(1976), pp. 3-5.

부가 민간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 권력의 우위를 인정하면서 법적·제도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활용한다. 군 역시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관료조직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blackmail)은 군이 민간 권력을 강압 또는 설득하기 위해 위협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압력의 범위는 매우 폭넓은데 합법적/불법적 방식을 모두 포괄한다. 세 번째로 축출(displacement)은 군이 현재의 내각이나 지도자를 제거하고 다른 세력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지배세력은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을 통해 상대적으로 순응적인 민간 권력으로 교체된다. 마지막으로 대체(supplantment)는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정치개입으로 민간 권력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군이 차지하는 것이다. 군이 쿠데타를 통해 군사정권을 수립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입형태인 것이다.¹⁶⁾

군의 정치개입을 구분하는 연구들과 달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2가지 견해로 구분되는데 그들의 상반된 견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입장에서는 첫째,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군이 가장 현대적인 조직으로서 근대화 추진세력으로 역할이 가능하다. 둘째,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해 경제개발 및 사회개혁이 가능하다. 셋째, 사익과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부류는 첫째, 정치를 위해 전문화된 집단이 아니므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둘째, 군의 지배에 대한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셋

16) Samuel E. Finer(1962), pp. 86-87.

째,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출판·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며, 헌법을 폐지하는 등 민주화에 부정적이다. 넷째, 기타 부정부패 조장, 정치참여와 토론문화 저하, 군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¹⁷⁾

그렇다면 군의 정치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변수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저발전과 군의 정치개입 경향성에 대한 가설이다. 이는 사회적 동원능력(도시화, 교육수준, 커뮤니케이션 등), 경제발전(특히, 산업화), 중산층의 증가 등이 군의 정치개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둘째, 정치적 발전과 군의 정치개입을 연결시키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민간기관들에 대한 공공의 지지, 정치참여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정당·이익집단·민간 정부기관의 효율성 등이 군의 정치개입에 핵심적인 변수이다. 셋째, 군 조직의 내부적 특성이 군의 정치개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있다. 이는 군의 전문화 또는 정치개입의 습관화, 군 조직의 크기와 고도화를 핵심변수로 상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세의 영향을 주장하는 가설이 있다.¹⁸⁾

하지만 상기한 연구들은 군의 정치개입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 그리고 왜 군의 정치개입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인 ‘어떻게 군의 정치개입 형태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언제’와 ‘어떻게’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분석틀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17)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북코리아, 2005) 참조.

18) Robert D. Putnam, "Toward Explaining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n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0, No. 1(Oct., 1967), pp. 84-87.

그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많은 군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군의 정치개입’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현역 신분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영향력 발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군의 정치개입이 간접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의 정치개입에 있어 직접적인 방식보다 간접적인 방식이 더 큰 영향력과 함의를 지닌다는 분석도 있다.¹⁹⁾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스라엘의 간접적인 방식의 정치개입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3. 분석틀: 국내정치 안정성-군의 조직적 분열

‘군의 정치개입’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과 조건, 또는 군의 국내정치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의 정치개입이 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왜 군의 정치개입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가?’ 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정치 안정성(Internal Stability)-군의 조직적 분열(Divided Military)’ 분석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안정성’은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정성이 높은 경우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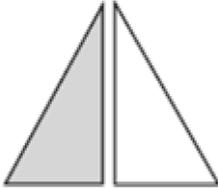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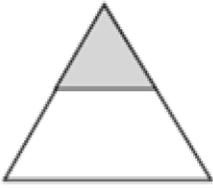
19) Ahn Sung-Hun, “A Study on the Influence and Implications of Israel’s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5권 제2호(2014), pp. 21-22.

과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낮은 경우 집권하고 있는 세력은 다른 정치 엘리트나 권력집단, 시민사회로부터 정권 유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고 정권 안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국내정치 안정성이 낮은 경우 군의 정치개입을 추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의 역할은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을 주임무로 하지만 내부의 혼란 상황에 직면하여 치안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군을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군의 조직적 분열’은 “한 국가 내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군이 수직적·수평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직적 분열의 경우 주로 중동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으로 일부 국가들이 ‘이원화된 군(Dual Military)’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국가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규군-보안군(이집트), 공화국군-혁명수비대(이란), 정규군-공화국수비대(이라크), 정규군-국방군(사우디) 등이 대표적이다. 이원화된 군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데 정규군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는다. 일반적인 국가의 군대처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권의 친위대 성격이 강한 보안군²⁰⁾은 ‘정권안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왕정이나 권위주의 정권을 보호하고 내부 치안 및 질서유지를 주임무로 한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다르게 중동지역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군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반정부 ‘쿠데타 방지책(Coup-proofing)’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0)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원화된 군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집트를 사례로 다루고 있는 만큼 ‘보안군’ 용어를 사용한다.

〈표 1. 군의 수직적-수평적 분열 양상²¹⁾〉

| 구분 | 수직적 분열 | 수평적 분열 |
|-------|---|---|
| 분열 양상 |  |  |
| 사례 | 이집트(2013년 쿠데타), 이란, 이라크, 사우디 등 | 이집트(1952년 쿠데타), 예멘 등 |

수평적 분열의 경우 단일한 군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출신, 계층, 민족,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분열되고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952년 쿠데타 당시 나세르가 하급장교 위주의 ‘자유장교단((Free Officers)’을 조직하여 별도의 세력을 구축한 것이나, 또는 예멘의 군대가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군 수뇌부와 일반 장교들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대표적이다.²²⁾

그렇다면 2가지 변수의 조합이 각각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 먼저, ‘국내정치 불안정’과 ‘군이 조직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국내정치 불안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혼란에 직면한 국가의 경우

21) Insoo Kim, “Bringing the Military Back in Political Transition: Democratic Transition by and for Powerless Officers in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University of Wisconsin, 2008), p. 18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22) 김인수, “중동 독재국가 군부의 분열양상과 민주주의 혁명,” 『국제문제연구』 제14권 제3호(2014), p. 95.

군을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각인시킨다. 특히, 국민들이 군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사회적 혼란 상황은 군의 신속한 개입을 요구하게 되고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제도적 절차나 관행은 무시된다. 여기서 ‘군의 조직적 분열’은 군이 급진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서로 다른 지휘관계와 임무, 조직, 편성, 교리 등은 이원화된 군 사이에 동질성을 저해하고 이질성을 점점 더 증가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 간 경쟁심, 상호불신을 키우고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군이 수직적/수평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특정 조직의 행동은 다른 조직의 불안을 불러일으켜 신속하고 급진적인 형태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군 조직 내부에서 일종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또는 ‘권력경쟁(power race)’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정치 안정’과 ‘군이 조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국내정치 안정’을 유지하는 국가에서 정치 엘리트들과 국민, 그리고 군의 관심은 외부 위협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국내 상황이 잘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군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치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군이 정상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제도적 보장은 제대로 작동한다. 특히,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경우 군의 입장에서도 군이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 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군 조직의 이해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고 시간적으로 조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군이 조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조직 간 경쟁이 불필요하고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 ‘쿠데타’와 같은 급진적인 방식은 정당성을 잃게 되고 조금 더 적법한 절차와 간접적인 방식으로

군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진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틀: 국내정치 안정성 - 군의 조직적 분열〉

| 구 분 | | 국내정치 안정성(Internal Stability) | |
|--|---------------------|------------------------------|----------------------------|
| | | 불안정(instability) | 안정(stability) |
| 군의 조직적 분열 (Divided Military) | 예 (divided) | <u>Supplantment</u> (이집트) | Pressure (이란) |
| | 아니오 (integrated) | Displacement (터키) | <u>Influence</u> (이스라엘) |

지금까지 ‘국내정치 안정성’-‘군의 조직적 분열’ 변수의 조합을 통해 군의 정치개입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로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분석틀의 적절성과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국내정치 불안정-군의 조직적 분열’ 사례로서 이집트와 ‘국내정치 안정-군의 조직적 통합’ 사례로서 이스라엘을 비교한다. 두 사례에 집중하는 것은 양 극단에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비교함으로써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군의 정치개입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핵심변수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의 목적과 지면 관계상 ‘국내정치 불안정-군의 조직적 통합’ 사례와 ‘국내정치 안정-군의 조직적 분열’ 사례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예측가능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정치 불안정-군의 조직적 통합’의 경우 국내정치 불안정이

군의 정치개입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군 조직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열된 경우와 달리 조직간 경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정치 불안정-군의 조직적 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급진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정치 안정-군의 조직적 분열’은 국내정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 개입은 비교적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군 조직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내 조직 간 비대칭적 권력 분포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정권보위를 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국토방위를 맡은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조직간 경쟁은 군의 정치개입을 비교적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4. 이집트와 이스라엘군의 정치개입 비교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역사와 인종, 종교, 문화, 정치, 경제체제를 가진 두 나라다. 심지어 두 국가는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전까지 서로를 자신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인식하였다. 먼저, 두 국가는 현대에 들어 국가건설(Nation-building) 과정에서 전혀 다른 역사를 경험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1952년 공화국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나세르를 중심으로 조직된 ‘자유장교단’은 쿠데타를 통해 파루크(Faruq)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공화국’을 선언하였다.²³⁾ 반면,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건설이 내부적 혁명보다는

23) 이집트의 이러한 경험은 군부와 쿠데타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능한 정권과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외부로부터 - 특히, 영국 - ‘주어진(Given)’ 것에 가깝다. 물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공통의 기억을 유지시킨 유대인 공동체와 시오니즘의 기여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국제정세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1917년 영국의 벨푸어 선언이 이스라엘 건국에 핵심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상기한 국가건설 배경의 차이에 따라 두 국가에서는 완전히 다른 정치체제가 수립되었다.²⁴⁾ 이집트에서는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정권이 수립되었고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이 군 출신 인사들이었다.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무르시(Morsi)만이 유일하게 민간 출신 대통령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이집트를 집정관 국가(Praetorian State)로 칭하면서 “군이 정부와 정치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정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인식한다.²⁵⁾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하였다. 물론 군인 출신 총리가 선출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국내정치는 다당체제와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하였다.²⁶⁾ 해마다 각 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영국

서 이집트 군부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뒤이어 발생한 1956년 수에즈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이집트에서는 강력한 군사독재가 시행되고 나세르에 이어 사다트, 무바라크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연이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군은 이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기능하였고 군인들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24) 일부 연구에 의하면 정치체제 형태에 따라 군의 정치개입이 내부 불안정 패턴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obert A. Hanneman et al, “Military Involvement and Political Instability: An Event History Analysis 1940-1980,”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Vol. 18, No. 1(Summer, 1990), p. 17.

25) Derek Lutterbeck, “Arab Uprisings, Armed Forces, and Civil-Military Relations,” *Armed Forces & Society*, Vol. 39, No. 1(January, 2013), p. 30.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자료에 따르면 이집트는 2.93점(권위주의), 이스라엘은 7.84점(결합있는 민주주의)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²⁷⁾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배경의 차이는 양 국가에서 ‘군의 정치개입’이 진행되는 방향성에 차이를 가져온다. 이스라엘의 경우 끊임없는 외부위협과 지속되는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이 국민들로 하여금 군이 정치에 개입하도록 ‘끌어당긴(Pull)’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집트의 경우 국가건설 과정에서부터 군 스스로가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들어간(Push)’ 측면이 강하다. 즉, 이스라엘군은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정치에 관여하였으나, 이집트는 군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작동하여 정치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가. 이집트: 국내정치 불안정-군의 조직적 분열

이집트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두 차례 군부에 의한 쿠데타(1952년, 2013년)가 발생하였는데, 쿠데타가 발생했던 당시 이집트 사회를 돌아보면 내부적 불안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두 시기 모두 집권세력의 실정, 부패, 전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채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먼저 1952년 쿠데타 이전의 이집트 사회를 살펴보자. 1922년 영국의 보호국 지위에서 벗어나 왕국 형태로 독립했던 이집트는

26) 윤용희, “이스라엘의 정당체제와 선거과정,” 『정치정보연구』 제3권 제1호(2000), p. 77.
 2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The Economist* (2020), pp. 9-12.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과 동시에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이집트군은 신생 이스라엘군에 패배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이집트 내부적으로 많은 반성과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나세르(Gamal Abdel Nasser)였는데 그는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었던 이집트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능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세르는 영국에 의존적인 파루크(Faruq) 왕정과 기득권에 연연하는 의회 때문에 이집트군이 무력했고, 정부기구가 부패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²⁸⁾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나세르는 그의 사관학교 동기들과 개혁 성향의 장교들을 규합하여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당시 군은 수평적인 분열 상태에 있었다. 나세르를 필두로 하급장교들이 주축이 된 자유장교단이 기존 군부세력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세르는 영국의 지배와 봉건적인 귀족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이집트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나세르에게 있어 당시 군 수뇌부와 고급 지휘관들은 영국군과 결탁하고 귀족정의 도구로 전락한 세력이었다.²⁹⁾ 그들은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계급에 연연할 뿐이었다.³⁰⁾ 나세르의 이러한 인식은 1952년 쿠데타 직후 군 수뇌부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졌다.

이집트군의 수평적 분열이 급진적 정치개입을 불러일으키는

28) Abdel Nasser, “The Egyptian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33, No. 2(Jan., 1955), p. 203.

29) 나세르와 함께 자유장교단의 일원이었던 나기브 역시 이집트 주간지 *Ruz al-Yusuf*에 익명의 컬럼을 기고하면서 군 수뇌부의 부패와 무능을 고발하였다. Joel Gordon, *Nasser’s Blessed Movement: Egypt’s Free Officers and the July R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 50.

30) Peter Johnson, “Egypt Under Nasser,” *MERIP Reports*, No. 10(Jul., 1972), p. 3.

과정은 자유장교단이 쿠데타를 계획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자유장교단의 정치적 행위는 최초 이집트의 자유화와 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1952년 7월 16일 파루크 왕이 장교클럽(Officers Club) 해산을 명령하고 친왕정 성향의 고위장교를 등용하면서 쿠데타를 위한 움직임을 촉발하게 되었다.³¹⁾ 기존의 집권세력과 군 수뇌부에 대한 반감이 정치개입을 급진적인 방향으로 몰고 간 것이다.

2013년 쿠데타 당시 이집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민주화 시위를 통해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이집트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무르시 정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이집트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군부 쿠데타에 대해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합법적인 정당성을 지닌 채 집권했던 무르시 정권이 기대와는 달리 국가를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집트 국민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 형제단보다는 군을 더 신뢰하였으며,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지지하였다. 실제로 이집트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군은 가장 신뢰받는 기관임과 동시에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³²⁾

2013년 쿠데타에서도 이집트군은 분열되어 있었다. 당시 군은 수직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는 1967년 제3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세르는 이집트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31) Joel Gordon(1992), pp. 51-56.

32) Tewfik Aclimandos, "Egyptian Army: Defining a New Political and Societal Pact," Aljazeera Centre for Studies(February, 2011); Derek Lutterbeck(2013), p. 36에서 재인용.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안군을 창설하여 군의 국내질서 유지 임무를 맡기면서 이집트군은 이원화되었다. 이때부터 정규군은 국방부의 통제를, 보안군은 내무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³³⁾ 그 결과 이집트 정규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며, 두 조직은 경쟁하게 된다.

두 조직 사이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 정규군은 스스로를 보안군과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보안군이 각종 경제적 이권에 관여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문, 여성시위대에 대한 성폭력 등 도덕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군이 무바라크 개인의 군대로 전략하면서 ‘국민의 군대’를 표방하는 정규군의 입장에서는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다.³⁴⁾ 실제로 2011년 1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서 보안군의 시위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정규군이 보안군과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시위대에게 협력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두 조직 사이의 반목에서 비롯된 정규군의 보안군에 대한 쿠데타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⁵⁾

2013년 쿠데타를 통해 드러난 점은 쿠데타 방지책(Coup-proofing)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군의 이원화 정책이 내부불안정시 오히려 쿠데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쿠데타 방지책에는 ① 군사 엘리트와 지도자 사이의 민족, 종교, 개인적 유대를 통해 개인적 충성

33) 김인수·이봉원(2011), p. 91.

34) Paul Amar, “Why Mubarak is Out,” In Bassam Haddad et al, *The Dawn of the Arab Uprisings; End of an Old Order* (London: Pluto Press, 2012), pp. 84-85.

35) Paul Amar, “Why Mubarak is Out,” <http://www.jadaliyya.com/pages/index/516/why-mubarak-is-out>(검색일: 2014년 9월 6일); 김인수(2014), p. 97에서 재인용.

심을 높이는 방법 ② 무장집단의 조직을 나누어 정규군과 준군사조직이 경쟁하게 만드는 방법 ③ 장교들의 보직을 자주 순환하는 방법 ④ 장교집단에 경제적 이권을 주거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을 매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는데³⁶⁾ 이집트에서는 군 조직 사이의 갈등이 쿠데타를 촉발한 것이다.

나. 이스라엘: 국내정치 안정-군의 조직적 통합

이에 반해, 이스라엘 사회는 이집트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이다. 종교적 신앙심에 기반한 국가건설, 성숙한 민주주의, 아픈 역사의 공유된 기억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통합시켰다. 거기에 더해 지속적인 외부위협과 또 다시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국민들을 더욱 결집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이민자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 민족, 종교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건설 당시부터 잠재적 사회분열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³⁷⁾ 더구나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럽 출신(Ashkenazim)과 중동/아프리카 출신(Mizrahim) 간 분열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다.³⁸⁾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갈등도 외부의 안보위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상황

36) Holger Albrecht, "Does Coup-Proofing Work? Political-Military Relations in Authoritarian Regimes amid the Arab Uprisings," *Mediterranean Politics*, Vol. 20, No. 1(2015), p. 39; James T. Quinlivan, "Coup-Proofing: Its Practical and Consequences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2(Fall, 1999), p. 135.

37) Martin Edelman, "A Portion of Animosity: The Politics of the Disestablishment of Religion in Israel," *Israel Studies*, Vol. 5, No. 1(Spring, 2000), pp. 204-205.

38) 김은비, "이스라엘의 사회적 통합, 그 과제와 교훈," 『중동문제연구』 제16권 제3호(2017), p. 33.

이며, 정권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군이 국내정치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여기까지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다른 서방국가와 유사한 흐름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특유의 외부적 위협과 지속되는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 이스라엘군의 정치개입에 ‘기회의 창’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민들 스스로 군의 정치개입을 요구하도록 만든다.³⁹⁾ 이는 이스라엘이 발전시켜 온 독특한 민군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민군관계를 연구한 캄라바(Mehran Kamrava)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 내에서도 국가 특성,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서로 다른 민군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스라엘은 ‘군 민주주의(military democracy)’ 형태의 민군관계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군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의문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군이 가장 인기있는 국가기관임과 동시에 군인들은 존경을 받는 특징을 지닌다.⁴⁰⁾ 따라서 평시부터 외교·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더구나 이스라엘군(IDF)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통합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집트처럼 수직적·수평적 분열양상은 보이지 않으며 매우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좁은 영토와 적은 인구, 지속되는 인접 아랍국가들의 위협 등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특성은 생존을 위해 강한 군대를 육성하게 했고 군의 결속과 전문직업주의가 발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군이 쿠데타를 계획하거나 시도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39) Ahn Sung-Hun(2014), pp. 12-14.

40) Mehran Kamrava, "Military Professionalization and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Middle Eas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5, No. 1(Spring, 2000), pp. 67-76.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총참모장과 고위급 지휘관은 내각회의에 참여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⁴¹⁾ 따라서 제도권 내에서 군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질 뿐 이집트나 터키처럼 급진적인 축출(Displacement)이나 대체(Supplantment)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건설 당시 권력기관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국가 건설 당시 종교정당의 반대로 권력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헌법을 채택하지 못하였고 1964년에 이르러서야 기본법(Basic Laws of Israel)을 제정해 안보정책 결정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모호성은 정치-군사영역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를 ‘민군관계’ 보다는 ‘파트너’의 관점에서 보도록 만들었다.⁴²⁾ 이러한 독특한 관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군은 자연스럽게 민간권력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지금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군의 정치개입이 서로 다른 수준과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집트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서 쿠데타를 통한 군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에서는 온건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안

41) Mehran Kamrava(2000), p. 75.

42) Rebecca L. Schiff, *The Military and Domestic Politics: A Concordance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Oxford: Routledge, 2009), pp. 116-117.

보와 관련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국내정치 안정성’과 ‘군의 조직적 분열’이라는 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두 변수는 군의 정치개입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들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특징적인 부분은 같은 조건이라면 군이 분열되어 있는 경우 정치개입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쿠데타가 민간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여 군사정권을 세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쿠데타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군이 내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구결과 정반대로 오히려 군이 분열되어 있어야 쿠데타가 촉진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견해가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둘째, 군 전체가 아닌 일부 핵심적인 소수 전력만으로도 쿠데타의 계획과 실행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국가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도 발견된다. 첫째, 군의 정치개입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역사, 종교, 정치체제, 경제시스템, 교육수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국가에서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만큼은 유일하게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두 국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군의 정치개입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은 사뭇 다르다.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위협과 지속되는 저항도 분쟁으로 인하여 안보상 이유로 국민들이 군의 정치개입을 지지하는데 반해, 이집트의 경우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 실정 등으로 인하여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 군의 정치개입을 지지하는 성격이 강하다.

둘째, 양 국가 모두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 있어서도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경우 특히, 캠프데이비드 협정 이후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군은 자구책으로 경제활동에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NSPO)을 만들고 경제적 독립성이 인정되었으며,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자금은 국방부 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이집트 경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군대라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한다.⁴³⁾ 이스라엘군 역시 경제영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하다. 다만, 이집트와의 차이점은 이스라엘의 경우 주로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첨단기술산업과의 연계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⁴⁴⁾

결론적으로 권위주의-민주주의, 강대국-약소국 구분없이 거의 모든 국가는 일정한 수준 이상 군의 정치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서로 다른 저마다의 개입 기준선(Baseline)을 설정하고 있다.⁴⁵⁾ 민간권력도 일정한 기준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선은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테러위협이나 공격 등 국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군의 정치개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의 입장에서 테러리즘이 정치개입의 기준선을 낮추는 하나의 '기회의 창'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⁴⁶⁾

물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먼저 군이 이원

43) National Service Projects Organization(NSPO)은 정부 부처, 지방 정부 및 공공 부문 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 내 설립된 조직으로 원래는 현역 감축에 따른 예비역 장교들을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후 군의 경제활동에 주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Robert Springborg et al, *Routledge Handbook on Contemporary Egypt* (Oxford: Routledge, 2021), p. 88.

44) Ori Swed et al, "Military Capital in the Israel Hi-tech Industry," *Armed Forces & Society*, Vol. 41, No. 1(January, 2015), p. 123.

45) Vincenzo Bove et al(2020), Online Appendix, p. 2.

46) Vincenzo Bove et al(2020), p. 1.

화되어 있는 중동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중동지역에는 쿠데타 방지책의 하나로 이원화된 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더해 다양한 분석수준의 변수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이 이원화되지 않은 다른 국가(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한 쿠데타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본 연구가 가지는 설명력은 다소 제한적이며 일반화시키기에는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례를 통해 중동지역에서의 ‘군의 정치개입’을 살펴보았다. 두 국가 사례의 비교는 우리의 역사와도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쿠데타는 이집트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으며, 성숙된 민군관계와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온건한 군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도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전문화된 군이 국가의 안보정책과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문화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

〈참고문헌〉

1. 한글자료

김은비, “이스라엘의 사회적 통합, 그 과제와 교훈,” 『중동문제연구』 제16권 제3호(2017).

_____, “이집트군의 정치개입,” 『중동연구』 제37권 제1호(2018).

김인수, “중동 독재국가 군부의 분열양상과 민주주의 혁명,” 『국제문제연구』 제14권 제3호(2014).

DOI: <http://doi.org/10.23111/nsas.2014.14.3.003>

김인수 · 이봉원, “이집트군의 분열 양상과 2010년 시민혁명,” 『국방정책연구』 제27권 제1호(2011).

DOI: <http://doi.org/10.22883/jdps.2011.27.1.003>

윤용희, “이스라엘의 정당체제와 선거과정,” 『정치정보연구』 제3권 제1호(2000).

UCI: G704-001718.2000.3.1.003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북코리아, 2005).

2. 영문자료

Abdel Nasser, “The Egyptian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33, No. 2(Jan., 1955).

Ahn Sung-Hun, “A Study on the Influence and Implications of Israel’s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35권 제2호(2014).

DOI: <http://doi.org/10.23015/kames.2014.35.2.001>

Claude E. Welch,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ory and Cases from Developing Countrie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76).

- David J. Myers and Robert E. O'Connor, "Support for Coups in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A Venezuelan Explor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30, No. 2(Jan., 1998).
- Derek Lutterbeck, "Arab Uprisings, Armed Forces, and Civil-Military Relations," *Armed Forces & Society*, Vol. 39, No. 1(January, 2013).
- Holger Albrecht, "Does Coup-Proofing Work? Political-Military Relations in Authoritarian Regimes amid the Arab Uprisings," *Mediterranean Politics*, Vol. 20, No. 1(2015).
- Insoo Kim, "Bringing the Military Back in Political Transition: Democratic Transition by and for Powerless Officers in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University of Wisconsin, 2008).
- J. I. Elaigwu,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An African Perspective," *Geneva-Africa*, Vol. 19, No. 1(Jan., 1981).
- James T. Quinlivan, "Coup-Proofing: Its Practical and Consequences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2 (Fall, 1999).
- Joel Gordon, *Nasser's Blessed Movement: Egypt's Free Officers and the July R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Majid Khadduri, "The Role of the Military in Middle East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7, No. 2(Jun., 1953).
- Martin Beck, "The July 2013 Military Coup in Egypt: One normative clarification and some empirical issues," News Analysis of SDU's Resource Center on Middle East Studies (Jul., 2013).
- Martin C. Needler, "Political Development and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 *The American Political*

- Science Review*, Vol. 60, No. 3(Sep., 1966).
- Martin Edelman, “A Portion of Animosity: The Politics of the Disestablishment of Religion in Israel,” *Israel Studies*, Vol. 5, No. 1(Spring, 2000).
- Mehran Kamrava, “Military Professionalization and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Middle Eas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5, No. 1(Spring, 2000).
- Ori Swed et al, “Military Capital in the Israel Hi-tech Industry,” *Armed Forces & Society*, Vol. 41, No. 1(January, 2015).
- Paul Amar, “Why Mubarak is Out,” In Bassam Haddad et al, *The Dawn of the Arab Uprisings; End of an Old Order* (London: Pluto Press, 2012).
- Peter Johnson, “Egypt Under Nasser,” *MERIP Reports*, No. 10(Jul., 1972).
- Robert A. Hanneman et al, “Military Involvement and Political Instability: An Event History Analysis 1940–1980,”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Vol. 18, No. 1(Summer, 1990).
- Robert D. Putnam, “Toward Explaining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n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0, No. 1(Oct., 1967).
- Robert H. Epperson, “Russian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1991–96,”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10, No. 3(Sep., 1997).
- Rebecca L. Schiff, *The Military and Domestic Politics: A Concordance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s* (Oxford: Routledge, 2009).
- Robert Springborg et al, *Routledge Handbook on Contemporary Egypt* (Oxford: Routledge, 2021).

Samuel E. Finer, *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London: Pall Mall Press, 1962).

Tewfik Aclimandos, “Egyptian Army: Defining a New Political and Societal Pact,” Aljazeera Centre for Studies (February, 201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The Economist* (2020).

Vincenzo Bove et al, “Beyond Coups: Terrorism and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1(Mar., 2020).

3.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닷 올렸다...기무사 시대 마감,”

<https://www.yna.co.kr/view/AKR20180831116851014> (검색일: 2021년 7월 27일).

월간조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808100013> (검색일: 2021년 7월 27일).

BBC 코리아, “기무사 계엄령: ‘기무사 계엄령’ 파문을 이해하는 4가지 질문.”

<https://www.bbc.com/korean/news-44803438> (검색일: 2021년 7월 25일).

<https://www.systemicpeace.org/polity/isr2.htm> (검색일: 2021년 8월 16일).

(Abstract)

Comparison of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Focusing on the Cases of Egypt and Israel

Lee, Hanhyung

The awareness on MIP(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is quite different in every country. In some cas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MIP is considered very negatively while others, like Egypt and Israel in the Middle East, are viewed favorably. However, there is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cases of the Egypt and Israel. Although military involvement occurs in a moderate manner within Israel's formal political system, while it does so in a radical manner in Egypt.

To explain these variations, this study used the 'Internal Stability-Divided Military' analysis framework. As a result, Egypt of 'internal instability-divided military' showed a radical manner due to dualized military, although the military gained credibility and intervened in politics as an institution that could replace civilian power. On the contrary, in Israel, which is an 'internal stability-integrated military', the military have influenced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making process in peacetime due to constant security threats and unique civil-military relations. It suggests there was no need to radically intervene in politics in a circumstance where the organization's interests are institutionally safeguarded.

In conclusion, Israel, which has a developed civil-military relations and a enhanced democratic government systems, is the example I believe we should follow. There, the military engages in very moderate manner political engagement.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a blanket rejection of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we also propose that it is vital to create a suitable system and culture that would allow the professionalized militar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olicy.

Keywords :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MIP),
Civil-Military Relations, Internal Stability, Divided Military,
Egypt, Israe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 209-234
<https://doi.org/10.29212/mh.2023..126.20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7세기 중화적 천하질서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

- 동북아역사재단(임기환 지음),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

李玟洙*

본고는 임기환(서울교대)이 2022년에 발간한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본서가 일반 대중은 물론 학계에도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역사적인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들어가기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은 2022년에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임기환 교수(이하 저자)가 7세기 대전쟁인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여 대중이 이해하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기 쉽게 집필한 교양서이다. 주지하듯이 저자는 36년 동안 국내의 고구려사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낸 대표적인 고구려사 연구자이다.

고구려와 수·당 전쟁에 대한 기존 대중 교양서는 삼국시대 전쟁사의 일부,¹⁾ 연개소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당 전쟁사,²⁾ 고구려의 수·당 전쟁과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공격으로 구분,³⁾ 그리고 612년 고구려-수 전쟁부터 신라-당 전쟁은 물론 돌궐, 토번, 백제 등도 종합해서 유라시아사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⁴⁾

상술한 기존 교양서는 저자 각자의 시각으로 고구려와 수·당 전쟁사를 이해하였으며, 학계와 대중에게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아무래도 책의 주제와 특성상 고구려-수·당 전쟁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그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서는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사를 일반적인 전쟁사 접근법을 적용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들어가며’에서 저자가 서술했듯이 동북아시아에서 국제 정세 운영의 중심축이었던 고구려가 수·당 70년 전쟁 끝에 소멸되었다는 것은 그 변동과 재편의 진폭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준다.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에서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사수전투는 민족 항쟁사에서도 회자될 만큼 칭송하는 시각이 크다. 고구려와 수·당 전쟁은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일 고구려-수·당 전쟁을 민족항쟁사

1) 임용한, 『전쟁과 역사(삼국편)』, 해안, 2001 ;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2(사상 최대의 전쟁)』, 해안, 2012.

2)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3) 이운섭, 『다시 읽는 한국사2: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책보세, 2014 ; 이운섭, 『다시 읽는 한국사3: 나당연합과 발해』, 책보세, 2014.

4)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15.

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저자의 지적처럼 객관적인 전쟁의 배경과 전황을 살펴보기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우리 고대사를 공부할 때 ‘교훈적 역사’로 기억해야 할 대목으로 7세기의 역사를 제일 먼저 꼽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7세기의 격동기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멸망하고 신라는 생존하여 삼국을 통합하였다. 저자는 이처럼 격동기의 역사에서 한 국가의 멸망과 생존이 미치는 사회 내부 동향과의 연결성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서의 제목은 『고구려와 수·당 전쟁 70년 전쟁(이하 ‘70년 전쟁’으로 약칭)』이다. 이는 70년 전쟁의 시작이 598년 영양왕의 요서 공격이며, 마지막은 668년 평양성 함락이기 때문이다.⁵⁾ 이 제목은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을 동북아시아 세력권 전쟁으로 통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제목이기도 하다. 7세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3~4세대에 걸쳐 70년 동안 지속된 전쟁 혹은 전운 속에서 살았던 시기이다.

본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70년 전쟁을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와

5) 본서의 ‘70년 전쟁’이라는 제목과 관련하여 『冊府元龜』에 당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70년 전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어 참고 된다(『冊府元龜』 卷142 帝王部142 弭兵, “顧惟匪德, 事有乖於七旬, 在躬延責, 情致慙於四海.”). 이에 대해 李玟洙는 『冊府元龜』에 전하는 663년 8월 唐 高宗이 고구려와의 전쟁 중단 조서에서 언급한 ‘事有乖於七旬’을 598년부터 전개된 고구려·수·당 전쟁의 70년을 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旬에는 10년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고구려·수 전쟁이 시작 된 598년부터 고종이 고구려 공격 중단 조서를 내린 663년까지는 65년으로 대략 70년과 부합하기 때문이다(李玟洙,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高句麗渤海研究』 73, 2022, 152쪽 각주 50). 이와 달리 徐榮教는 ‘事有乖於七旬’에서 ‘七旬’을 70일로 번역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거로 『資治通鑑』에서 蘇定方の 수군이 평양을 포위한 661년 7월 11일로 기록한 것과 契苾何力이 초원으로 철수한 같은 해 9월 20일을 주목하여 정확히 7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았다(徐榮教, 「고구려의 最後와 彗星」 『震檀學報』 138, 2022, 51~52쪽).

수당 70년 전쟁을 집중적으로 다룬 본서가 갖는 가치는 결코 낮지 않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책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

들어가며: 7세기 대전쟁에 왜 주목하는가

제1장 격랑이 일어나기 전에

제2장 수의 등장, 그리고 첫 대결

제3장 수 양제, 고구려 원정을 결심하다

제4장 요하전투와 요동성전투, 승전의 숨은 주역

제5장 평양성전투와 살수대첩

제6장 2차 요동성전투, 그리고 수의 종말

제7장 당의 등장, 그리고 외교적 타협

제8장 642년, 대전환의 해

제9장 당 태종과 연개소문, 전쟁을 선택하다

제10장 645년, 대전쟁이 시작되다

제11장 주필산전투와 안시성전투

제12장 당, 고구려 재원정을 준비하다

제13장 661년 평양성전투에서 태산 봉선까지

제14장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나가며: 70년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는 프롤로그격인 ‘들어가며’에서 7세기 대전쟁에 주목하는 이유를 먼저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후 1장은 5세기 동아시아의 세력균형과 6세기 중반 동아시아 정세 변화 그리고 2장부터 6장

까지는 수의 등장부터 수의 멸망, 7장부터 14장까지는 당의 등장부터 고구려의 멸망, 마지막으로 고구려-수·당 70년 전쟁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다룬 에필로그격인 ‘나가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차 구성은 고구려- 수·당 70년 전쟁을 동북아시아 세력권 전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와 부합한다. 이는 독자들이 ‘70년 전쟁’을 하나의 전쟁으로서 역사적인 흐름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내용 살펴보기

제1장은 ‘70년 전쟁’을 다루기에 앞서 고구려를 둘러싼 5, 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다루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한 고구려가 중국에 수·당과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장은 598년에 전개된 1차 고구려-수(隋) 전쟁을 다루었다. 590년 수 문제(隋文帝)는 중국을 통일하고 돌궐(突厥) 등 주변 세력까지 모두 제압하여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자 고구려에게 협박조의 오만한 국서를 보내 복속을 강요하였다. 이에 598년 고구려 영양왕(嬰陽王)은 직접 말갈(靺鞨)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요서(遼西) 지역을 선제공격하였다.

고구려의 선제공격에 분노한 수 문제는 곧장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수륙양면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요동으로 진격한 육군은 홍수와 군량부족으로 철군하였고, 수군(水軍)은 풍랑으로 인해 10의 8, 9가 죽었다고 한다. 수의 1차 고구려 침공

은 고구려 영내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수 문제의 고구려 침공이 오만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술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은 수 양제(隋煬帝)의 고구려 원정 준비 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607년 고구려는 동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여 연대를 시도하였으나, 동돌궐의 계민가한(啟民可汗)이 고구려 사신을 수 양제에게 보여주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때 수 양제는 고구려 사신에게 내년까지 영양왕이 입조하라고 겁박하였다. 돌궐, 토욕혼(土谷渾), 고창(高昌)을 복속한 수 양제와 그의 측근들은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질서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칼끝은 마지막으로 남은 고구려를 향하고 있었다.

612년 수 양제는 113만 3,800명이라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전무후무한 대병력이기에 이를 불신하는 견해도 있으나, 저자는 합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113만 3,800명이라는 수치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맞선 고구려의 총병력 규모는 30여만 정도로 추정하였다.

제4장은 2차 고구려-수 전쟁의 초기 전투인 요하(遼河)전투와 요동성(遼東城)전투를 다루었다. 요하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수의 대군을 상대로 무려 1개월 이상 동안 지연전을 펼쳤다. 이 기간은 후방의 고구려군이 전선을 준비하고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요긴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요하 전투를 고구려의 승리를 전인한 첫 전투로 새롭게 재조명하였다.

요하를 건넌 수의 군대는 고구려의 요동방어체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요동성을 공격하였는데,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무려 3개월 동안 전개된 수군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성을 사수하였다. 저자는 2차 고구려-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의 주역을 요동성의 군민으로 평가하였다. 만일 요동성이 수성에 실패하여 함

락되었다면 수 양제가 거느린 100만 명의 병력이 평양성으로 진군했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제5장은 평양성(平壤城)전투와 살수(薩水)대첩을 다루었다. 내호아(來護兒)가 지휘하는 7만 명에 달하는 수(隋)의 수군(水軍)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 이에 영양왕의 동생인 건무(建武)가 거느린 고구려군은 수군(隋軍)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척 하다가 거짓으로 패하여 평양성 안으로 수군을 유인했다. 수군이 평양성을 약탈하느라 대오가 흩어지자, 평양성의 절에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은 일시에 수군을 공격하여 불과 수천 명만 생환하게 할 정도로 크게 승리하였다.

한편, 요동성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목이 잡혀있던 수 양제는 9개 군단 30만 5,000명으로 별동대를 편성하여 평양을 직공하라는 명을 내렸다. 고구려의 주장인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수군의 약점을 간파하여 거짓으로 패하면서 평양성 인근까지 깊숙이 유인했다. 을지문덕은 결국 수군이 퇴각하자, 사방에서 수군을 공격하여 살수에 이르렀을 때 수군에게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수양제는 퇴각하였다.

제6장은 2차 요동성전투와 수의 종말에 대해 다루었다. 고구려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613년 30여만의 병력과 최신 공성 무기를 대거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이러한 수군의 총공세에 요동성도 함락 위기에 처했으나, 후방에서 군량 수송의 책임을 맡던 양현감(楊玄感)이 크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급보를 접한 수 양제는 철군을 해야 했다.

반란을 진압한 수 양제는 614년 재차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2년 연속 대군을 동원한 탓에 수의 군사 동원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수 양제도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었다. 수군(水軍)만이 비사성(卑沙城)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으나, 단독으로는

더 이상 고구려 공격을 감행할 수 없었다. 이때 영양왕이 수 양제에게 사신을 보내 직접 수 조정에 입조해서 항복하겠다고 하자, 철군할 명분을 얻은 수 양제는 급히 퇴각하였다.

그러나 영양왕은 끝내 수 조정에 입조하지 않았다. 연이은 패배에 수 양제의 위신은 크게 떨어지고, 반대로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올라갔다. 저자는 수 양제에 대해 고구려 원정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수명 단축은 물론 왕조를 멸망케 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포악한 군주라는 오명만을 남겼을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제7장은 당(唐)의 등장과 고구려-당의 외교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고구려 원정의 실패로 인해 내란이 발생하여 멸망한 수 대신에 당이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 그 무렵 고구려에서는 평양성 전투 승리의 주역인 건무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구려의 27대 왕 영류왕(榮留王)이다. 영류왕대 고구려와 당 고조(唐高祖)대 당은 표면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626년 당 태종(唐太宗)이 즉위하자, 양국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630년 영류왕은 당이 돌궐의 힐리가한(頡利可汗)을 사로잡자, 당에 축하사절과 함께 고구려의 지도인 봉역도(封域圖)를 바쳤다. 631년 당은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수군의 유골을 모아 세운 경관(京觀)을 헐어버렸다. 이에 영류왕은 거의 매년 당에 보내던 사신을 640년까지 보내지 않았다. 사실 고구려는 이전부터 당의 팽창을 감지하여 631년에는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는 대역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640년 당이 고창을 멸망시키자, 영류왕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자, 당에 태자를 입조시켰다. 영류왕이 차기 왕위 계승자인 태자를 당에 파견한 것은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그러나 당 태종은 고구려를 직접 자기 손에 넣

어 최초로 진정한 천하의 군주가 되고 싶은 야망을 가졌고, 고구려를 공격할 명분만 찾고 있었다.

제8장은 642년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정변과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642년 영류왕 및 대신들과 연개소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영류왕과 대신들은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게 한다는 구실로 중앙 정계에서 축출한 후 몰래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연개소문에게 누설되었다. 이에 연개소문은 열병식에 참여한 100명 혹은 180여 명의 달하는 대신을 장안성 남쪽에서 죽이고 궁궐로 나아가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寶藏王)을 옹립하였다.

같은 해, 백제 의자왕(義慈王)은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 서쪽의 40여개의 성을 함락하였으며, 나아가 신라 서변의 요충지인 대야성(大耶城)까지 차지하였다. 이에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 보장왕에게 평화협정을 요청하였으나, 보장왕은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돌려주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저자는 연개소문 정권이 신라를 적대세력으로 돌린 것에 대해 고구려 멸망의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큰 실책으로 평가하였다.

제9장은 당 태종과 연개소문이 전쟁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루었다. 사방을 평정한 당 태종은 고구려 원정의 일환으로 641년 직방낭중(職方郎中) 진대덕(陳大德)을 고구려에 사신으로 고구려를 정탐하게 하였다. 저자는 영류왕 정권이 의도적으로 진대덕에게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태세를 보여주면서 당의 침공을 겁게 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았다. 이후에도 영류왕은 당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처럼 당 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결심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영류왕은 유화책을 꾀하면서 가급적 전쟁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결국 644년 연개소문은 신라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당 태종의 경고를 묵살하면서 전쟁을 선택하였다.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으로서는 당 태종에게 굴복하는 것은 쉽게 권력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 태종은 마침내 644년 10월 고구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저자는 이 전쟁에 대해 애당초 고구려의 태도와는 관계없는 당 태종의 야심과 관련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당 태종은 육군 총사령관 이적(李勣)에게 6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게 하여 요동으로 진격하게 하고, 수군 총사령관 장량(張亮)에게 4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당 태종이 직접 거느린 병력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저자는 당 태종의 본대 규모에 대해 대략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았다. 도합 20여만 규모의 병력이었다.

제10장은 645년 1차 고구려-당 전쟁 초기 전황에 대해 다루었다. 이적이 거느린 당의 육군은 우선 신성(新城)과 건안성(建安城)을 공격하였으나, 신성과 건안성은 당군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하게 사수했다. 당군이 신성과 건안성을 공격한 까닭은 당 태종의 본대가 요동성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요동성을 고립시키고 태종의 본대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변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즉, 당군은 신성과 건안성의 요동성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군은 견고한 대형급 산성인 신성 공략에 집착하기 보다 대신에 신성과 요동성 사이에 있는 중형급 성곽인 개모성(蓋牟城)을 치열한 전투 끝에 함락하였다. 한편, 당의 수군은 요동반도 끝단의 비사성을 야습하여 함락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당군과의 첫 전투에서 개모성, 비사성을 빼앗겼지만, 중진인 신

성, 건안성을 지켜내면서 이후 당군의 요동 작전에 큰 제약을 걸었다.

요동성에 도착한 당 태종은 본대는 이적의 군대와 합류하여 최신 공성 무기와 화공을 이용하여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요동성을 7일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함락하였다. 요동성을 함락한 당군은 요동성 동쪽의 백암성(白巖城)을 공격하였는데, 백암성주 손대음(孫代音)이 항복 의사를 전하고 백암성은 그렇게 당군의 수중에 들어왔다.

제11장은 주필산(駐蹕山)전투와 안시성(安市城)전투에 대해 다루었다. 당군은 안시성 외곽에 도착해 진영을 갖추고 이튿날 고연수(高延壽)와 고혜진(高惠眞)이 거느린 15만 명 고구려 군대가 안시성 외곽에 에 나타났다. 고구려군 내부에서 경험 많은 연로한 대로(對盧) 고정(高正義)은 장기전을 제안했으나, 고연수는 이를 무시하고 당군의 유인전술에 걸려들고 깊이 진격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군의 배후에 숨어있던 다른 당군이 고연수군을 공격하자, 고연수군은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참패하였다. 당군이 퇴로를 끊고 압박하자, 고연수와 고혜진 등은 36,800명을 거느리고 당 태종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주필산 전투에서 승리한 당군은 고립무원이 된 안시성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이에 당군은 평양직공책을 논의하다가 신성과 건안성의 10만 병력이 배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안시성 공격을 지속하기로 하고 60일을 소요하여 토산 축조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공들여 쌓은 토산이 무너져서 안시성 성벽을 허물자, 이틈을 탄 안시성의 고구려군이 토산을 장악했다. 당군은 토산을 되찾기 위해 3일 동안 밤낮으로 싸웠으나, 토산 탈환에 실패하였다. 결국 당 태종은 퇴각을 결정했다.

안시성에서 퇴각한 당군은 요동성을 거쳐 요하를 건너기 시작했다. 요하 서쪽에는 200리 높지대인 요택(遼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당군은 높지대와 추위로 인해 악전고투를 치러야 했다. 저자는 본국에 도착한 당 태종이 자신의 고구려 원정이 승리했음을 선포한 조서에 대해 평양성 함락과 연개소문에 대한 치죄를 호언장담한 것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적표임을 지적하였다.

제12장은 당의 고구려 재원정 준비에 대해 다루었다. 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온 이듬해인 646년 당 태종은 북방의 설연타(薛延陀)를 멸망시키고, 철륵(鐵勒) 여러 부족의 투항을 받았다. 당 태종은 647년 고구려 재원정 논의를 하여 소규모 군대로 고구려를 피로하게 한 뒤에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647~648년 당 태종은 수군을 동원하여 요동반도 남단과 압록강 일대를 공격하고, 육군으로 요동 방어망의 후방을 공격하였다. 이 시기 당 태종은 신라의 김춘추(金春秋)와 대담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공멸할 것이라는 밀약을 맺기도 했다. 그리고 당 태종은 649년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려 했으나, 사망하면서 고구려 재원정은 잠정 중단되었다.

당 태종의 사망 이후, 장손무기(長孫無忌) 정권이 유화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는 사이 고구려는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서돌궐(西突厥)과 연결을 시도하거나, 요서 지역의 거란(契丹)을 공격하는 등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장손무기 정권이 실각하면서 당은 다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650년대 후반에 서돌궐을 멸망시키고 660년에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로써 당은 신라와 함께 양면으로 고구려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13장은 661년 평양성전투와 태산(泰山) 봉선(封禪)에 대해

다루었다. 당 고종은 661년 수군(水軍)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하여 고구려와의 전면전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압록강 방면에서 남생(男生)의 고구려군을 대파한 글필하력(契苾何力) 군대 등은 서부 몽골에 일대 있던 철륵의 반란으로 인해 철군하게 되었다. 북진하던 신라군도 백제부흥군 때문에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다. 평양성을 포위 중이던 당군은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 고구려군의 역공세를 받아 662년 사수(蛇水) 전투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방효태 군대가 전몰하였다. 소정방(蘇定方)의 당군도 궤멸 위기에 처했으나, 신라군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겨우 퇴각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3년 반이 지난 665년 당은 태산 봉선을 추진했는데, 사방에서 다수 국가가 대거 참여하고 여기에 고구려의 태자도 참여하였는데, 당이 먼저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당이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포기한 대신에 의례적 복속을 대가로 고구려와 평화적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이다. 즉, 양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바꾸는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666년 연개소문의 장남 남생이 투항하겠다는 사신을 당에 보냈다. 강경책을 포기하고 유화책으로 돌아섰던 당 고종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제14장은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에 대해 다루었다. 당에 투항 사신을 보낸 남생은 연개소문의 장남으로서 655년 그의 뒤를 이어 태막리지(太莫離支)직에 올랐다. 그러나 남생은 지방을 순행하는 동안 평양에 남아 있던 두 동생인 남건(男建), 남산(南産)과 서로 의심하고 배신하여 국내성(國內城)으로 쫓겨나 처지가 곤란해진 나머지 결국 당에 투항하였다. 666년 남생이 자신의 아들인 헌성을 당에 보내자, 당 고종은 남생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출병하여 신성을 공격하였다.

667년 신성은 무려 8개월 동안 항전하였으나, 성안의 저항력도 한계에 이르러 결국 내부에서 투항자들에 의해 성문이 열렸다. 당군은 신성 함락 이후 남생의 군대와 합류하여 신성에서 소자하(蘇子河) 유역을 거쳐 국내성까지 관통하는 지역이 당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한편, 고구려 동남부에서는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淵淨土)가 신라에 투항하여 신라는 고구려의 남부를 압박해 들어갈 수 있었다. 연개소문 집안의 내부 분열이 고구려 국가 전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668년 당군이 부여성(扶餘城)을 함락하자, 그 주변의 40여개 성이 항복하였다. 이후 당군은 대행성(大行城) 등 압록강 일대를 공략하고 고구려군은 압록책을 구축하여 최후 항전에 나섰다. 고구려군은 무려 4개월 동안 버텼으나, 결국 당군은 압록책을 돌파하고 평양성에 이르렀다. 이때 신라 역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 남부의 중진인 한성(漢城)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북진하여 당군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당시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신라-당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펼쳤으나, 모두 패배하고 결국 보장왕과 남산 등이 먼저 항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건 등 평양성 군민은 끝까지 당군에 저항하였으나, 결국에는 평양성 안에서 배신자 신성으로 인해 문이 열렸다. 신라-당 연합군이 평양성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구려군의 치열한 저항은 5일 동안 지속되었다. 저자는 이처럼 고구려 평양성의 최후가 무기력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에필로그 격인 ‘나가며’는 ‘70년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저자는 ‘70년 전쟁’에 대해 수-당이라는 통일제국이 추구한 중국 중심의 세력권 구축에 대해 고구려가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하려고 대결한 일종의 세력권 충돌로 보았다. 고구려는 ‘70년 전쟁’에서 산성을 거점으로 하는 방어 전략

과 청야전술로 인해 수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외교의 경직성, 지배층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저자는 연개소문 가문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독점한 것은 지배층의 분열과 내부를 촉진시키면서 고구려 멸망을 재촉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최후의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하였던 고구려의 멸망에 따라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로 개편되었으며,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문화권의 형성으로 당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화적 천하질서의 이념적 실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고구려가 수당과 벌인 70년 전쟁은 그러한 중화적 천하질서의 확대 과정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이었다.

3. 참신한 시각과 몇 가지 아쉬운 점

저자는 본서에서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이하 70년 전쟁으로 약칭)의 원인과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양국의 전략과 군사력의 규모, 그리고 전투 양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재조명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전투도 적지 않다.

저자는 612년 3개월의 치열한 요동성전투를 평양성전투와 살수대첩에 못지않은 비중을 두어 요동성전투의 승리가 평양성전투와 살수대첩이라는 승리를 견인하였음을 강조하였다. 613년의 요동성전투 역시 612년 요동성전투에 못지않은 평가를 받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당시 수군이 612년 요동성 전투 때와는 달리 최신 공성무기를 동원하였음에도 요동성의 군민들은 적절한 임기응변으로 이 공성무기들을 무력화하였기 때문이다.

612년 살수대첩도 사서의 기록과 정황을 통한 개연성 있는 추론으로 당시 수군(隋軍)의 규모와 피해규모에 대해서도 기존의 견해와는 다르게 접근하였다. 특히 저자는 살수대첩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는 상황은 비록 수의 군사라고 하더라도 통쾌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정작 전쟁을 일으킨 수 양제를 비롯한 지배층은 무사히 돌아가고 애꿎은 병사들의 목숨만 살수에서 희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서는 전쟁사에 대한 교양서이지만, 전쟁과 승리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기보다 전쟁이라는 행위의 참담함과 모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645년 고구려-당 전쟁에서 주필산전투에 대해서도 기존의 견해와 달리 당 태종이 승리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고구려군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과장하고, 당군의 규모를 3만 명 정도로 축소한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최후의 전쟁도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서에서는 금산(金山) 전투가 이때 일어난 전투로 보았으며, 당군과 고구려의 부여성 구원군의 전투를 압록강 일대에서 전개된 것으로 새롭게 보았다.⁶⁾ 또한 평양성 함락 과정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군사 활동을 통해 평양성이 허무하게 함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⁷⁾

본서는 서술 방식에 있어 고구려가 수·당과의 전쟁에서 수차례 승리한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칭송하기보다 고구려 군사방어 체계의 특성과 승리 요인 그리고 한계도 함께 살펴보려는 등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장’과 ‘장’ 사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서술한 ‘수 양제의 군대는 백만

6) 이에 대해서 저자는 최근 논문에서 상세히 논증하였다(임기환,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 『韓國史學報』 86, 2022).

7) 이에 대해서 저자는 최근 논문에서 상세히 논증하였다(임기환,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 활동」 『韓國史學報』 90, 2023).

이 넘었을까’, ‘연개소문과 그의 가문’, ‘안시성주 이름은 양만춘이 아니다’, ‘아프라시아브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신도’에 대한 부연 설명은 본서의 깊이를 한층 더해준다.

다만, 본서를 읽으면서 필자가 느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저자는 612년 살수대첩 당시 압록강을 건넌 부대는 별동대 30만 명 중 전투 병력 10만 명 정도이며, 압록강을 건너지 않은 20만 명의 치중 병력은 전투 병력 1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널 때 이미 후방으로 회군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별동대 30만 명이 전멸하여 중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간 것처럼 기술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중문(于仲文)이 우문술(宇文述)에게 10만 운운한 대목은 별동대 전투 병력 총합이 아니라 우문술의 직속 병력 10만 명을 지칭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처음 별동대가 요수(遼水)를 건넌 때 30만 5,000명이었으며, 그중에 요동성까지 도착한 병력이 2,700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전히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저자는 645년 1차 고구려-당 전쟁에서 당군이 6월 1일 백암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다시 요동성으로 갔다가 6월 11일에 안시성으로 진군하여 6월 20일에 도착한 느긋한 행보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선에서만 그쳤을 뿐 이에 대한 추론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저자의 견해가 약간이라도 들어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자는 주필산 전투에서 당군의 병력이 3만 명, 고구려군의 병력이 15만 명이라는 기록들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여 당 태종이 거둔 승리를 과대 포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추정하였다.⁸⁾ 필자도 주필산 전투에 적지 않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자

의 이러한 의문제기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교양서임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논증보다 정황증거 제시에 그쳤다는 게 아쉽다.

둘째, 영류왕과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가 다소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저자는 630년 영류왕이 당 태종에게 봉역도를 바친 행위에 대해 고구려가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세에 있던 고구려가 불필요한 외교적인 도발을 시도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고구려가 당 태종에게 봉역도를 바친 원인은 당이 돌궐로부터 우위를 점하자, 고구려가 당과에게 우호적임을 천명한 것이다.⁹⁾

저자는 631년 당이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승탑인 경관을 허문 사건을 계기로 영류왕이 당에게 위협을 느껴서 640년까지 당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634년 영류왕은 승려 파견을 통한 당과의 외교를 재개하였으며,¹⁰⁾ 639년에도 당에게 사신을 파견한 바 있다.¹¹⁾ 642년 당 태종은 영류왕이 당에게 공물을 보내는 것을 끊은 적이 없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¹²⁾ 이로 보아 640년 태자를

8) 徐榮教와 문영철은 여러 사료에서 고구려가 동원했다는 15만 명의 병력 규모 기록을 인정하면서 연개소문이 이러한 대병력을 보낸 이유에 대해 당 태종 본대를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徐榮教, 「駐蹕山 전투와安市城」 『동국사학』 58, 2015 ; 문영철, 「645년 고구려군과 당군의 주필산 전투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02, 2021).

9) 방용철, 「高句麗 榮留王代의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大丘史學』 102, 2011, 40~41쪽 각주 13.

10) 『佛祖統紀』券39 法運通塞 志 第十七之六 唐太宗 貞觀 8년. “荑州奏, 高麗三國僧, 願入中國學佛法, 欲覘虛實耳, 魏徵曰陛下所爲善足爲夷狄法, 所爲不善, 雖距夷狄, 何益於國, 詔許之.” 영류왕이 당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섭을 위해 승려를 파견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한다(방용철, 위의 논문, 2011, 10-16쪽).

11) 『舊唐書』券3 本紀3 太宗 貞觀 13년, “是歲 …… 高麗新羅西突厥吐火羅康國安國波斯疎勒于闐焉耆高昌林邑昆明及荒服蠻貊 相次遣使朝貢.”

당에 보내기 이전에도 간헐적이기는 하나, 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¹³⁾ 이는 영류왕이 천리장성 축조와 별개로 당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640년 당이 고창을 멸망시킨 것을 계기로 영류왕이 당에게 태자를 보낸 것에 대해 태자가 당의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화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당시까지 고구려의 중국왕조에 대한 태자 파견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전연(前燕)에 대한 칭신(稱臣) 사례뿐이었다. 이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 신성성을 보유하고 있던 고구려 왕실의 위상을 고려할 때 고구려의 국제적인 위신 및 고구려 사회 전반의 위상 저하 등도 초래하여 내부의 반발도 야기한 측면이 있다.¹⁴⁾

저자는 641년 7월 당이 병부 소속의 직방낭중 진대덕이 고구려의 성읍마다 관리들에게 비단을 주어 고구려의 세세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영류왕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영류왕이 의도적으로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태세를 보여주면서 당 태종의 침공의 뜻을 접게 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저자의 견해처럼 만일 영류왕이 의도적으로 진대덕에게 고구려의 견고한 방어태세를 보여준 것이라면 진대덕이 성읍마다 관리들에게 수고스럽게 몰래 뇌물을 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 대목은 진대덕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정도로

12) 『資治通鑑』 卷196 唐紀12 太宗 6년 11월, “亳州刺史裴行莊奏請伐高麗, 毫, 旁各翻. 麗, 力知翻. 上曰, 高麗王武職貢不絕, 爲賊臣所弑, 朕哀之甚深, 固不忘也. 但因喪乘亂而取之, 雖得之不貴. 且山東風弊, 吾未忍言用兵也.”

13) 방용철, 앞의 논문, 53~50쪽.

14) 방용철, 위의 논문, 52~54쪽.

안일했던 고구려 성읍관리들의 안보의식을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영류왕의 당에 대한 적극적인 유화적인 정책과 영류왕에 대한 당 태종의 철저한 기만이 아니었을까 싶다. 『삼국사기(三國史記)』도 진대덕이 고구려의 허실을 엿보았으나, 고구려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기록한 바 있다.¹⁵⁾

저자는 연개소문 정변 전말에 대해서도 영류왕이 대신들과 모의하여 먼저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을 두고 연개소문이 자신의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포한 거짓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저자의 추측처럼 연개소문이 거짓된 정보를 유포한 것이라면 연개소문에 대해 흥포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의 부정적인 묘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묘사가 반영된 연개소문의 정변 기사는 오히려 연개소문의 반대파로부터 비롯된 정보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자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무엇보다 권력욕이 앞섰으며, 당과의 전쟁 수행도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연개소문이 당과의 전면전을 수행 하는 데 있어 고구려 사회 전반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연개소문은 독자세력권 회복을 추구하며 대당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대신라 강경책을 구사하겠다는 정치 세력의 대표로서 대외정책을 두고 대당유화책인 영류왕과 극단적인 대립 끝에 유혈정변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¹⁶⁾

저자는 연개소문이 당과의 전쟁을 앞두고 배후의 신라를 적대 세력으로 돌린 것에 대해 연개소문의 대신라정책을 큰 실책이라

15) 『三國史記』卷20 高句麗 本紀8 榮留王 24年, “大德回奉使, 胡國虛實, 吾人不知.”

16) 김강훈, 「고구려 영류왕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개소문의 정변」 『歷史學報』 249, 2021.

고 평가하였다. 642년 신라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백제를 공격할 군사를 빌려줄 것을 청하였다. 연개소문이 김춘추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백제를 적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백제는 신라를 상대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한 상황이었다. 당과의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개소문이 신라보다 군사적인 우위가 확인된 백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저자의 이러한 평가는 훗날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에서 비롯한 다소 결과론적인 시각으로 생각한다. 당시 연개소문으로서는 당이 서해를 횡단·직공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거나, 고구려가 신라-당 연합군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본서에서 참고한 참고문헌에 대한 부분이다. 본서는 2022년 7월 15일에 발행되었다. 본서에서 참고한 가장 최신 연구 성과는 2022년 3월 31일에 발행된 정동민의 『고구려-수 전쟁(신서원, 2022)』이다. 다만, 참고문헌에 언급된 2020년대의 연구는 앞서 언급한 정동민의 연구를 제외하면 김진한,¹⁷⁾ 여호규 외 5인(공저),¹⁸⁾ 장창은,¹⁹⁾ 정원주,²⁰⁾ 정호섭²¹⁾의 연구뿐이다. 2010~2020년대에 논의된 고구려-수 전쟁, 영류왕과 연개소문, 고구려-당 전쟁, 고구려의 내분과 내전, 고구려의 대외관계 등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참고문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17) 김진한,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18)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중은·이경마·정동민,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혼하~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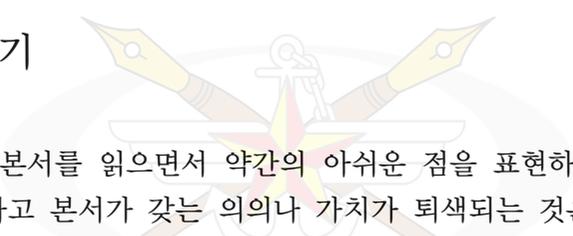
19)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20) 정원주,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 목적과 의미」 『高句麗渤海研究』 67, 2020.

21) 정호섭,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와 안시성주 전승의 추이」 『高句麗渤海研究』 67, 2020.

물론 이는 저자의 고의적인 누락이라기보다는 지면의 한계와 본서의 성격이 학술서적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드시 전부 일일이 기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필자가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 까닭은 본서의 말미에 수록된 참고문헌이 일반 대중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고구려-수당 70년 전쟁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4. 나가기



필자가 본서를 읽으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을 표현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본서가 갖는 의의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의 부족한 식견과 미숙함으로 인해 혹여 저자의 견해와 의도를 오해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크다. 평소 7세기 고구려-수당 전쟁사에 관심이 적지 않았던 필자는 본서가 출간되자마자, 구입해서 탐독했을 정도로 본서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컸다.

그러던 중 우연히도 필자에게 본서의 서평을 쓸 기회가 주어졌다. 아무래도 필자가 7세기 고구려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필자는 아직 많이 미숙하고, 공부 중인만큼 과연 본서를 읽고 서평 할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해 배우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본서를 읽고 관련 선행 연구 성과들을 섭렵하였다. 이처럼 필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7세기 고구려

-수·당 전쟁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의 정리는 물론 70년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보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40년 가까이 고구려사 연구에 매진하여 학계와 대중에게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저자는 본서를 통해 고구려와 수·당의 70년 전쟁을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다. 본서는 향후 일반 대중에게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업계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의미한 소재를 던질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대중 콘텐츠로도 고구려-수·당 전세기 배경을 소재로 한 사극이 드문드문 나왔지만, 흥행여부를 떠나서 고구려-수·당이 갖는 유의미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필자는 지난 2018년 모방송사의 드라마국 모CP를 만난 자리에서 7세기 고구려사에 대한 콘텐츠 소재를 어필한 적이 있다. 당시 모CP는 필자에게 고구려사는 동북공정에 대한 관심이 식은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렵고, 대중국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물론 필자가 콘텐츠 시장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어리숙하게 고구려사를 어필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필자는 본서를 읽으면서 만일 2018년에 본서가 세간에 나오고 필자가 본서를 읽었더라면 모CP에게 고구려사를 보다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현재 필자는 고구려사 공부는 물론 고구려-수·당 70년 전쟁을 배경으로 연재 중인 웹툰 두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서는 공부와 콘텐츠 작업을 병행 중인 필자에게 고구려-수·당 전쟁이 가져다주는 역사적인 의미와 ‘70년

전쟁'의 콘텐츠화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7세기에 전개된 고구려와 수·당 70년 전쟁 속에서 고구려와 수·당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의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다. 이러한 '70년 전쟁'을 다룬 본서는 '들어가며'에 서술되어 있듯이 오늘 대한민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역사적인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舊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佛祖統紀』

2. 단행본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http://uci.or.kr//G701:B-00089313771>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15.

<http://uci.or.kr//G901:A-0006555193>

이윤섭, 『다시 읽는 한국사2: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책보세, 2014.

이윤섭, 『다시 읽는 한국사3: 나당연합과 발해』, 책보세, 2014.

임용한, 『전쟁과 역사(삼국편)』, 혜안, 2001.

<http://uci.or.kr//G901:A-0006004232>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2(사상 최대의 전쟁)』, 혜안, 2012.

<http://uci.or.kr//G901:A-0006004232>

3. 연구논문

김강훈, 「고구려 영류왕 후기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개소문의 정변」
『歷史學報』 249, 2021.

문영철, 「645년 고구려군과 당군의 주필산 전투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02, 2021.

<http://doi.org/10.37331/JKAH.2021.06.102.309>

방용철, 「高句麗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關係」 『大丘史學』
102, 2011.

<http://uci.or.kr//G701:C-00056497154>

徐榮教, 「駐蹕山 전투와安市城」 『동국사학』 58, 2015.

<http://doi.org/10.22912/dgsh.2015..58.49>

徐榮教, 「고구려의 最後와 彗星」 『震檀學報』 138, 2022.

李玟洙, 「661~662년 고구려-당 전쟁 직후 양국의 동향」
『高句麗渤海研究』 73, 2022.

<http://doi.org/10.34159/tkby.73..202207.005>

임기환, 「고구려와 당 최후의 전쟁 과정 복원 시론」 『韓國史學報』
86, 2022.

<http://doi.org/10.21490/jskh.2022.2.86.45>

임기환, 「고구려 멸망기 신라의 군사 활동」 『韓國史學報』 90,
2023.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3년 군사편찬연구소 시무식
 - 일자/장소: 2023. 1. 2.(월)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연구소 전원



〈 2023년 군사편찬연구소 시무식 〉

- 韓-우즈베키스탄 『국방부 군사연구소』 MOU 체결식
 - 일자/장소: 2023. 1. 9.(월) / 연구소장실
 - 참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 연구소장, 기획조정실장, 연구관리담당관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방부 군사유산 및 현대연구연구소
 - * 타시마토브 루스탐(국방무관/육군 중령)
 - 이 에브제니아(대사 비서)



< 韓-우즈베키스탄 『국방부 군사연구소』 MOU 체결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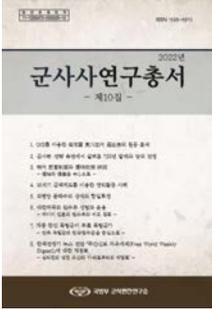
2. 인사 및 교육

- 임 용
 - 전쟁사부 황수현 : '23. 1. 16.부
- 국방대 신규 임용자과정 교육
 - 조사연구부 윤시원 : '23. 2. 13. ~ 24.
- 국방대 성과관리과정 교육
 - 전쟁사부 전윤재 : '23. 2. 20. ~ 24.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신규자 과정 교육
 - 문헌정보실 안지영 : '23. 3. 13. ~ 24.



신간 도서 소개

| 구 분 | 내 용 |
|---|---|
| <p style="font-size: small;">ISBN 979-11-0998-001-2 (2022.03)</p> <p style="font-size: small;">군사문화번역자료</p> <p style="font-size: small;">兩朝平壤錄(日本) 萬曆三大征考(倭)</p> <p style="font-size: small;">[ISBN] 979-11-0998-001-2 (2022.03)</p> <p style="font-size: small;">[판권] 양조평양록(日本) 萬曆三大征考(倭)</p> <p style="font-size: small;">編者 軍史編纂研究所</p> <p style="font-size: small;">양조평양록[일본] 만력삼대정고[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사부 • 신국판(반양장) • 2022. 12. 20. | <p>이 책은 중국 명나라 만력(萬曆) 34년(1606) 이전에 제갈원성(諸葛元聲)이 지은 『양조평양록[일본](兩朝平壤錄[日本])』과 천계(天啓) 원년(1621) 모서징(茅瑞徵)이 저술한 『만력삼대정고[왜](萬曆三大征考[倭])』의 번역서이다.</p> <p>『양조평양록[일본]』은 임진왜란에 직접 참여한 저자가 논찬의 형식을 통해 조·명·일 3국의 전략전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목적 등까지 흥미진진하게 구성하여 일찍이 기사본말체의 명저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만력삼대정고[왜]』는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담담하게 사건 중심으로 착실히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두 책은 일찍부터 상호보완적인 저술로 평가되어 왔다.</p> <p>이 번역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연구동향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국인 한·중·일 3국의 기본 자료부터 소개·재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간된 것으로서, 임진왜란을 새롭게 해명하는데 일정한 역할이 기대된다.</p> |

| 구 분 | 내 용 |
|--|---|
|  <p>군사사 연구총서 제10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사부 • 신국판 • 2022. 12. 30. | <p>본 책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군사사의 미개척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자의 연구지원으로 출판된 책자입니다. 본 제10집은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GIS를 이용한 고구려사 연구, 발해와 당의 전쟁, 명대 무관제도, 16세기 군역제도, 의병장 문태수, 대한제국 원수부, 독립군가, 6·25전쟁기 뉴스전단 등 다양한 주제의 탁월한 연구성과가 수록되었습니다. 군사사의 역사적 전통을 이해하고, 연구기반 구성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p> |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문헌정보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헌정보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헌정보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물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계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http://doi.org/10.12345/mh.2017.105..103)
-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33(신범규 선임연구원)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 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22. 2. 18



| | |
|-----------------------|-----|
| 제1조(목적) | 247 |
| 제2조(적용대상) | 247 |
| 제3조(적용범위) | 247 |
| 제4조(용어의 정의) | 247 |
|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248 |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 | |
|------------------------|-----|
|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249 |
|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250 |
| 제7조의 2(연구의 진실성) | 251 |
| 제7조의 3(인용방법 원칙) | 251 |

| | |
|--------------------------------|-----|
| 제7조의 4(중복게재) | 252 |
| 제7조의 5(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252 |
| 제7조의 6(공동연구) | 253 |
| 제7조의 7(저자결정 기준) | 253 |
| 제7조의 8(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 253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 |
|-------------------------------------|-----|
|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254 |
|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254 |
|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254 |
|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255 |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255 |
|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256 |
|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256 |
|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257 |
| 제16조(판정) | 257 |
|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257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 |
|-------------------------------|-----|
|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258 |
|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258 |
|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259 |
| 부칙 | 259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

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

시해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 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

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1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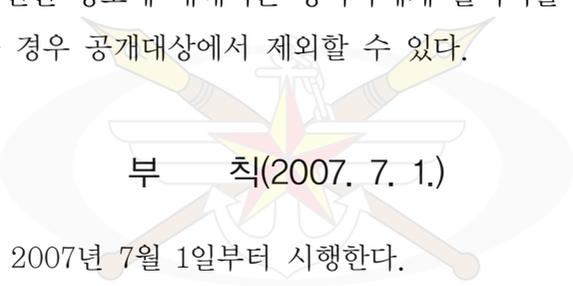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07. 7. 1.)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8.)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담당관

기획운영실 연구관리담당 / 900 - 0931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이 세상

유능한 안보
본뜬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이미숙(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신범규(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3/3(第126號)

2023년 3월 8일 印刷

2023년 3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3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3030172)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26. 2023. 3.

- Kim, Deok-won** The establishment of the Alliance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its impacts
- Oh, Ki-seung** A study of the real features for the Gunpowder based weapons systems of 'hwatong' and 'hwapo' at the late period of Goryeo through several operating cases
- Lee, Jong-hwa, Yoon, Hun-sik** A study on the Scale of Combined Naval Forces of Joseon and Ming in the Battle of Noryang
- Park, Sol-kyu** How was the Military doctrine of active defense born?
: Focusing on the process of writing the FM 100-5 Operations
1976 edition
- Lee, Hanhyung** Comparison of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 Focusing on the Cases of Egypt and Israel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